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4월 12일(음력 3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573 호

교회가야 친구들과 놀 수 있어요

불자 엄마가 쓴 高2 아들이야기 인터넷서 큰 메아리

"새싹포교 무관심의 결과 · 눈높이 포교 발등의 불" 여론 확산

"하나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친구들이 다 거기(교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불자 어머니의 글이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 은평법당 인터넷 카페(cafe.daum.net/dmsvudqjqekd)에 올라온 혜향성 보살의 글이다.

글은 아들이 "교회에 가겠다"고 선언하자 어이없어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혜향성 보살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들이 일요일에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됐는데, 반 아이들 34명 중에 10명이 담임선생님이 다닌다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님이 아들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직접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혜향성 보살이 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한 번은 교회가고 한 번은 절에 가라" 뿐이었다.

소극적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혜향성 보살의 글이 '붓다뉴스(buddhanews.com)'에 올라오자 수많은 누리꾼들이 공감을 나타내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15면

아이디 '정신차리자'라는 누리꾼은 "아이를 절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도 갈 때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디 '관심'이라는 누리꾼도 "매년 초 각 학급(남자고등학교) 종교를 조사하면 35명 중 20명 이상이 개신교이고 가톨릭이 6명, 불교는 2명 정도"라며 '청소년' 포교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대학생' 포교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아이디 '둘이아님'이라는 누리꾼에 따르면 "지금 전국대학의 대불련은 모두 문 닫기 직전이다. 몇몇 남지 않은 회원이 동아리 명맥이라도 지키기 위해 가짜로 회원을 늘려서 학교 동아리 등록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포교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단위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심 부족'을 꼽았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도할 교사불자나 불자 상담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전문인력 부족'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포교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 부족' 등의 원인을 지적했지만 "진단은 있어도 처방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혜향성 보살의 소망처럼 "〈반야심경〉에 맞춰 힙합댄스를 즐기고, 드럼을 두들기고, 연기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날이 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한혜원 사무차장은 '눈높이 포교'를 제안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한곤 과장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종단 차원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 출가자 청소년 포교 실습 의무화, 종립학교 내 청소년학과를 개설 등이 방안이다.

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前 회장은 포교원과 교사불자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포교 관련 단체들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 담당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주지인사고과시 포교 활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종단 차원의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원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자비의 연꽃' 가슴가슴에 …

조계종 · 本社 공동캠페인 … 자비연꽃배지 보급

조계종 총무원과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함께 '자비연꽃 달기운동'을 연중 실시한다.

'자비연꽃' 배지는 부처님오신 뜻을 되새기며 재난구호 및 극빈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기금'을 모연을 위해 총무원 사회부가 개당 1000원에 전국 사찰 및 단체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봉축리본을 대신하거나 등불사 동참기념, 행사기념, 이웃에 대한 선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불자 12만 명이 동참, 총 1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파키스탄 긴급재난구호 봉사대 활동지원, 병원불자연합회 스리랑카 의료봉사단 파견, 미국 카트리나 피해 구호 지원, 태풍 '나비' 피해 울릉도 지원 등에 사용했다.

(02)2011-1820, 국민은행 023-25-0011-99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 역사 · 문화체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협찬** :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월정사 수행학림 동참 (033)332-6661~5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시사회 오세요

신비의 나라 부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불교적인 깨달음이 잔잔히 녹아있는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가 이달말 개봉됩니다. 개봉에 앞서 4월 25일 저녁 8시50분에 갖는 시사회에 현대불교 애독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사회 초대권(1인2매)은 선착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2일 이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팝업창을 참조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전용버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봉사단을 조직해 4월 6일 센터전용 버스를 마련하기 위한 3000만원 모금운동에 나섰다.

사진=박재완 기자

세계 종교지도자 서울에 모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 4월 25일 개막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세계평화'를 화두로 한국에 모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는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과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백담사 만해마을 등지에서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전래 163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타엣 사야도 바단타케사라 미얀마 국립불교승가회 의장, 스리랑카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 전 유네스코 대사, 공자 77대 직계후손 콩더반(孔德班) 중국 취푸(曲阜)시 상공회 전 주석 등 세계 각국 30여명의 종교지도자와 석학을 비롯해 국내의 각 종교계 지도자와 학자 500여명이 참여해 종교지도자대회 · 국제학술대회 등을 펼친다.

대회의 첫 테이프는 4월 25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기원법회'가 끊는다. 기원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어, 정진석 추기경의 치사,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축하 메시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점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월 8일부터 열리는 본 대회는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안 제시' '대통령을 비롯한 올바른 지도자상 정립과 미래한국의 대안제시' 등을 부제로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유대교측의 학술발표가 이어진다. 또 대회기간 중 경주 불국사와 양산 통도사, 서울 순복음교회, 서울 명동성당도 방문한다. 대회의 대미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장식할 계획이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장 연기영 교수는 "국가간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정법사 조실 석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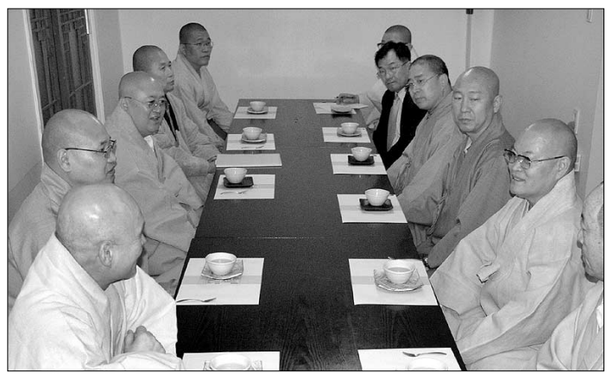
'방과후 교실' 현황과 대책 4면
해인사 등산로 변경요청 6면
병원법당 24시 9면
월정사 수행학림현장 18~19면
곡우절 차밭체험 26면
건강 지켜주는 웃음 27면


산문밖의 선 17면
금강경 사경 20년 김복수씨



“원만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하자” 합의

‘태고종사’ 관련 조계 · 태고종 공식 첫모임
태고종 “교정판 제작할 뜻 있다”



<태고종사> 발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계(왼쪽줄) · 태고 양종단 대표가 4월7일 첫 모임을 가졌다.

조계 · 태고종 양 종단 관계자가 4월 7일 <태고종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태고종사> 발간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두 종단은 이날 서울 삼청동의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다. 첫 공식 모임인 이날 회동에는 ‘조계종 종단사왜곡과 종단정통성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대성 스님을 비롯한 대책위 스님 7인과 태고종 부원장 자월 스님을 비롯해 종단사간행위원회 위원장 수열 스님 등 7인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조계종 대책위가 3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태고종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4월 3일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태고종측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날짜와 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측 대책위는 이날 모임에 앞서 가진 제5차 대책위회의를 통해 △전량수거 · 폐기 △책임자 참회 · 사과 △양 종단 공동으로 종단사 정리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이런 내용을 모임 현장에서 태고종측 스님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회동 초반 두 종단 스님들 간에는 고성이 오고가는 등 잠시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고종 부원장 자월 스님이 “<태고종사>의 일부 격한 표현들로 인해 조계종 스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유감이며 책의 내용을 순화해 교정판을 제작 할 뜻이 있다”며 한발 물러서자 조계종측 대성 스님이 “<태고종사>로 인해 종단간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해 분위기는 반전됐다.

회동직후 대성 · 혜자(대책위 집행위원장) 스님과 자월 · 수열 스님 등은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오늘 모임으로 서로 입장차를 줄이고 최선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 뿌리였던 두 종단은 앞으로 2~3차례 더 모임을 갖고 근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5월 16일 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불학연구소가 종단의 정통성강화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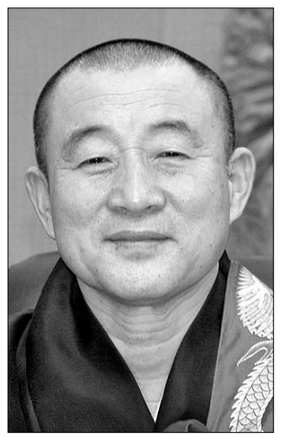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산중공사 · 부장 책임제 가동”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기자회견…종단 비전 제시



천태종이 수행 풍토 진작, 산중공사 제도화, 해외포교와 복지확대에 진력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 정산스님(사진)은 4월 4일 서울 관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종풍을 진작시키고, 산중공사를 제도화해서 대중 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서장들이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부장 책임 운영제를 가동하겠다고 운영 기조를 밝혔다.

정산스님은 “종단 차원의 큰 불사나 해외포교 사업, 인사 문제 등이 생길 때마다 종회나 감사원, 인사위원회 등을 활용한 산중공사를 열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특히 가장 큰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인사문제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의 직제도 개편된다. 정산스님은 “교육원과 문화부, 기획실 등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통해 종단 업무를 세분화 할 것”이라며 “현재 종헌종법 개정이 마무리 되는 11월경에 총무원 조직 개편과 간부급 인사도 단행 하겠다”고 직제 개편의 의지를 표명했다.

장례문화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산 스님은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거나 화장하는 신도를 위해 납골묘를 설치하는 등 장례문화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꿔 나갈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천태종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구니스님들은 뒷전에서 각 사찰의 살림살이를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않았다지만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비구니스님들이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며 “산중공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겠지만 앞으로 비구니스님들도 본말사 주지직 소임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군종장교 파견에 대해서는 “조계종 일면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이 천태종의 군종장교 파견 문제를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자체적으로 군종장교 파견에 관한 내부규정을 4월중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아마도 내년쯤이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사법 시행령 강한 규제권한 필요”

문광부, 공청회 열어

최근 확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법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가 4월 5일 한국일보 송현클럽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나선 김봉석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찰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시 · 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내의 부적절한 건축이나 사업을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자간의 상호 질의 토론에서 김봉석 변호사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수년전 모 사찰이 경내지 주변에 난립한 상가들을 정비하기위해, 사찰이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업자들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배진홍 사무총장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행정적 권한이 없지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동화사 주지후보 허운스님 선출

7일 산중총회서 204명 투표 71표 얻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4월 7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 후보에 허운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인단 230명 가운데 20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허운 스님이 71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지성 스님은 59표, 보정 스님은 66표를 얻었으며 무효표가 8표였다.

허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실 스님과 前 주지스님 그리고 교구의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동화사의 아름다운 설화를 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주지 후보 허운 스님은 성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2년 파계사에서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8년 쌍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 재부부장을 지낸바 있으며, 현재 대구 은적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배지선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순회법회를 시작했다. 사진은 4월9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첫 순회법회 모습. 앞줄 왼쪽부터 포교원장 도영, 동화사 주지 지성, 前 포교원장 정락 스님. 사진=배지선 기자

지역포교 활성화 사부대중 ‘한뜻’

동화사 신흥사서 포교전진법회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순회법회가 4월 1일 대구 동화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대구 · 경북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전진법회’로 봉행된 동화사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前 포교원장 정락,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대구광역시 및 제9교구 신도회 장영관 회장, 이재용 前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9교구 산하 신도회와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락 스님의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문’과 지역불교지도자 소개, 자비의 연꽃달기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4월 3일 속초 신흥사에서 열린 순회법회에서도 도영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집행부 스님들과 제3교구 산하 신도회와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지역불교지도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포교원이 교구와 단위사찰 및 단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열고 있는 순회법회는 9일 직지사, 22일 통도사 및 고운사, 27일 대전 백제불교회관, 29일 마곡사, 5월 14일 범어사, 20일 법주사 및 봉선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 배지선 기자

일본서 10월에 9차 한중일 불교대회

‘인류 공생을 향해’ 대주제

한중일 3국 불교교류 증진을 위한 ‘제 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5~27일 일본 도쿄와 나라 일대에서 한중일 사부대중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3월 30 · 31일 양일간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3개국 실무자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은 “제9차 대회에 앞서 이번 실무자 회의를 통해 대회 일정과 주제 및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첫날인 10월 25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인류의 공생을 향하여’라는 대주제 아래 ‘종교간 대화에 있어서 3국 불교의 역할’이라는 소주제를 두어 각 나라마다 기조발제와 토론자 3명이 참여해 논의한다.

김주일기자

불자대상 공모

조계종 18일까지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불자를 격려하기 위해 ‘불기 2550(2006년) 불자대상’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후보자 접수는 6~1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추천서 및 공적사항 입증서류를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해야 한다.(02)2011-1702 www.buddhism.or.kr

조용수 기자

봉 행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

나무 불 · 법 · 승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종은 금번 제7대 총무원장 법철스님의 이임과 제8대 총무원장 법우스님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50(2006)년 4월 19일 수요일 오후2시

장 소 : 서울 세검정 하림각 신관2층 다이아몬드홀(02-396-2442)

증 명 : 봉암
법 주 : 동명 청곡 원정 현공 법달 법묘
지 도 위 원 : 초혜 정암 진공 법현 법교 혜광 혜도 운광 본자
정안 무원 혜관 보명 현각 동월 송광 청암 덕암
정각 정법 수연 광탄 성일 만상 지정 종오 혜초
지관 관무 명달 계전 일붕문도회 일동
봉행위원장 : 도현
봉 행 위 원 : 지일 현철 지혜 월연 월현
최송식 이춘하 김 훈 고금순 고오연 고인덕
강정희 양혜옥 김금옥 김대각 김면암 김범수
김병락 김양순 김완식 김천용 김현수 김고경 김희진 노연식
노효순 마향숙 민영옥 박창경 박태임 변경자 서두수 선양희
신법운 안용희 양순자 오금주 이강옥 이명재 이법화 이성위
이순희 이지혜 이태숙 임순덕 임정심 장순옥 박순남 조방선
주원각 최명자 최인선 최창람 허순애 임정숙 황현숙 권기주
조민숙 김대비심 정대륜심 정수월심 김연화행 김자비행
박대복심 박진공심 송대련화 신법화심 양대법화 옥자비행
윤불심행 각사암신도회 신행단체일동

2006년 4월 3일

봉 행 위 원 장 도 현 합 장

주최 :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주관 :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 전화 : 02)394-9468 / 팩스 : 02)395-9468

위덕대 개교 1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한재숙)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대학 엠블렘(사진)을 4월 4일 제작 발표했다.

엠블렘은 미술학부 배종헌 교수 도안으로 교수(校獸)인 무소의 뿔을 형상화해 대학 이미지의 일관성을 표현했다. 또 5불을 상징색(백색:비로자나불, 적색:아축불, 황색:보생불, 청색:아미타불, 흑색:불공성취불)으로 사용해 종립학교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냈다.

위덕대학교측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의 굳은 의지를 요약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엠블렘에 대해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과제당 논문게재수 동국대 전국 최고

과기부와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사업성 분석결과 과제(센터)당 논문 게재수에서 동국대가 가장 많은 성과(23.89편)를 올렸다. 동국대는 과제당 SCI 논문게제 수에서도 19.33편으로 한국과학기술원(14.43편)과 포스텍(13.87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과학재단의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결과에서 동국대는 연구비 10억당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수에서 경북대와 부산대에 이어 76.03편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구비 10억당 SCI 논문 수에서도 동국대는 경북대 70.20편의 뒤를 이어 61.53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은 2004년 과기부가 한국과학재단과 공동으로 1천7백88억원을 투입한 협약과제 9백19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단체 프로그램 공모 유적답사 등 4개 선정

2006년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유적답사, 이혼상담, 청소년 인권마당, 바른선거 운동 등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을 응모한 한꽃외국인노동자센터와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에게는 이달내 총 3000만원이 지원된다.

조계종 사회부는 4월 10일 선정단체 실무자간담회를 개최한다. (02)2011-1820 박봉영 기자

'장애인의 날' 행사 풍성하네

금강산 신계사에 연등 밝히기 · 요리 만들기
운동회 · 바자회 ·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 다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마당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장애인 세상 나들이다. 4월 18~20일 장애인 20명이 가족 20명과 손에 손을 잡고 북한 금강산을 구경하러 떠난다. 재단 산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동 가능한 1, 2급 장애인들은 18일 금강산 콘도에서 집결한 후 북한으로 출국해 구룡연 및 해금강, 온정각, 만불상 등을 관광하며 북한 땅을 직접 밟아본다.

또 남북한의 불심이 하나로 모인 신계사를 참배하고 '빈자일등'의 정신을 담은 연등을 밝히며 북녘 땅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도 '장애인의 날' 당일 요양시설 내 장애아동 20명과 함께 서울 삼성동 아쿠아리움를 방문하는 '꿈이 있는 봄나들이'를 실시한다.

획일화된 기념행사에서 탈피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직접 주변의 소중한 이웃을 초대해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대접하는 '아주 특별한 만찬'을 기획하고 있다. 18일 지역 장애인 20명이 제천과학대학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멋진 요리 만들기에 도전한다. 이들은 부모, 형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웃 등에게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2~6시에는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야외체육장에서 장애 · 비장애 아동이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미니바자회를 여는 곳도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날 행사주간인 4월 12~11일 관내에서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니바자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어울림한마당, 무료대중공양을, 19일에는 강북노래자랑 등을 연다.

경주, 영주, 군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날' 당일 초 · 중 · 고등학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장애체험행사, 가두행진 등을 갖는다. 해남군장애인복지관은 20일 지역 주민 및 유치원생에게 개방행사를 열어 장애인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불교인재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상적인 재가불자상 정립을 발원하고 있다.

'사람'이 미래…인프라구축 나서

조계종 중신회 '불교인재개발원' 발기인대회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망 있는 재가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발기인에는 윤원호 · 최재천 · 신상진 · 안홍준 의원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해 허탈 한국화인케미컬 상임고문, 신현식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등 재계 인사, 김동건 영남대 이사장, 김용택 동국대 부총장 등 학계 인사,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정준 한국학문화원장, 장선우 영화감독 등 문화계 인사 252명이 참여했다.

발기인들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재가불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대 상임대표로 박윤흔 前 환경처장관을 선출하는 한편,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허경만 前 국회부의장, 황경환 진양유조선 대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불교인재개발원은 7월 창립을 목표로 불교지도자들을 묶는 인적뱅크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대중생활강좌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5월과 6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을 초빙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매월 불교와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첫 대중강좌 일환으로 5월 16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예술장에서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초청 <돈황본 육조단경> 강좌를 개설한다. (02)733-7277 글 · 사진=박봉영 기자

혜명복지원, 불교복지 개척 60년

어린이집 10곳등 포교·교육 견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은 4월 5~11일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 · 2전시실에서 '청소년 가장돕기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60주년을 기념하고 내실 있는 복지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혜명복지원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혜명보육원으로 문을 열었다.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불교 아동복지시설이었다. 당시 뜻있는 불자 독지가였던 김기용씨가 설립한 혜명보육원은 71년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서울 도선사에 이양됐고 78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혜명복지원은 이후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및 청담어린이집, 금천자활후견기관 등을 운영하며 불교사회복지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립 어린이집인 도봉 보람 노유 파랑새 마장 성북 어린이집 등 10곳의 구립 어린이집과 미아6동 자비의 집, 수유1동 청소년 독서실 등을 위탁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기여해 왔다.

혜명복지원 이사장 혜자 스님은 "청담 큰스님이 생전에 특별히 강조하신 자비는 사회구성원들이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책임진다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더욱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백제 불교유적지 발굴 본격화

군수리 · 왕흥사지 조사 착수

백제 불교 주요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4월 4일 사적 제44호 부여 군수리사지(扶餘軍守里寺址)에서 개토제를 지내고 제4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2005년 70년만에 이뤄진 제 3차 발굴조사의 후속조사로 목탑지, 금당지, 동편기단지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 및 개별 유적에 대한 내부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여 군수리 사지는 백제 사비기(538~660)사찰지로 1935~1936년 발굴조사 당시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등 1탑1금당의 전형적인 백제사찰 가람구조가 확인되었으며 목탑지 심초석 상부에서 보물 제 329호 군수리사지석조여래좌상 및 보물 제 330호 군수리금동미륵보살입상 등이 출토돼 관심을 끌었다.

부여문화재연구소는 사적 제 427호 부여 왕흥사지 7차 발굴조사를 4월 6일 시작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부여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발굴조사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발굴조사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봄숲의 숨결 느껴볼래" 환경연대, 어린이 캠프

아이들과 함께 전통사찰과 숲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캠프가 열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 22~23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5명을 모집하는 이번 캠프는 숲속 자연놀이, 사찰문화체험, 강화도 유적지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봄숲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나무와 하나되기', 봄소식을 알려준 봄꽃을 관찰하는 '도감 만들기', 정족산성을 돌며 생명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새소리와 함께 여는 아침'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02)720-1654 budaeco7@komet.net 박봉영 기자

"종교편향후보 공천말라" 종평위, 정당에 입장 전달

5 ·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적 편견을 가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종교편향 성향의 후보자 공천을 반대하는 공문을 3월 30일자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각 정당에 발송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편향을 일삼았던 일부 대표자들로 인한 사회혼란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교편향을 자행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자들의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평화위원회는 5 · 31지방선거에서 특정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호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언행 감시활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종교평화위원회는 정장식 前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 발표를 환영하고 종교화합의 주춧돌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잠정중단

조계종 환영 논평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온 통영시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4월 7일 공사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통영시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조계종 총무원, 쌍계사, 용화사, 통영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6자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조계종 총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결정 직후 발표한 환영논평을 통해 "통영시청의 공사중지 결정은 우리 사회 환경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통영시의 대화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돼 합의안이 나올 경우 지역불교계 뿐만 아니라 조계종단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통영시 도남동과 산양읍 영운리 구간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공사로, 통영시가 상부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용화사 경내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불교계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박봉영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6년 총동문회 정기총회

귀의삼보하옵고

모든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입니다.
각 처에서 수행과 전법교화에 전념하시면서 동문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동문스님들의 평온하심을 축원하며, 佛祖의 光明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회에서는 회칙 제7장 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하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교 승가축제 기간입니다.
동문스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어
재학생스님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50 ('06)년 4월 26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김포학사 본관 4층 대강당

▶안 건 : 1) 2005년도 예 · 결산 심의 건
2) 2005년도 결산 감사 보고의 건
3) 2005년도 장학금 보고의 건
4) 승가학 연구원 관련 보고의 건
5) 학교 상징물 보고의 건
6) 2006년도 사업진행 보고의 건
7) 총동문 성지순례 관련의 건
8) 기타의 건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922-7881 / Fax : 02)929-6919
홈페이지 : http://ob.sangha.ac.kr/

※ 명예회장 범산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장 퇴우 정념
수석부회장 월우 경진
차석부회장 원소 정민
부회장 광진 현수
법일 해득
도각 묘근
보화 정주
정묵 일지

선거관리위원장 해관
감사위원장 원천
감사위원 수봉 자용
문화분과위원장 미등

〈운영위원〉
1기 범산, 혜욱 2기 인묵, 혜인 3기 송강, 법륜 4기 혜진, 일선 5기 수봉, 현관
6기 도완, 정민 7기 광진, 현수 8기 일광, 초우 9기 정암, 법정 10기 각원, 창욱
11기 활중, 청현 12기 선용, 혜철 13기 혜각, 승우 14기 각문, 각우 15기 덕관, 묘현
16기 지일, 인성 17기 상원, 효성 18기 각연, 종현 19기 보림, 도선 20기 도전, 수영
21기 법운, 수현 22기 도봉, 보규 23기 길상, 도혜 24기 혜일, 견허

사무처장 공 운
사무국장 각 연
실무간사 진일명

中央僧伽大學校總同門會長 退宇正念 合掌

‘방과후 공부방’ 기독교 72%, 불교계 1%

불교계 방과후 보육현황과 활성화 방안

학교가 끝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열쇠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방과후 공부방’을 대폭 지원하는 등 방과후 보육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 급식지원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대상을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이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까닭에 저녁까지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방과후 공부방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각 교회마다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하고 어린이 선교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독교계와 같이, 불교계도 방과후 공부방을 포교에 접목시켜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단위 사찰을 활용한 방과후 공부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방과후 공부방 운영의 불교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



불교계는 공간, 콘텐츠, 인력 등 방과후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삼전종합복지관장 선재 스님이 복지관 부설 꿈자람 방과후 교실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모습.

‘열쇠아동’ 늘어나 중요성 날로 커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 파악한 전국의 방과후 공부방은 약 8백여 개. 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430여 곳의 현황이 파악됐다.

이 조사결과는 불교계에 충격을 던져준다. 430곳 가운데 72.3%(310곳)를 기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부방 대표자 중 75.5%는 목사 등 개신교인이며 30.7%는 교회 등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불교계 공부방 비율은 단 7곳(1.4%)으로 드러났다. 불교계의 아동복지 위상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합사회복지관 15곳과 진각복지재단 산하 종합사회복지관 3곳이 지역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불교 사회복지법인 산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30여 곳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 각 공부방이 어떤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시설이 운영하는 공부방, 각 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그 운영방식도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역시 빠른 시일 내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종교는 정부의 예산을 선점하며 대대적인 방과후 보육정책을 펼치는 동안, 불교계 방과후 공부방은 실태조사도, 지원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력없다” 사찰은 무관심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지난 3월 20~22일 열린 제170차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방과후 공부방을 각 사찰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별 다른 공감을 얻지 못했다. 아직도 ‘어린이 포교는 사찰 법회를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찰 내 공부방 및 보육시설 확대 및 홍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계사에 사찰 내 놀이방 및 공부방 구축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예산부족과 사찰 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각 스님은 “단순히 결식아동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면서 출발한 ‘공부방’이 이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상담과 특기적성 교육까지 맡은 제2의 가족기능까지 하는 상황인데도 불교계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도 재정, 인력난으로 하나둘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교복지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종단 산하 사회복지재단조차도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교계 방과후 공부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그나마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공부방) 한 곳을 위탁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무관심’이 문제 … 지원은커녕 실태조차 몰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콘텐츠·인력 풍부
정부 적극 지원 … 포교와 접목 적극 활용해야

불교계에는 마음만 먹으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다. 당장 방과후 공부방을 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심포교당과 사찰도 다수 있으며, 한문·다도·명상·참선 등 콘텐츠도 풍부해 지역아동을 위한 불교계만의 심성계발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더구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이라는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불교계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면 아동복지와 포교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심인당 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진각종 ‘본원자성학교’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원자성학교’는 경북 청도군 본원심인당 내에서 운영해왔던 방과후 공부방을 지난해 11월 군청에 등록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마쳤으며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공부방 개설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 ‘방과 후 교실’ 등 보육·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설립비는 물론이고 운영비·교사비·급식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가정 아동은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경우 월 평균 운영비 2백만 원, 보조교사비 30~1백45만원이 지원된다. 설립조건도 까다롭지 않는 편이다. 종사자와 시설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이들이 20명 미만일 경우 시설장 1명·교사 2명의 종사자가 있으면 된다. 지난 3월부터는 종교시설 단체 대표장이면 바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바뀌어, 원력 있는 주지스님이 방과후 공부방 시설을 운영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허가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갖춰졌다.

설립 쉬워…月운영비 2백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 1999년부터 ‘꿈자람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우수복지시설로 선정됐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선재 스님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불사를 할 때부터 사찰부지의 일부를 시설용도에 맞게 시공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면 방과후 공부방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인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육교사교육원은 종단의 무관심으로 인해 존폐 위기까지 몰렸었다. 종단에서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과 연계해 정책적으로 방과후 공부방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아동복지포교와 교계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둘 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현장전문가들은 종단에서 ‘인적뱅크 제도’를 실시할 것도 제안한다. 현재 불교계에는 대불련이나 대불청 등 청년불자 단체도 여럿 있다.

종단은 ‘인적뱅크 제도’를 실시해 방과후 공부방에서 과외교사로 자원봉사활동 하길 원하는 청년불자와 단위 사찰을 연계할 수 있다.

종단 내 청년단체나 신행단체는 물론이고, 종립대학인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도 봉사활동점수와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 종단이 지원한다면, 각 개별 사찰마다 실무자에 대한 부담 없이 더욱 많은 공부방을 개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불교계 방과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하나로 묶고 실무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협의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나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외에도 각 시·도마다 개별적인 협의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어서 불교계 협의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방과후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공주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대원 사무국장은 “불교계 방과후 공부방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범불교적인 공부방협의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인천기독교계, 교회개방운동 전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시설로 활용

▌기독교계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교회공간을 개방해 청소년 공부방 및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회 공간 시설 사회복지활용방안 세미나’등을 열고 인천지역에 있는 3500여개 교회 중 10%(350개 교회) 이상의 교회를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시설로 즉각 개방할 수 있다며 ‘교회 개방운동’에 나섰다.

이 같은 기독교 교회 개방운동에 대해 인천시 여성복지보건부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 만수1동 산돌교회 등 인천시내 34개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운영비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53개 교회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받고 있다.

인천의 경우는 정부의 예산을 선점한 기독교계의 발 빠른 대처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계는 방과 후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불교계보다 20여년이 앞서 있다. 1984년 서울 하월곡동 ‘산돌 공부방’이 문을 연 뒤로, 기독교계 공부방은 방과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가난한 아이들에게 보금자리가 됐다.

타종교가 방과후 보육대책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치열하게 나서는 이유는 명백하다. 어린이 선교가 더 이상 주일학교만으로는 어렵게 되자,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통해 어린이 선교에 나서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불교계 방과후 공부방 실무자는 “면 단위까지 뻗어있는 지역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지역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가고 사찰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한 달에 200만원씩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돈의 상당부분이 기독교 선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들에게 알립니다

양춘지절을 맞아 원효성사의 고귀한 화쟁 사상의 선양과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는 원효종 전종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년간의 종단 분규로 인한 수행 환경의 파괴와 혼돈을 수습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초발심의 마음으로 출발 할 것을 지난 신년하례회에서 결의한지 불과 2달여 지난 시점에, 그간 종단 분규의 원인이었던 서울 공평동 소재 송무진측의 어처구니 없는 송사의 제기로 또다시 혼란의 사태로 종단을 몰고 가는 작태가 현시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무진은 입적한신 고 이법홍 대종사로부터 지난 2000년 10월 26일 채탈 도첩되어 따로이 무리를 규합하여 본종의 고귀한 명칭을 불법으로 도용하고, 총무원장 중심제 운운하면서 송사를 거듭하여 실패하자 본종의 전통인 “종정중심제” 종단운영의 방안을 마치 자신들이 중심인 양 주장하여 사회법에 또 다시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파렴치한 사태를 야기 하였습니다. 지난 3월15일자 와 3월22일자 현대불교신문 공고를 보면, 자신들 내부의 의견도 조율 되지 못한 채 3월15일자 공고를 무효라며, 급조된 임시종정 김대관의 취임사를 공고하는 등 대한불교원효종의 이름으로 부처님과 종조 원효성사의 거룩하신 법체를 다시 한 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원효종 전 종도들에게 송무진측(임시종정이라 주장하는 김대관)의 허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 서울중앙지법2005비합278“임시종정선임사건 결정”은 대한불교원효종 이름으로 송무진측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한불교원효종의 사무처의 주소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130 안양암”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143”으로 지정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헌상 주소지는 “부산시 동구 초량4동 843 금수사”로 지난 90년 1월8일 종헌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위 재판의 판결은 대한불교원효종을 사칭하는 송무진측이 **본종의 명칭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주소지로 자작 소송을 내것임**을 종도들에게 밝힙니다.

- 2006년 3월15일자 및 3월22일자 현대불교신문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월15일자에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502-2번지 대원사내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무소”를 주소지로 광고를 게제 하였다가, 자신들 내부에서도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지 일주일 뒤 3월22일자에는 광고면 우측상단에 “**현대불교569호(3월15일자)16면에 게재된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명의 공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임시 종정 취임에 즈음하여 종도 제위에게 취임사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본인의 주변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를 추측하여 게제 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스스로 무효임을 확인 하였습니다.또한 주소지를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143번지 광성빌딩 503”으로 게제 하여 **송무진측의 위계임이 명백히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끝없는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불교원효종의 위상과 입적하신 이법홍 대종사의 숭고한 유업을 훼손하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현혹 되지 말고, 그들이 짓고 있는 악업의 고리를 하루 속히 풀 수 있도록 원효종 종도들은 다함께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알 림

원효성사 입멸 1320주년 열반대제와 제 55회 순국선열 위령대제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전 종도들은 무루 참석 하시어 추모의 향을 사루기를 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50년 4월 27일(음 3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시 동구 초량동 843번지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2006년 4월 10일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최덕산**
총무원장 **김고산**

부산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전화 051)466-0977,466-3316

부산불교봉사연합

휠체어에 사랑 담아 잔치 한마당

영세지체장애인 100명에 전동 60대 수동 40대 전달 4월 15일 각종공연도 마련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사단법인 부산불교봉사연합(회장 서병흔)가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2002년 창립 당시부터 '영세지체장애인 휠체어 전달식'을 열고 있는 부산불교봉사연합은 장애인의 날을 앞둔 4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중증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100대를 보시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부산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휠체어를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당일 장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펼치게 될 공연 단체 섭외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식전 행사에는 광명선원 합창단의 찬불가, 민요공연에 이어 한울타리 예술단의 고전춤이 선보이며 2부 전동 및 수동 휠체어 기증 행사와 3부 위안 공연 행사가 이어진다.

위안 공연행사에는 만송예술단의 스포츠 춤, 부산지방경찰청 포돌이공연단 공연으로 오랜만에 외출한 장애인들의 흥을 돋우게 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여서 준비도 만만찮다.

부산불교봉사연합의 휠체어 기증은 올해로 3회째. 창립 당시부터 조직 내에 '영세지체장애인 휠체어 기증운동본부'를 따로 두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주는 것에 주력해왔다. 올해는 부산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전동 휠체어 60대와 수동 휠체어 40대를 지원한다.

부산불교봉사연합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없는 재가 중증 지체장애인이 부산에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기증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봉사연합의 봉사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불교아카데미 1, 2기 출신들을 주축으로 결성됐던 이 모임에는 공무원 불자들이 회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어 창립 당시 공무원들의 휴무일이었던 매월 넷째 토요일을 정기봉사활동일로 정했다. 지금은 45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월 봉사인원이 60명에 달하며 매주 목요일에는 재료비만을 받는 플라워 디자이너 무료 특강을 연다. (051)863-0505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시봉축위 결성법회 봉행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대회장으로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이 수석부대회장, 대호정사 주지 혜륜 스님이 상임부대회장을 맡았다.

부산시 봉축위원회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세계도시 부산! 부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4월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행사에 돌입한다. **천미희 기자**

"부처님 법으로 정론직필 펴기를"

부산불교연합회 '국제신문 후원의 밤' 성황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주식청약서를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 범어사 주지)는 4월 3일 독자 주권을 선언한 국제신문을 후원하기 위해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국제신문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정사, 법화종 총무원장 등 각 종단의 대표 스님들과 불국사 주지 종상 · 은해사 주지 법타 · 법주사 주지 도공 ·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조계종 본사 주지와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등 150여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또 허남식 부산시장, 권철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오거돈 前 해양수산부장관,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어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제신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국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의 신문이 되도록 불자들이 앞장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신문이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요구된다"며 후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은 "정론이 생명인 신문으로서 정론의 논리적 근거를 부처님의 법에서 찾아 나간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천미희 기자**

"발우공양 통해 음식 소중함 깨달아"

美 기자협회 · 여행작가단체 범어사서 템플스테이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설법전 대중방. 저녁공양 시간을 앞두고 조용한 가운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열린 문 사이로 큰 몸집이 여의치 안아 두 다리를 벌리고 앉은 노신사를 비롯해 제법 바른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앉은 30여명의 외국인이 발우공양 준비에 한창이다(사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투어에 참가한 미국 기자협회 회원과 여행 작가단체 회원들이 일정 중 범어사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것이다.

3월 31일 오후 5시 참가자들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습의를 거쳐 저녁 발우공양을 시작했다. 서툰 젓가락질이 부자연스러웠지만 스님을 따라 발우를 씻어낸 물을 마시고 정리를 마칠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던 진지함은 외국인이라기보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발우공양을 마친 한 참가자에게 발우 씻은 물을 마시는 것이 역겹지 않았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발우공양을 통해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절제, 평등사상을 배울 수 있었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금정산 너머로 해가 질 무렵 참가자들은 경내를 돌아보며 범어사의 역사, 종루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날 새벽예불, 탑돌이, 컵등 만들기, 참선 등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아 기자

사명대사 호국정신 일깨우는 산 교육장

밀양시, 4월 7일 사명대사기념관' 개관



사명대사 유적지 전경.

임진왜란 당시 호국불교의 깃발을 올린 사명대사 기념관이 밀양에 문을 열었다.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일대 5만여㎡의 부지에 조성된 사명대사유적지는 사명대사 기념관과 생가 건물을 건설한 유적지 조성으로 사명대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내고 있다.

밀양시는 4월 7일 오후 2시 사명대사 기념관 앞에서 개원식을 열고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 동안 진행돼 온 사명대사 유적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11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 사명대사 유적지 중 기념관에는 사명대사 약력과 영정,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영상실과 국보 제75호인 청동함은향완, 사명대사 가사 장삼 등 복제품 65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 평양성 탈환 디오라마, 정보검색실 등이 들어서 있으며 높이 3m, 폭 4m 규모의 충의문 1동, 관리사무실 1동,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함께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생가부지에는 대문채, 사당채, 삼문, 관리사 등이 각각 1동씩 복원되어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행랑 및 사당 내부에는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이 연출되어 있다.

이번 사명대사 기념관 개관으로 사명대사의 고향인 밀양의 생가, 승병을 훈련시켰던 제약산과 표충사 등 유적지와 더불어 나라의 중대사가 발생할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진 표충비각 등을 연결하는 관광코스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밀양시는 사명대사 기념관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일반에 되살리는 공간으로 또, 구국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밀양을 방문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이 필수적으로 들러야 할 명소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표충사, 영남루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 중이다.

천미희 기자

울산에 네팔문화원 개원

울산 언양에 네팔문화원(원장 일해)이 개원됐다.

한국 네팔 문화교유협회(회장 일해)는 4월 6일 언양 삼남농협 지하 공간에 네팔문화원을 마련하고 개원법회와 함께 네팔 현지 라마승이 제작한 만다라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개원식은 1부 개원행사, 2부 네팔문화 소개 DVD 상영, 티벳 라마 스님 전통춤, 린포체 오색진신사리 친견,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장 일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네팔 불교의 수행법인 밀교 수행을 한국불교에 알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만다라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네팔문화원은 향후 네팔 문화 소개와 석청, 수제 양탄자 등 네팔 특산물 전시, 히말라야 사진전 등을 열며 석청, 만다라 판매 수익금으로 네팔 아이들에게 신발과 옷, 학용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052)262-0835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
종범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불교를 알기 쉽게

설법에 있어 제일 가는 부처의 제자는 부루나존자이다.
종범 큰스님은 바로 한국의 부루나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고승이다.
한국불교에서 불교의 통시적 해설을 쉽고도 이해하기 편하게 설파한 종범 큰스님의 〈불교를 알기 쉽게〉는 불교입문서로써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반부에는 원시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정리하였으며, 후반부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커다란 맥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어질 때, 이 책은 길을 찾는 사람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테이프 12개(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 포함) ■값 78,000원 ■낱개 별도판매



문을 나서지 않아도 풀밭이니라
경허선사로부터 이어지는 근대 선 불교, 그 전범계를 이어받은 청봉선사의 선과 수행을 명쾌하게 집약한 법어집.
■청봉스님 | 값 10,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고승 청담스님의 향기와 소리를 담아 현대인의 메마른 가슴에 법음의 단비를 전해준다.
■청담 큰스님 | 값 9,000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묵담스님은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하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중도의 정신'이라고 설하신다.
■묵담 큰스님 / 값 7,500원

현대고승법어총서 개정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봉 큰스님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 ‖ 경산 큰스님 항상 마음은 낙낙하게
구산 큰스님 머뭄며 흘러가며 ‖ 혜암 큰스님 바람 끝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
해안 큰스님 마음이 곧 부처 ‖ 청화 큰스님 순간에서 영혼으로
■2006년 7월 출간 예정

www.milalbook.com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8-1 성지빌딩 3층 Tel : 02) 529 0140~5 Fax : 02) 579 2312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일방적 결정

임시 등산로 대장경판전 등 위협

해인사, 극락골 구간 16일부터 폐쇄 환경부에 전달

가야산 국립공원 등산로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등산로 변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 판전(국보52호)과 마애불입상(보물 222호) 등의 문화재 보호에 큰 위협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의 오염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해인사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가야산 국립공원 등산로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2003년부터 이용하고 있는 임시등산로인 극락골 구간을 4월 16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야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적용한 자연휴식년제의 변경과 기존 토신골 등산로의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최근 전달했다.

해인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가야산국립공원 중 해인사 소유인 가야산 등산로 토신골 구간(마애불갈림길에서 토신골 갈림길까지의 1.9Km)을 해인사와 협의 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함에 따라 해인사와 가까운 극락골 구간(마애불갈림길에서 마애불을 경유해 토신골 갈림길까지)이 임시등산로로 이용되면서 문화재 훼손 및 상수원

무속인 출입증가 화재위험
등산객으로 인해 상수 오염
휴식년제 변경 강력히 요청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인사는 "최근 해인사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등산로 자연휴식년제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제의 극락골 구간 등산로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입상을 경유하는 코스로 등산객들이 소로를 통해 아무 제약 없이 팔만대장경 판전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팔만대장경 판전과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 극락골 구간이 주 등산로가 되면서 무속인들의 출입과 불법적인 굿이 자주 행해져 화재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극락골 위 계곡은 해인사 상주 대중 500여 명과 신도들이 사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등산객들의 출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인사는 "극락골 구간 등산로는 문화재 보호와 상수원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등산로보다 약 20여분정도 둘러가도록 되어 있어 등산객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처사"라며 "2003년에 지정된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완전 폐지하고 토신골 구간의 등산로를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법회도 보고 고민도 해결"

동화사, 매월 1일 의료·법률·세무 상담봉사



"양력 초하루 날엔 동화사에서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의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세요."

4월 1일 동화사에 특별한 일이 생겼다. 이른 아침부터 봉서루 1층 신도회의실이 한방진료소로 둔갑하고 각종 의료장비가 실린 진료버스도 도착해 치과가 '개원' 됐다(사진). 세무 상담소와 법률상담소도 경내에 문을 열었다. 동화사 신도회(회장 허석구)가 의료 세무 법률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발족해 이날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신행을 같이 하는 동화사 신도로서 작은 봉사가 동화사 신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마음을 모았다"는 전문인 봉사단 4인방은 손한의원 손창수 원장, 킴스치과 김석순 대표원장, 최창득 변호사, 나채일 세무사다.

최창득 변호사는 동화사 법률고문으로, 손창수, 김석순 원장, 나채일 세무사는 모두 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바쁜 일정 속에 늘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월 1일 열리는 동화사 정기법회 때만큼은 법회에 참석해 법문도 듣고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시간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동화사 신도회 허석구 회장은 "신도들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제18회 충담재 경주서 개최

신라 경덕왕 때의 고승이며 향가 '안민가'가 '찬기파랑가'로 유명한 충담스님을 기리는 차 문화 축제인 '충담재'가 4월 2일 첨성대 앞 문화의 거리에서 70여 단체와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울산불교교육원 석정회의 육법공양과 동국대석림회 종사영반을 시작으로 추모제와, 헌무, 헌화, 다례시연 등으로 이어졌고, 건달바풍물단의 길놀이, 국악실내악단 가람의 국악 공연, 서라벌리드앙상블의 관악공연과 추모제, 일장스님의 禪서화전,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배지선 기자

대구 정토회관 이전 개원



불교수행공동체 대구정토회(대표 전병득)가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옛 공덕원 건물로 이전하고 4월 3일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992년 10여 명의 회원들에 의해 작은 사무실로 출발한 정토회가 개원 14년 만에 자체회관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정토회는 회관개원을 기념해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특강'을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설했다. (053) 744-3025 배지선 기자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서 경판을 머리에 이고 조선 초 팔만대장경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옮기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대구경북 봉축행사 준비 분주

대구·김천 15일, 경주 21일, 영천 22일 봉축탑 점등
선덕여왕 숭모제 찬불가 경연 등 볼거리 풍성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 간 이어지는 봉축기간을 맞아 대구경북 지역 불교계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기리는 다채로운 봉축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봉축위는 봉축탑 점등식을 4월 15일 오후 4시 국채보상공원에서 거행하고, 시에는 대구 동구청 봉축등 점등식이, 26일에는 서부경찰서와 서구청의 봉축탑 점등식이 있고, 4월 30일에는 지하철반월당 역에서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5월 4일 오후 7시에는 천태종 대성사가 경내에서 봉축전야제를 개최하고 부처님 오신날인 5월 5일 오전 12시에는 정법회거사림의 자비광명기원타종식이 경상감영공원에서 거행된다.

김천 직지사에서는 15일 오후 3시부터 EBS라디오 한영애의 문화홈페이지 공개방송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김천역 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거행된다. 또, 29일에는 김천사암연합회주최로 연등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주 불국사도 21일 저녁 7시 경주역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23일에는 경내에서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영천 은해사는 4월 22일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암도 스님을 모시고 봉축탑 점등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고운사는 22일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개산 이후 처음으로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정장식 前 포항시장 공식사과

"포항시장 재임 시 본인의 종교편향적 언행으로 인해 지난 2004년 12월 15일 범불교도대회를 치르는 고통을 안아야 했던 불교계에 늦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4월 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임기간 종교 편향적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장식 前 포항 시장은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 전 포항시장 정장식'이라고 밝힌 사과말씀을 통해 "공인으로서 타 종교인의 마음에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가슴에 상처가 남아있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前시장의 이날 사과 발표를 두고 지역 종교계에서는 불교인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더 이상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언행과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대구 교사불자련 정기총회

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는 4월 1일 능인 중·고등학교 반야전에서 총회를 열고 능인고 김태욱 교장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불자교사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내년 1월 팔공산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및 자연애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금년의 주요사업으로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금강경 강독법회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치매노인전문요양원인 여래원에서 갖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배지선 기자

알림 본지 572호 6면 '해인율원…전계식' 기사의 사진에서 영명 스님이 누락되었기에 사과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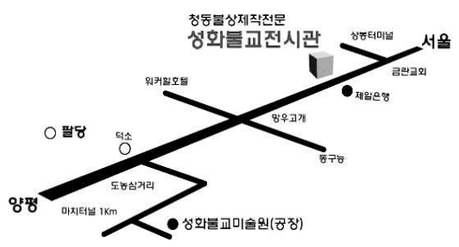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

제46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봉행됐다.

전국에서 1000여명의 대중이 운집해 봉행된 정대불사는 6일 오후 4시 비석거리에서 영가를 모시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해인율원 율주 종진, 율원장 무관, 해인강원 강주 종묵 스님이 법사로 나서는 해인삼매법문과 영가천도대령, 관욕, 팔만대장경 정대요잡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7일 오전 8시 대적광전 앞에 괘불을 봉안한 후 구광루 앞에서 펼쳐진 팔만대장경 정대요잡은 스님과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조선 초 팔만대장경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옮기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성전 스님의 2006 산사의 풍경소리 | 나의 행자시절
특집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어 2006년 다시 시작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불자들의 신행개혁운동인 "청정운동"을 조명한다.
왜 다시 청정(淸淨)운동인가?
제1차 청정운동의 성과와 불교운동의 방향
2006 청정운동 이렇게 실천하자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3
한국불교는 미국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미주 전법(傳法) 40년이 지난 전환기의 한국불교가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현지 취재기
1. 미국 동·서부지역 주요 한국사찰 탐방
2. 미국식에 맞는 한국불교·미국 내 한국사찰 명부
종범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 6. 선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
지상중계 | 미얀마 파욱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흡관 수행법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열린불교, 열린경영 | ❷ 한마음선원 리포트
군법사 포교기 | 강원도 양구 노도부대 의선사, 백태현 법사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어느 노부부의 들꽃사랑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문화기획 | 소설가 김종록이 쓰는 '바이칼에서 만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한국자수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미국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큰맘 먹고 종교를 버려보자"
해외통신 | 옥스퍼드에서 띄우는 편지
영국의 작은박물관, 옥스퍼드 두 박물관에서 문화의 힘을 느끼다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나른한 봄날을 위한 산야초 별식
건강에세이 |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유법
억불시대 수행열전 | 조선시대 면벽 좌선으로 어둠을 밝힌 이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명색(名色), 본질이면서 껍데기인 그 오묘함에 대하여
고전읽기의 즐거움 | 외롭고 한가한 수행자, 법주사 고한(孤閑) 대사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❷ | 서울의 옛다리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자원봉사와 수행은 '하나'

'보현원각봉사단' 출범…교육 · 훈련 통해 전문화

사찰 내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가 조직,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일주문 밖으로 나서게 됐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4월 7일 대웅전에서 '보현원각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천명했다.

이날 초대 봉사단장으로 추대된 무진행 단장은 인사말에서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이다"며 "사찰 내에서 일회성에 머무르던 자원봉사를 이웃들에게 확대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지 도제 스님도 격려사에서 "원각사 창건 100년 동안 가람의 변화는 많았으나 자비실천행은 미진했다"며 "신심과 원력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봉사단 발대식에는 70여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보현 등 7개 반으로 나누어 배정됐다.

향후 보현원각봉사단은 사찰행사는 물론 복지단체 및 불우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목욕, 청소, 도시락배달 등의 자비행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해 외국인노동자, 소아암 투병지원사업을 위한 모금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불교의 생활화와 불교자원봉사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현원각봉사단'이 광주 원각사에서 4월7일 발대식을 가졌다.

보현원각봉사단은 봉사단원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 강사 초빙과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실시하며, 정기법회 사찰순례로 신심과 단합도 도모할 예정이다.

원각사 이진중 사무장은 "그동안 사찰 내에서 펼쳐지던 다양한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대사회활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전문성 있는 불교사회봉사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현봉사단 참가자들은 발대식에 이어 108참회로 자비실천행 결의를 다지고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로부터 '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실천' '대만 자제공덕회 활동' 등에 관한 강연을 청취했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심향사, 나주발전 연등음악제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4월 22일 경내에서 나주발전을 위한 연등음악회를 개최한다.

나주지역 기관장과 시민초청으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전통등 전시회, 선요가 선무도 시연과 불자연예인 초청 공연이 펼쳐진다.

심향사는 불교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산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신도들이 3개월 동안 제작한 한지 팔모등 500여개와 물고기, 법고 등 전통등을 선보인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서산대사 탄신 486주년 기념 대흥사, 보살계 · 글쓰기 대회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지난 4월 7일 서산대사 탄신 486주년을 맞아 '탄신대재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서산대사 영정이 봉안된 표충사(表忠祠)에서 열린 서산대사 탄신대재에는 천운(대흥사 조실), 여연 스님(일지암 주지) 등 각 사암 스님과 정진석 해남군의장, 탤런트 장헌원, 김영란씨, 불자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어느때보다 서산대사의 나라사랑, 인간사랑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서산대사와 승군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는 물론 이 땅에 불교가 성성하게 살아있게 되었다"며 "큰 스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천으로 빛내자"고 강조했다.

탄신대재에 앞서 대웅전에서 200여명의 불자가 천운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한편 서산대사 탄신대재를 기념해 대흥사 일원에서 열린 제12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에는 해남군 관내 30여개 초,중,고교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산대사의 호국정신 계승과 향토사랑 고취를 위해 펼쳐진 글쓰기 대회 당선작은 부처님오신날 발표,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광주 BBS, 개국 11주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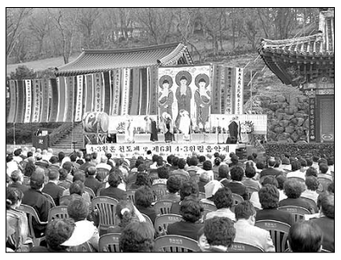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1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0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희망의 방송, 청취자와 함께'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축하공연에는 가수 소명, 진국이, 주권기 등 불자가수들이 출연한다.

2부 애청자 노래자랑에는 예심을 통해 선발된 10개팀이 나와 기량을 선보인다.

이준엽 기자

제주 4 · 3 희생자 추모 관음사, 천도 · 음악제 개최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4월 3일 '4 · 3 원혼 천도재와 위령음악제'를 개최하고 희생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기관장, 유가족,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도민 화합을 발원했다.

천도재를 주관한 주지 용주 스님은 "관음사는 4 · 3당시 유격대와 토벌진압군 사이 치열한 격전지였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민의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고자 해마다 천도재와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부 천도재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명인 동희 스님과 전수자들은 제주 164곳의 4 · 3 희생 영혼 위패가 모셔진 영단에서 나비춤, 천수바라, 법고 등 천도의식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도갑사 대웅전 중창 기공식

도갑사 대웅전이 400년만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다.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3월 30일 대흥사 조실 천운,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과 금산사 원행, 송광사 영조, 화엄사 종삼, 월정사 정념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박준영 전남지사, 유선호 의원 등 지역기관장,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사진).

주지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웅전에는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반출된 관음32응신도를 모사 복원해 봉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 75평 중층 건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생활 속 불교문화

'심청전'의 원류 곡성 관음사

지극한 효심에 눈먼 아비 눈뜨고

'심청전' 배경설화 간직한 백제 초기 사찰

골짜기가 많아 고을 이름이 된 전남 곡성(谷城)은 '심청 고을'로 불리기도 한다. 이 지역을 지나다보면 곳곳에서 '효녀 심청'을 만나게 된다.

공원이름은 물론 상호와 지역특산물에 이르기까지 '효녀 심청'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고장 옥과에 자리한 관음사 연기설화가 고대소설 심청전의 원류이기 때문이다.

조선 영조 5년(1729), 백매자(白梅子) 선사가 찬술한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기설화가 서술되어 있다.

요약하면 이러하다.

"장님 원량(元良)은 홍법사(弘法寺) 금강불사를 위해 시주를 간청하는 성공스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홍장(洪莊)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주한다.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화주승을 따르던 홍장은 황후를 구하러 백제에 온 중국사신을 만나 황후가 된다. 장님 아버지를 잊지 못하던 홍장은 자신이 원불로 모시던 금동관음보살상을 고국으로 보냈고, 옥과 처녀 성덕(聖德)이 벌교 바닷가에서 모셔와 관음사를 창건한다" -송광사 목판본-


연기설화 '심청전'의 고증 자료인 관음사 원통전에 모셔진 관음보살상(국보 214호)

이 설화는 백매자 선사가 "젊은 시절 관음사에서 우한자라는 노스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할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음사 사적기는 백제가 불교를 공인했던 때(384년)보다 80여년이 앞서 백제 분서왕 (301년)때 창건됐다고 한다. 백제 최초의 사찰이 되는 것이다. 관음사 연기설화는 1930년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소개되면서 심청전의 원형, 배경설화로 국문학계에서 공인받고 있다.

17세기 말, 판소리가 정형화 되던 때에 백매자 선사의 관음사 사적기도 판각되었다.

이처럼 관음사에 전하는 효녀 홍장 이야기는 호남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판소리 심청가를 이루게 된다. 특히 곡성과 이웃한 남원의 광한루가 판소리 춘향가의 무대인 것을 보면 지리산은 한국판소리 2대 명작이 탄생한 판소리 성지이기도 하다.

관음사는 곡성 검장산과 성덕산 사이 좁은 계곡을 타고 10리가량 거슬러 올라간다. 계곡 안에 자리한 사하촌도 '성덕마을'로 불리는데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성덕보살에서 유래한다.

1700년 전, 홍장이 백제에 보낸 금동관음보살상(국보 214호)은 나라의 보물이 되어 관음사 원통전(국보 273)에 자리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전각과 보살상이 불타고 말았다. 기이하게도 잿더미 속에서 관음보살상 얼굴부위가 온전히 남아 있어 옛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관음사 주지 지인 스님은 "관음사는 내륙에 자리한 관음도량으로 유일하게 고승대덕이 아닌 재가자가 창건한 사찰이다"며 "가난한 장님 원량의 선업공덕과 홍장의 지극한 효심이 널리 퍼져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곡성군도 2001년부터 매년 10월경 심청축제를 열고 효녀심청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

4교 금 5시54분

이재복 스님 추모사업 바빠진다

기념사업회, 법문 · 문학전집 발간 · 기념비 건립키로

태고종 근현대사에서 산중불교를 도심불교로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한 용봉당 이재복 대종사의 추모기념사업이 활발히 전개된다.

용봉 스님은 태고종 중앙종회의장과 동방불교대학학장, 한국문인회충남지부장, 대전 보문중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 포교외에도 문학과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특히 용봉 스님은 1960년 대전 중구 선화동에 대전불교연수원을 건립, 총 1천여회에 걸쳐 매주 불교강좌를 열어 당시로서는 불교의 새모습을 도심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산파역할을 했다.

용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대전불교연수원을 거치지 않은 대전 · 충남 불교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스님은 도심 포교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3월 조직을 재정비한 용봉당대종사 추모기념사업회(회장 송하섭 前 단국대 부총장)는 올해부터 2년 계획으로 <용봉당대종사 법어 및 법문집> 발간에 들어갔다. 용봉 스님은 생전에 '자료가 없으면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각종 행사, 법회, 강연 등에 나설 때는 꼭 법문 자료를 준비했다.

1991년 열반전까지 약 3000여회에 걸쳐 법문했던 내용중 1500회 분량을 기념사업회가 입수해 3월부터 발간 작업에 들어갔다.

시인으로서 한국문인회를 이끄는 문인이기도 했던 용봉 스님은 생전에 300여편의 시(詩)를 남기는 등 문학 활동에도 전념했다.

기념사업회원이자 스님의 애제자였던 강태근 배재대 교수(대전문화원장)가 문집간행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봉 스님의 시와 산문을 가려뽑아 1500페이지 2~3권 분량으로 문학전집을 만들 계획이다.

스님의 발자취를 살피기 위해 내년 5월에는 대전 보문산에 용봉문학시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용봉 스님이 평생 지은 시 중에서 108수를 엄선해 문도회장인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법 스님의 서체로 '용봉유고시서화전'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용봉당 이재복 스님

1960년 보문중고등학교 건립을 주도했고 40여년간 교장으로 재직했던 용봉 스님의 교육 불사를 기리는 사업도 펼쳐진다.

스님의 제자들은 연내에 대전 보문고 교정에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공덕비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용봉문도회는 4월 6일 대전불교연수원 큰법당에서 용봉당 이재복 대종사 열반 15주기 추모법회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국내 사무감사 마쳐

해외심인당 4월25 · 26일 실시

진각종 사감원(원장 혜명 정사)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7개 교구청별 전국 심인당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3월 30일 통리원과 교육원 사무감사 후 가진 감평자리에서 사감원장 혜명 정사는 "이번 감사는 종단의 행정과 회계 등 단순한 감사 기능뿐만 아니라 종책과 교법에 대한 분야까지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교도들의 귀중한 희사금을 토대로 종단이 운영되어 지는 만큼 부처님 정재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사무감사에 이어 미국 LA 불광심인당, 워싱턴 법광심인당 등 해외심인당의 사무감사는 4월 25 · 26일 양일 간 열리는 춘기스승강공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김주일 기자

명동성당으로 간 '영산재'

평화방송 초청, 4월19일 꼬스트홀서

부처님 오신날(5월5일)을 앞두고 부처님이 성당을 방문한다.

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는 4월 19일 명동성당 꼬스트홀(문화관)에서 '영산재 의식'을 시연한다.

이번 공연은 평화방송의 '최호영 신부와 함께 하는 교회음악콘서트' 프로그램 공개방송에 영산재 보존회 스님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명동성당에서 불교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날 콘서트에는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 8명이 참석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靈山齋)'를 선보인다.

영산재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깨닫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웅장한 불교 의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연 후에는 진행자인 최호영 신부(가톨릭대 음악과 교수)가 기능 보유자인 구해 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불교와 가톨릭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종교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이날 공연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무료다. 녹화된 공연은 평화방송에서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4회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종조탄신 1200주년 조동종 기념 다례재



조동종은 4월 5일 서울 청련사에서 종조탄생 1200주년 기념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지명 종정스님을 비롯해 부종정 제공 스님, 승정원장 춘담 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본원종, 세계평화기원 방생 · 수륙 고혼 천도법회



본원종은 3월 31일 충주댐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통일, 국태민안 세계평화기원 방생 및 수륙고혼 천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대화, 종회의장 대운, 염불원장 대황 스님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김주일 기자

불자들 정성으로 군법당 우뚝

장병들의 신심도량 일승사 · 교훈사 완공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등 종단과 불자들의 후원으로 군법당이 불사를 마치고 장병들의 신앙공간으로 거듭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군단 일승사(주지법사 백승학)는 4월 2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과 임충빈 군단장, 전창응 군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군포교의 거점 법당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일승사는 비가 새는 등 보수가 필요해 지난해 9월부터 군예산과 지역 사찰 및 장병 가족 등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중창불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이 단청불사 비용을 전액 보시해 이날 회향법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일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불심과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중창불사를 통해 장병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 일승사가 경기도 지역의 군포교를 이끌어갈 핵심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55사단 신병교육대대 호국 도량 교훈사도 4월 8일 낙성법회를 갖고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호국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호국 도량 교훈사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이 증명으로 주지 두백 스님과 안국선원 수불 스님, 박희경, 손연주, 강윤자, 이금열, 정하련 보살 등 사부대중의 보시로 1여년 동안의 공사를 걸쳐 이번에 완공됐다.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 4월2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1군단 일승사 전경.

이날 낙성법회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용인불교사암연합회 성효 스님,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 스님, 서울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55사단장 김태교 장군, 이종인, 혜원 군법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태교 사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래의 주역이 될 신병들이 열심해 배우고 닦아서 장차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교훈사로 법당을 명명했다"며 "우리 군과 55사단 장병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일깨우는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낙성 법회에서 "신병들이 모인 이곳에서의 법당이란 참으로 소중하고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복과 지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법당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설법했다. 글 · 사진=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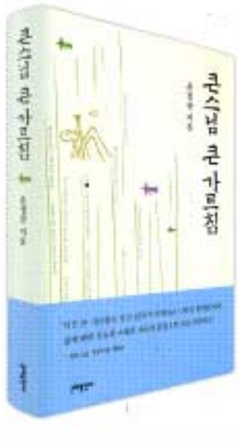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경허 스님에서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큰스님 열아홉 분의 감동적인 일화!

큰스님 큰 가르침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윤청광 지음



이런 큰 가르침이 널리 읽혀 무기력하고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지혜가 새롭게 움텄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의 글을 쓴다.
— 법정 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선방의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가르침!
경허 · 한암 · 만공 · 한영 · 효봉 · 고암 · 청담 · 춘성 · 경봉 · 동산 · 만암 · 고봉 · 구산 · 성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근대의 고승들의 업적과 인격을 생생한 실화를 통해 한눈에 보여주는 책!

양장 | 296쪽 | 값 10,000원

"법정 스님이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는 책입니다.
시간이 그토록 늦은 줄도 모르고 감명 깊게 읽으셨다면서 '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원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2006년 2월호

할아버지의 기도



침대맡에 두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
레이철 레덴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치유하는 탁월한 언급술사다. 이 책에서 그녀가 들려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진솔한 이야기들은 진정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 고도원

레이철 나으미 레덴 지음 | 류하욱 옮김 | 328쪽 | 값 10,000원

E-mail : info@moonye.com TEL : 393-5681 FAX : 393-5685 문예출판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불안한 마음 잘 읽어주면 빨리 나아요

병원 포교 24시

지홍 스님 동행기

서울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오전 11시 '쾌유발원'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평균 50회 넘게 상담 이어져
불교행사 주관, 임종봉사 등 쉴틈 없는 '슈퍼우먼'
일일이 환자들 만나 아픈 부위 어루만지며 쾌유 기원



환자 보호자와 상담 중인 지홍 스님.



봉축행사 준비에 바쁜 스님과 환자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유마거사의 말처럼, 병원 법당이 그랬다. 병마와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환자의 아픔은 그대로 부처의 그것이었다. 그래서일까? 비구니스님의 손길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과 같았다. 자상함이 병원 곳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앞둔 4월 6일과 7일, 15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포교활동을 벌여온 지홍 스님(서울 정향사 주지)의 하루를 동행했다.

"기자님! 전화 한 통화만 더 하고요."

벌써 10분 째다. 말문도 못 열고, 머쓱한 시선만 허공에 뿌렸다. 통화내용에 귀를 가져다댔다.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며칠 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는 젊은 목소리. 스님은 듣고만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다급함'과 '기쁨'이 스님을 기다렸다. 간 종양을 앓는 남편의 절망을 끌어안은 아내의 절규, 부처님 가피력으로 간암을 이겨내 퇴원한다는 중년의 남자. 법당은 역설적이게도 희비가 순식간에 교차됐다. 중생의 삶이 이런 것일까? 오전 11시 '쾌유 발원 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간절함의 발길들은 끊이질 않았다.

"병원은 생생한 수행과 포교의 현장이죠. 병고와 죽음의 괴로움을 앓는 중생의 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기 때문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천 개인 것처럼 제 손도 천 개 가 됐으면 좋겠어요."

법당의 일과는 빠듯하게 돌아갔다. 절집일을 부리나케 마치고 오전 10시 출근(?)을 하면, 하루 평균 50차례가 넘게 환자상담이 줄줄이 이어진다. 잠시 숨을 돌리고 곧장 수술 날짜가 잡힌 불자 환자들의 병실을 방문한다. 요즘은 봉축 행사 준비까지 겹쳐 틈틈이 연등 만드는 일에도 바쁜 손을 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스님에게 붙은 별명이 '슈퍼우먼'. 임종봉사, 뇌사판정위원회 활동 등 잠시라도 쉴 틈이 없다. 밤에 자다가도 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뛰어나간다.

빨갛게 낯빛이 달아오를 즈음, 환자 보호자가 법당에 들어섰다. 축 쳐진 어깨에 무겁게 근심이 내려앉은 보호자에게 스님이 한마디 던졌다.

"보살님, 세상살이에 근심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요. 그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왜 부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불안한 남편의 마음 한 구석을 읽어주세요. 남을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세요."

30분이 지났을까? 스님은 시계를 연신 쳐다봤다. 눈치가 병실방문 갈 시간이듯 했다. 스님과 함께 15년간 자원 봉사활동을 한 송법일화(61 · 서울 신천동)씨가 <한글 법요집>과 관세음보살이 새겨진 축원카드를 주섬주섬 챙겼다. 17층 435호 내과병동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환자 상담을 마친 스님은 곧바로 장삼 가사를 챙기고, 총총 걸음으로 병실로 향했다. 스님이 병실에 들어서자 환자들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번졌다. 환자들과 일일이 손잡고 이야기를 나눈 스님은 담석 수술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황길자(46 · 원주시 수암리)씨의 복부를 쓰다듬었다.

"수술 한다며? 기도해 줄께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기도가 이어지자 황씨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합장을 했다. 이내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에 움츠렸던 마음과 몸이 편안해졌다. 병실에서 우연히 법당소식지를 보면서 알게 된 스님과의 인연. 너무도 고마워 스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환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법당으로 돌아온 스님. "매일 반복되는 이 일들이 힘드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미소만 지었다. 중생들이 힘들 때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수행자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표정이었다. 잠시후, 스님의 손길은 환자들과 주고받는 신행상담 노트에 답글을 남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바쁜 일과로 미처 만나지 못한 환자들이 글로 남긴 아픔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였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홍 스님이 수술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황길자씨를 달래주고 있다.



혜광 스님



일장 스님



혜도 스님



무관 스님



무구 스님



중제 스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전국 병원법당서 포교하는 비구니스님들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혜광(서울 참나선원장) · 무관 스님. 사제지간인 이들 스님은 15년째 매일 500개 병상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한다. 스승은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제자는 쾌유 기원 기도를 올린다. 특히 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전경과 의경인 점을 감안, 신세대 유행음악 CD 등을 입원한 전 · 의경들 병상 머리맡에 놓아주곤 한다. 전 · 의경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책임질 '씨앗'이라는 것이 이들 스님들의 생각 때문이다.

전남대 화순병원 지도법사 일장 스님(화순 유마사 주지)도 동국대 경주 병원 등에서 10년 넘게 병원 포교를 해오고 있다. 2003년 전남대 화순병원 개원과 함께 활동 중인 스님은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아예 병원 근처로 이사 온 '자취생 스님'도 있다. 서울보훈병원 지문 스님과 중앙대 병원 지현 스님. 따로 머무는 절이 없다. 병원 법당이 집이자 수행처인 셈. 지문 스님은 새벽 4시면 출근(?)하고, 늦은 저녁에야 강동구 등촌동 자취방으로 돌아온다. 이러기를 13년째다. 스님은 간병인불자회인 '보은회'도 만들어 환자들과 함께 해왔다. 지현 스님도 마찬가지. 지난해 병원 측에 반대에도 어렵게 법당 문을 열고, 환자들의 불심 키워주기에 병원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처럼 병원 포교에 진력 중인 스님들의 역량은 자원봉사조직 운영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서울 경희의료원 혜도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6년 전 불교호스피스 '불교비아라'를 결성해 염불공양과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불교비아라가 90% 이상을 소화한다.

동국대 경주 · 경주한방 · 포항병원 3곳의 종립병원을 맡고 있는 무구 스님(동대 경주병원 약사전 주지)도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다. 지난 2003년 동국학원 재단에서 파견 나온 스님은 특히 지역 사찰의 신도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병원 봉사는 재가불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신행'이라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서울대학병원 은진 스님(청량리 청량사)은 18년 넘게 병원에서 살다보니 의료지식이 웬만한 의사 수준 뺨친다.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 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환자들의 마음이 편안해 지도록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북한사찰 · 문화재 한눈에 본다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 국보 유적 39곳 사찰 정보 제공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상.


'북한의 옛사찰' 홈페이지.


정릉사 보광전.


보현사 8각 13층석탑.

북한에는 국보급 전통사찰이 몇 곳이며 어떤 성보문화재가 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이트가 있어 화제다.

북한문화재자료관(http://north.nricp.go.kr)은 최근 '북한의 옛 사찰' 코너를 개설하고 북한이 국보로 지정한 평양시 광법사, 법운암, 황해도 성불사 등 39개 사찰의 전각과 성보문화재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2004년 일반인에게 북한 문화유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설한 북한문화재자료관은 1985년부터 꾸준히 축적해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한 사이트로 그동안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옛 사찰' 코너는 한반도에 불교문화를 전한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을 담은 나레이션과 함께 북한 사찰 전반을 소개 화면으로 설정해 사이트 내 별도 페이지로 제작됐다. 현재 9개 시도소재 39개소 사찰정보가 메인화면에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다.

지역과 사찰명을 클릭하면 가람배치도를 통한 전경은 물론 전각의 구조와 도면, 성보문화재 등 3천여종의 이미지와 함께 상세한 텍스트 정보가 곁들여져 있다.

특히 사찰 연혁과 관련 인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찰의 위치를 지도로 알려주는 등 풍부한 콘텐츠를 담고 있고 페이지 구성도 플래쉬와 2D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찰의 경내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북한의 사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문화재자료관은 북한이 국보 유적의 목록과 관련 정보 및 영상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 국보 유적은 1호 평양성을 포함해 건축물 110건, 고분, 무덤 24건, 석조물 40건, 범종 등 기타 13건 등 총 187건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전각 성보문화재 등 3천여 이미지 서비스
플래쉬 2D 기술 활용 이해하는데 큰 도움

북한문화재자료관은 북한의 국보 유적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물론 남한의 문화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어 남북한 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향후 북한 현지의 사찰 및 관련 유적 등을 직접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문화재자료관에서는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코너도 '북한의 옛 사찰' 코너와 함께 오픈해 인기를 끌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5

마이크 장착 테이프 삽입 확인

카메라 기본 작동법

촬영을 위한 점검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 사용법을 알아보자. 카메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본 연재에서는 SONY사의 PD-150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수동기능이 있어 작동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 기종을 이해하면 다른 기종은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촬영을 위해서는 전원을 켜야 한다. 캠코더 뒤부분에 빨간색 녹화버튼이 있는 초록색 버튼이 중간에 와 있으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캠코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버튼이 정 중앙에 와있어야 밧데리 소모가 없다. 다만 밧데리는 전원을 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초록색 버튼을 위로 올리면 촬영한 테이프를 캠코더에서 직접 볼수 있는 VCR 기능이 작동한다. VCR 기능이 작동할 때는 캠코더 상단에는 빨리감기, 되감기, 플레이를 할수 있는 버튼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실행된다.

초록색 버튼을 아래로 돌리면 카메라 기능이 작동한다. 주의할 것은 버튼이 아래로 두 번 돌아가는데 한번만 돌려야 이 기능이 작동한다. 두 번 돌리면 정지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실행된다. 이때는 반드시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어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메모리카드는 SONY사에서 만든 메모리스틱만 사용이 가능하다.

초록색 버튼이 CAMERA를 가리키고 있다면 LCD판에 영상이 보이게 된다. 물론 카메라 렌즈의 뚜껑을 열지 않았다면 검은색 영상만 화면에 뜨게 된다. 이때 초록색 버튼의 중간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된다.

만약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면 안전한 촬영을 위해 전원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전원은 캠코더 뒤편에 DC IN 짝에 AC 어댑터를 연결하면 된다.

촬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PD-150에 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디오가 수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잡음이 많아 편집을 할때 애를 먹기에 꼭 설치해야 한다. 제공된 마이크폰을 캠코더 상단부위에 넣고 선은 INPUT1의 커넥터에 연결하면 된다.

또하나는 촬영을 할 테이프를 넣는 일이다. 우선 캠코더 우측에 붙어 있는 EJECT 스위치에 있는 작은 파란색 버튼을 누른채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테이프를 넣을 수 있게 윈도우가 열린다. 6m 테이프를 넣은 다음 윈도우를 닫고 윈도우 중간부분에 있는 PUSH 버튼을 함께 누르면 된다. 만약 이전에 촬영한 테이프가 있다면 테이프에 반드시 촬영일자, 장소,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기에 일일이 테이프를 틀어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테이프 하단에 있는 쓰기 방지 탭을 설정해야만 편집할 때 영상을 덮어쓰는 등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김두식 기자

"인터넷으로 불교공부해요"


부다피아 HBMC 강의 코너.


불교사이버대학 홈페이지.

부다피아, 불교사이버대학, 염화실 등 강의 사이트 인기

불교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불교 e러닝 사이트들이 최근 불자들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불교포탈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는 HBMC 강의 코너에서 불교강의를 통해 불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전 해인사 강원 강주 수진 스님(부산 해인정사 주지)의 금강경 강의, 부처님의 10대제자와 행복한 삶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2003년 3월 오픈한 불교사이버대학(이사장 장세우 · http://www.buddhaschool.or.kr)은 대원불교대학의 오프라인 강의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입문과정에서부터 대학과정, 대학원과정으로 나누어져 운영된다.

입문과정은 불교 기본 교육을 받고자하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불교교리의 기초적 이해', '사찰문화와 불자의례' 등의 기초 과목이 개설돼 있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중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과정은 2년제로 불교학 전반에 걸친 과목이,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나 그 이상의 불교 지식을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과정은 경전강독 등을 위주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카페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은 최고의 강백중 한 사람인 유명한 무비 스님의 강의를 영상과 오디오로 볼수 있다. 특히 매일 저녁 7시 30분 신심명 강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채팅으로 궁금한 것을 직접 질문할 수도 있어 동참자들이 늘고 있다.

강의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지장경, 천수경 등 일반 불자들에게 익숙한 경전뿐만 아니라 임제록, 육조단경, 증도가 등 수준높은 선학 관련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아루이스톤 108 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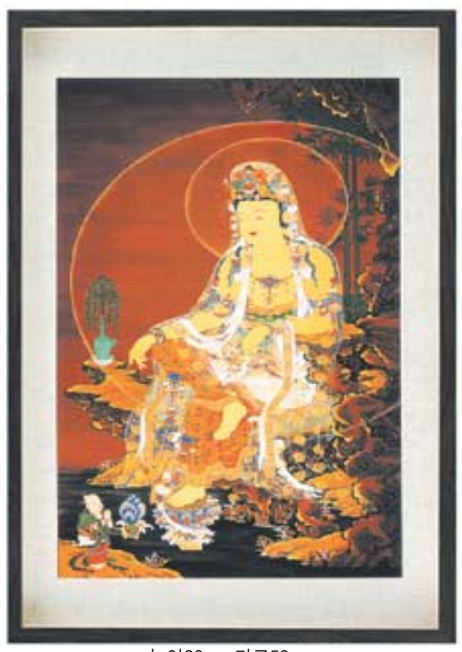


신비의 광물 아루이스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기를 생성하여 반응하게 하는 특수한 재질로써 인체의 어떤 부분에 직접 닿기만 해도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이롭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이온을 다량 방사하며 항균작용 및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각종 오염물질이나 독성을 흡수하여 분해하기도 합니다.

180,000원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의 품위! 만사형통의 영험!


높이88cm 가로58cm

점안불공과 축원불공 카필라 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의식이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하고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명칭이다.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점안불공의 영험 축원 불공의 소원성취!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패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 195,000
문의: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하는 의식이다.

관세음보살 영험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놀라운 영험!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점안불공을 마친 평생 부자지갑

쌍춘절이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섬세하게 꾸며져있고 색상도 은나노 진보라색이라 세련된 최고급 지갑으로 안되

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돈을 버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하는 의식이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드립니다
사업하시는분, 영업하시는분
집에 입시생이나
환자가 계시는 분
다라니 기도 하시는 분
대라니경 사이즈 가로 1m, 세로 1m
011-3113-9580

金山仙道
氣 우주회로 인체 피정 비법등 제자 수강생 00名
[난치병, 심인성질환 각종영적문제 상담 무료]
南無妙法蓮華經 金山仙師
위치: 강남 역삼 1동 우체국앞 파크&스위트 602호
02)562-7151
010-2362-1138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철야기도 ♦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
각종 경전독송 효과적인 방법지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을 드립니다
김종길·임명선·김경미·김경록·김선희·김민정 필요하신분 011-801-4355 전화환영
상담환영
대학입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릴
노후에 회향을 잘 하실 분
걱정없이 조상영가천도 상담하십시오
6월6일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포교활동하실 분
동참하실 분 연락바람
자동 집행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동참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맨발등산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	각시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식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아름다운 섬 통영 사량도 상도 불모산 옥녀봉 탄금사
관음기도 영험도량 불사중
동참 소중한 인연 발원
017-229-8652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대장,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영희
010-3121-4984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뻑뻑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문의 (02)2631-2205,1305

종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직보살구합니다
(PC가능자, 법당에서
일해본 경험자)
보수 : 100-150만원
031)559-0891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청정수월도량입니다
불우,노인 아동 복지요양원을
신축 경영하실
투자자를 모십니다
입지제공 소중한 인연
보람된 만남을 기원합니다
▷충북보은
018-406-3073

서울 북한산 암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며 남은 여생
조용한 암자에서
사실 보살 연락바람
011-306-3504

불교 전통의식 배우면서 부전스님 및 행자모집(40세이하)
▷부산
011-9317-6686
051)853-170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급히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부하시는 학생스님도 환영
▷안산 백련사
011-707-5552
031)485-9411

천년고찰 선원에서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비슬산
053)614-9167

시골출신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보시 후하게 드립니다
▷김해
055)322-8323
017-590-8323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053)632-4844
053)641-4844

비구부전스님
불심돈독하고
pc(엑셀)가능한 50세이하
女종무원 구합니다
061)352-8097
019-320-9926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포교원 개원 및 운영을
함께 하실 처사님,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조계종스님
051)621-0530

기도정진하실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도 찾습니다
011-9803-630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10-7160-2734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총부보살님 구합니다
▷40~50대
011-493-1121

토굴이나 한적한 암자를 관리하면서 수행, 정진하길 원함
(50세 비구니)
010-2569-7337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
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출가자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7-265-6300
013-0272-2007(해외)
02)578-5508
010-2244-2257

무보시로 연꽃 만들어 드립니다
010-6480-8948

몸이 불편하신분 무료로 병간호 해 드립니다
010-6480-8948

제1기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포교활동 하실분 ●스님동참환영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전국만행 ●맨발등산 하실분 ●백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고급" 1자 지장보살(청자 · 백자) 1,000불 저렴하게 드립니다
※ 한정판매 300불 이상 선착순
●높이: (좌대포함) 약 34cm ●넓이: (가로) 약 14cm
●가격: 1불당 12,000원
●요장: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판매 연락처: 042)282-2334
016-606-5658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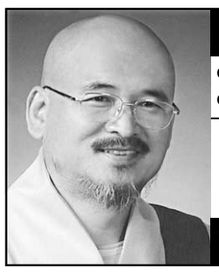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수강회원모집
◆ 周易原典講座 개강
◎ (수) 오후 7시~9시 - 4월5일개강(주역 계사전)
◎ (수) 오전 11시~1시 - 5월3일 개강(주역입문)
◆ 중용(中庸) 개강
◎ 매주 (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4월5일 개강
◆ 논어(論語) 개강
◎ 매주 (목) 오후 7시~9시 - 5월 4일 개강
◆ 월 수강회비: 주역 7만원, 기타 6만원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www.dongbang.or.kr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학인(염불)스님. 행자승 모집
재(齋)의식. 염불(각단불공)을 배우고저 하시는 스님. 전법사, 천도재의식. 상단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 신중불공. 조왕. 산신불공. 용왕불공. 칠성불공. 삼재풀이불공. 시식. 목탁. 법고. 태징. 사물 다루는법을 성심 성의껏 기초부터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스님이 되고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망설이고 계시는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십시요!
(원하시면 득도후 행자 기간을 거쳐 순천 선암사 강원이나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보사 주지 석경보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문의전화 051)364-4889 / 0502)364-4889

병고,불치병,신병,정신병등 무료로 기치료 해드림
중생들이여! 약사여래의 수기가피력을 받아 자성광명을 밝히소서!
신병,정신병,비만,중풍,만성두통,불면,요통,당뇨,불임,불감증,견통,요실금, 해소,천식,아토피,간질,혈압,신장,관절통,각종 원인불명증세 등 특히 영적문제,영가작용,업장문제 등 어떤 문제도 대부분 즉각효과
◆ 외국에 계신분도 원격치료해 드립니다
◆ 생활기공무료지도
▷비전法氣침술법,신비氣기치유법전수
▷수기및기활용술 - 단기간전수, 즉시 활용가능
삼각산마하부다사 011-222-8485, 02)994-3376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5월 15일 출발 실크로드 성지 순례 12일
(5월 6일까지 마감)
동참금 : ₩1,990,000원 (개인 경비 외 모두 포함)
순례 코스
□ 서안 - 법문사 불지사리, 병마용
□ 난주 - 불교 벽화의 진수 병영사 석굴
□ 돈황 - 돈황 예술의 결정 막고굴 , 신비의 산 명사산
□ 투루판 - 천불동, 아스타나 고분군, 서유기로 유명한 화염산
□ 쿠얼러 - 버스팅 호수
□ 쿠차 - 천산 신비 대 협곡, 키질 석굴
□ 카스 - 향비묘, 청진사, 카리쿠리 호수
□ 우루무치 - 천산천지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북경 사찰 순례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450,000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 터 -

● 위치 : 밀양 ● 위치 : 포항 ● 위치 : 경남사천
● 법당 : 30평 ● 법당 : 20평 ● 총평수 : 7,000평 ● 가액 : 1억6천
● 요사 : 각30평 2동 ● 요사 : 30평 ● 위치 : 경북포항
● 부지 : 11,000평 ● 부지 : 760평 ● 총평수 : 700평 ● 가액 : 3천만원
● 가액 : 10억 ● 가액 : 6억 ● 위치 : 경북봉화
● 총평수 : 10,800평 ● 가액 : 8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남한강사찰 1000평-3억
2.서울종로산중사찰-30억
3.경기광주현대식사찰-12억
4.퇴촌절터27000평-5억4천
5.여주사찰120평-전세2억
6.수유포교당15평-월40만원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등기필)
● 삽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답사후 가격 결정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
앞에 비구니스님이 살다간 곳임
주거지역임, 비구니스님 환영
● 시내버스 100M 앞까지 옴

011-9502-323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토굴 급히 구함

양도하실분은 지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청옆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일체시설완벽, 부처님 5불,
아미타불, 호신불 300불,
불단 옥탑에 산신각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6244-9111
032)684-389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사천읍 구암3동
● 평수: 1000평
● 조립식건물 2동
● 심야보일러
1300m 암반수
● 가액: 시가1억5천만원

016-9559-8889
055)854-3408

제주도안내

● 사찰 및 사찰터
농가주택, 과수원,
전원주택
● 시내근교땅

064)711-1447
011-9773-441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 위치 : 서울 국립공원 내 ● 위치 : 대구
● 부지 : 약 500평 ● 부지 : 약 5천5백평
● 법당 : 약 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2동 ● 요사 : 100평
● 가액 : 5억5천 ● 가액 : 9억(대불사중)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도심속의 포교원

60평의 위치, 교통 좋은 포교원에 마음껏 원력을 펴실
능력이 준비된 비구, 비구니 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시설 : 한옥식 황토벽, 게르마늄 맥반석 온돌방, 법당 24평, 접견실2, 방2, 욕실大, 주방2 (엘리베이터有), 옥상 단독사용 (채소재배).
● 가액 : 4천5백만원에 월40만원 (전월세 조절가)
● 시설비 : 별도협의 (051-248-2477)

010-9250-2358, 010-8678-5442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안내

● 위치: 영천 I.C에서20분거리
● 대지 350평
임야 200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 가액: 2억원(절충가)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찾습니다

서울 · 경기
강원 · 경북 일원
사찰,전세나
임대 구합니다

010-8828-3002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042)585-357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완비 8년 운영

010-5458-6730

사찰(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단독주택 임법당
● 대지 25평, 건물 25평
● 시유지 창고 3평 방2개
● 가액: 8천7백만원

02)984-2427
017-215-3195

포교원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1동
2호선 5호선 2분거리
● 8층건물 중 7층
실내평수 50평
● 도시가스와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시설비 2400만원

02)2699-9358
011-622-4299

수련원안내

● 위치: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 평수: 대지 470평
건평: 51평
● 부속건물: 정자 실외화장실
● 용도: 명상센터, 단식원,
전통찻집
● 가액: 9천3백만원

011-9430-114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500평, 건물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 대지: 150평
● 건평: 54평중 조립식 7평
(방1,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입법당 47평(재래식화장실2,
창고1,방1,목욕탕1)기름보일러,
거실 50명 수용가능
뒤는 산 넓은 마당
● 가액: 2,900만원(전,월세가능)

019-265-2426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면사무소 앞
(예천읍 20분거리 영주역 20분거리)
● 법당, 요사채, 마당 텃밭 - 80평
요사채 (큰방2개, 작은방1개,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창고) 도배,
장판, 페인트,욕실 모두 새로 했음
● 가액: 5천 3백만원

054)655-4565
010-9596-1225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동구
● 대지 : 105평
● 요사채45평,2층법당28평
현대식 2층건물
● 실내욕실2, 실외화장실2,
창고,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절충가능)
※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011-785-5670

암자토굴안내

● 위치: 안산시 본오동 약수터 입구
후면에 산과 등산로 약수터 체육
시설 및 시관할 주차장을 공사중
● 현재 식당 영업중
● 대지: 75평
건평: 75평(1, 2층 내부 계단)
● 가액: 4억

011-259-4068
019-9150-40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4층중 2층
● 총 70평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552-2582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시에서 10분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6억

019-692-2222

암자안내

● 위치: 충남 공주 정안면
위치 최고 최상도량
● 대지: 120평,건물: 21평
흙벽돌집
● 가액: 4천8백만원
시설비 없음. 시설 일체 완비

010-3082-3937
042)528-393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경동시장 부근
● 단독주택 형태,
최근 리모델링
● 법당, 산신각, 방2개
● 가액: 전세 8000만원
※몸만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010-8677-0896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19천만원

010-4510-0108
011-9126-8959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불로동 부근
● 65평, 주방, 방3칸,
삼존불, 소불(지장불
100불, 관음불 100불)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 / 시설비500만원

011-509-152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요지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2채, 방4칸
주차장
● 가액 : 7억(절충가능)

018-554-619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익산시 함열
● 평수 151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건물 현대식
● 가액: 1억5천만원

011-811-5466

사찰양도안내

● 위치: 수원시내 ● 건평: 40평(5층 건물중 지하1층)
● 법당: 25평 삼존불 탱화 기타불구일체
요사: 대형방, 주방, 창고, 화장실, 기타편의시설
● 가액: 일억일천만원 ● 월세일경우: 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사십만원
● 특징: ① 인근 백화점 및 대형 재래시장이 있고 인구 밀집지역
② 교통편리지역
③ 버스 터미널 5분거리등 포교당으로서 최적지임
※ 영업안내: 사찰매매, 양도 양수, 의식집전스님,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성실히 소개 알선해드립니다

011-789-2255/010-4789-2290
사찰정보센터 금강기획 02)736-3578~9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4층중 2층
● 총 70평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552-2582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시에서 10분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6억

019-692-2222

암자안내

● 위치: 충남 공주 정안면
위치 최고 최상도량
● 대지: 120평,건물: 21평
흙벽돌집
● 가액: 4천8백만원
시설비 없음. 시설 일체 완비

010-3082-3937
042)528-393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경동시장 부근
● 단독주택 형태,
최근 리모델링
● 법당, 산신각, 방2개
● 가액: 전세 8000만원
※몸만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010-8677-089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4층중 2층
● 총 70평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552-2582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시에서 10분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6억

019-692-2222

암자안내

● 위치: 충남 공주 정안면
위치 최고 최상도량
● 대지: 120평,건물: 21평
흙벽돌집
● 가액: 4천8백만원
시설비 없음. 시설 일체 완비

010-3082-3937
042)528-393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경동시장 부근
● 단독주택 형태,
최근 리모델링
● 법당, 산신각, 방2개
● 가액: 전세 8000만원
※몸만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010-8677-08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
● 약 80평(주차시설 완비)
● 법당, 삼존불(동), 후불, 신중탱화
방사 4개, 공양간
● 가액: 일억사천만원
보증금 7천만원(월세,관리비 없음)
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
● 서울,구리,성남,이천,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

011-9788-3306
011-9987-2215

사찰안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2번지
● 대지: 문화재급 목조건물
대웅전 36평 요사채 30평
● 삼성각 6평, 종 누각 2층 10평
● 미륵부처님, 부처님 다 모셔져있음
● 물좋고 산세 수려함
기도도량으로 최적
● 가액: 15억

031)674-1117
011-250-7279

토굴(급)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30평, 건평 30평 중
법당 10평 방3칸 공양간
건물옆으로 허공산신
(바위에 입체조각 산신)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삼존불, 호신불 30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 집기류 일체양도
● 가액: 2천8백만원

010-7119-4572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 6호 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40평, 방2칸, 부엌1칸
삼존불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
월 50만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좋은조건 의논

016-542-1055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 대동
● 대동IC 5분거리,
부산시내10분거리
김해10분거리
● 대지 : 170평
법당, 대웅전
요사채2동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57-9293
055)337-2233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근교
● 거리: 서울에서1시간 원주터미널
원주역에서 10분거리
● 종교용지800평외 320평,
보궁20평, 법당30평
신축요사채 50평(심야전기보일러)
●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 삼십년이상된 사찰임
● 건강상 사유로 급안내
● 가액: 3억9천만원
(절충가능)

018-731-8205
011-361-0516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북수원 동신아파트 부근
● 평수 : 약 70평. 3층건물 중 3층
신축건물이며 옥상사용가능
● 법당, 스님, 친견실, 스님방, 공양간,
공양방, 샤워실 있음. 시설위치 특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304-0036
※ 포교활동해보니 좋은곳입니다.
최상의 포교원으로 사정상 안내함

동북아 불교사상사의 전령 - 구법승 재조명

동북아 불교사상사의 전령사인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과 업적을 한 · 중 교류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한 · 중 불교학자 및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중국의 서북민족연구중심(주임 쪼우웨이쪼우) 공동주최로 중국 서안 섬서대학교에서 4월 1일과 2일 열린 '한 · 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대회가 그것.

'한 · 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대회

이번 대회는 동북아 불교문화의 핵심 지역인 서안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한국의 구법승들에 대한 재조명과 학술적 정보교환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섬서사범대 뤼지안푸(呂建福) 교수의 '고려 왕조의 기양불교와 동진한 밀교' 등을 비롯해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중 이목을 집중시킨 2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중국의 해동구법승에 대한 처우와 인식

국가적 경계초월, 차별 없었다

◆ 동국대 김상현 교수



고승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불교사적에는 해동구법승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이것은 고대 구법승들의 활동에 국가적인 경계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고승전>은 신라의 <원광전>과 <자장전>, 백제의 <혜현전>을 정전에 수록하고, 부전으로 신라의 안승과 원승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실법사, 인법사, 지황 등에 관한 언급도 있다.

<조당집>에는 무염, 홍직, 도윤, 현욱, 순지, 김대비 등 신라 말의 선승 11명의 전을 싣고 있다. 설봉의 법을 이은 재운화상 영조(870~947)는 절강에 살았는데, 전왕이 흠모하여 자의를 하사하고 진각이라 호하였다. 복청화상 현눌도 설봉의 법을 이어 천주에 살았는데, 천주의 왕태위가 화상을 흠모하여 자의를 하사할 것을 주청하였다. 혜철(785~861)과 홍직도 서당의 법을 이었고, 범일(810~889)은 염관의 법을, 무염(801~888)은 마곡의 법을, 도윤(798~868)은 남천의 법을 이었고, 순지(833~?)는 혜적의 법을 이었다.

삼고승전에서 해동승이나 서역승 등의 전기를 서술할 경우에도 십과 중의 어느 한 과에 편입할 뿐, 외국 출신의 승려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분류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또 중국에 유학하지 않은 원효를 <송고승전>에 실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고승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불교서적에서 동이, 도이, 삼한이족, 변양, 동번, 번승 등의 용어를 가끔 사용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것이 해동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승전의 분류가 국가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들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에서의 활동했던 해동의 승려로는 경전의 번역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학승이나 선승도 있었지만, 출신으로 인해 간경이나 수행에 제약을 받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승랑, 원측, 혜초, 무상, 지장 등과 같이 중국에서 그 명성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것도 출신으로 인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9~12세기 중 · 한 불교교류의 각 시기별 특징

9~10세기초 구법승 136명

◆ 섬서성 사회과학원 천진푸(陳景富) 연구원



중 · 한 불교교류의 최대 전성기는 4~12세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또 △10세기 후반~11세기 △9~12세기 중엽(남종선 유포에 편중된 시기) △12세기 말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10세기 후반~11세기 중국은 대략 북송시기로 한국의 구법승의 숫자는 예전처럼 많지 않았다. 이 시기 구법청익 승려의 대표적 인물로는 의통, 지종과 의천 등으로 그들은 모두 천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송나라에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의천은 화엄, 천태 양종의 고승뿐만 아니라 율종, 선종 방면의 대덕들과 접촉, 50여 명에 가까운 각 종파의 고승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9~12세기의 긴 시기 동안 중 · 한 불교교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중국 남종선이 통일신라와 고려왕조에서 보급돼 잇따라 성행하였는데 구체적 시기는 9~10세기 전반이다.

이 시기 구법승들은 136명이며 그 중 73명이 선승이었다. 이 가운데 회양계통이 23명, 청원계통이 35명, 법계가 확실치 않은 선승이 15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선풍을 공부하고 귀국했지만 선종 9산은 유일하게 한국불교 특정시기의 산물로 추정된다.

12세기 중말 중국은 대략 송나라 휘종에서 녕종 즉위 초 시기이고, 고려는 숙종에서 신종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중 · 한 불교교류 활동은 12세기 초 1, 2차에 걸쳐 거란으로부터 요판 대장경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당시 중국 내 한국 구법승들의 활동은 '0'다.

이러한 원인은 송과 금의 대치 등 투쟁의 분란국면에서 송, 금, 고려 3국은 서로 엄격히 방범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중 · 한 양국이 불교문화 교류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양국이 정치상 밀접한 우호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며 경제, 문화의 광범위한 교류 또한 전제조건이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구법승들은 중국 내 불교의 새로운 정보 등을 주의 깊게 수집 · 흡수 · 전파해 다시 자국의 실제 상황과 결합시킨 한국 불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글 · 사진/서안=노병철 기자

■서안과 구법승

혜초 · 원측 · 자장 스님 흥교사 등서 구도행



흥교사 내 원측법사 사리탑.

중국 섬서성 서안은 수 · 당 시대 중국에서 구동역정의 뜻을 품은 구법승들의 주 무대였다. 서안은 고대 중국 13개 왕조의 도읍지로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은 물론 '불교문화 전파의 터미널'과도 같은 곳 이었다. 4~14세기 말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구법승은 수 천에 이르며 고증된 구법승만도 300여명에 달한다.

서안 및 종남산 일대에서 활동한 구법승은 약 6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고승으로는 혜초, 균여, 원광, 원측, 자장, 혜통 등이 있다. 이들 구법승들의 관련 유적으로는 흥교사, 화엄사, 자은사, 천복사 등과 미확인 사찰 및 유적지를 포함해 10여 곳에 이를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이곳은 가는 곳마다는 한국 구법승들의 고귀한 발자국이 아직도 역력하게 느껴진다.

시내 동남쪽 24㎞ 지점의 교외 야산 기슭에 있는 흥교사(興敎寺). '호국흥국사'라고 쓰여진 벽돌 정문을 들어서면 고색 짙은 대웅전이 나타난다.

경내 오른쪽 벽돌담장 너머 숲에 싸인 고탑 3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운데 우뚝 솟은 탑이 높이 23m의 현장탑이고 오른쪽은 규기탑, 왼쪽은 원측탑이다. 원측탑은 5층 현장탑 보다 훨씬 낮은 3층 전탑이며 그 주인공은 신라 왕손 출신으로 불학에 일가견을 이룬 원측(613~696) 법사다. 1층 탑신 안에는 법사의 상이 모셔져 있다. 원측은 15세 때 중국에 들어가 서안에서 고승들로부터 수학한 다음 현장법사를 도와 많은 경전을 번역함으로써, 법상종 비조의 한 사람이 되어 불교의 동방전파에 기여했다.

구역시대 대표적 역경승 구마라집의 사리탑이 있는 초당사(草堂寺). 한국 출신 구법승으로는 신라의 범수가 초당사에서 <신역화엄경찬소>를 저술했다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신라의 증관이 이곳에 주석했다고 한다.

서안 시내에 위치한 자은사와 천복사도 구법승 유적지로 빼놓을 수 없는 명찰이다. 이 사찰은 각각 높이가 40m가 넘는 대안탑과 소안탑이 있어 현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은사와 천복사는 현장의 문하였던 승장, 신방, 지인, 순경 등이 주석했고, 원측 또한 상당 기간 이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interview

亞 불교교류사 연구 박차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



"'한 · 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전역에 걸쳤던 한국 구법승들에 대한 연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의 2년차 계획 일환으로 추진한 '한 · 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대회 한국 측 대표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말이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 연구를 위해 3개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와 작년에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통일신라 이전의 중국 내 구법승 활동' 국제학술대회 및 내년에 열릴 '고려~근세까지의 중국 내 구법승 활동' 국제학술대회가 그것.

또 '서북민족연구중심(주임 쪼우웨이쪼우)'과 작년 10월부터 향후 10년 간 세미나, 논문교류 협의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북경대, 남경대, 상해사범대 등과 연구협정을 맺고 중앙아시아 불교문화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중국내 역사 · 문헌상 남아있는 300여명의 구법승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서적 <고대 한 · 중 불교교류(가칭)>를 내년 하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3년내 '교류연구' 성과낼 것

서북민족연구중심 쪼우웨이쪼우 주임



"중국불교사상사와 한국불교사상사는 둘이 아닙니다."

중국 서북민족연구중심 쪼우웨이쪼우(周偉洲) 주임은 양국의 불교사상사는 종교 · 지역 · 문화적인 면에서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북민족연구중심은 불교학 · 이슬람 · 고대학 · 지리학 전문 연구진 20여명으로 구성된 불교문화와 불교사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서안은 물론 중국불교학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서안은 불교사상 · 불교문화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실크로드의 관문은 물론 한 · 중 불교교류에 있어서도 그 역사와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양국 불교문화사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3년 내에 한 · 중 양국의 불교사적 교류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 성과는 물론 동북아 불교교류사에 대한 한 · 중 · 일 국제학술연구단도 발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포교원 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2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절충
011-9393-4965

토굴안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4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몸만오시 됨
● 가액 : 5천 5백만원
011-9394-1215

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리
● 부가옥 30평 대지 370평
● 가액 : 평당 80만원
011-299-4465
010-8704-2247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안면
● 건물 : 30평 대지 : 약 1천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조경, 주차시설 완비
016-9669-7467
055)883-9612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주 월산동 시내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대지 50평, 건평 3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676-0176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동 (구 늘봄공원 앞)
● 총평수: 약35평(5층중 4층)
● 삼존불,각단탱화,호불,연등 포교 최적지(간선 도로변)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 스님병환으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
011-871-0004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 법당: 15평, 산신각: 8평 부지: 460평
● 심야보일러
● 가액: 1억3천만원
011-511-0926

사찰안내
● 위치 : 김해 신어산(좌청룡 우백호 명당)
● 골프장이 그림같이 한눈에 마을버스 1분거리, 천년 약수 사찰입구 경남 영묘원(납골당) (신어산공원 주모관, 고급다예존 형성중)
● 대지: 150평(법당1, 요사채 방4개) 각방 화장실 및 샤워실
● 시세 2억 상당(절충가) 임대가
055)323-8337
017-541-998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식물원 입구
● 33평3층
● 시설완비
051)516-9518
011-579-1357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소재(서울 30분)
● 대지: 175평, 법당 30평 요사채 현대식(2층건물)
● 가액: 3억1천만원
● 특징: 사찰 뒤기 산이고 앞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참 좋은곳입니다
016-510-3455

암자 터 안내
● 위치 : 영남 알프스(양산)
● 부지: 900여평 (실사용 1500여평)
● 건평: 건물 3동 총 80여평
● 1급수 계곡접 2차선도로 인접
● 가액: 4억
010-4878-353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입구 요지 수비사거리(벡스코 부근) 지하철 시립미술관 2번 출구 앞 8차선 도로 옆 6층 건물
● 6층건물(100평),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여유공간 30평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전세 5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월세 40만원
011-555-411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동대신동 숲 울창한 사찰
● 대지: 2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버스 정류장 50m
● 가액: 4억7천만원 융자 1억3천만원 있음
016-651-1800
011-870-1463

불자를 위한 전원주택
● 위치 : 경기 양주 감악산
● 건평 32평 단독신축건물 (방4 거실 주방등)
● 즉시입주가능
● 전세 3500만원
● 전원생활을 원하는 부부 또는 예술활동중인 불자환영
016-703-6648
031)867-1801~2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2억2천만원
010-6428-1129

암자 터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73평.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도심포교원 최적지
051)503-0908
019-291-5558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고면 신대전리
● 건물: 611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 건물: 대웅전 25평, 종각 2평, 산신각 5평, 용왕전 3평 요사방 6개, 주방 10평
● 실평수 900평정도, 사용평수 2000평
● 주차 30대, 사찰연혁 70년
● 가액: 5억
010-4877-5900

포교원 최적지 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 7호선 4,5번 출구 1분거리 총100평
● 법당 : 4층 50평 종무소완비 정동3존불 원만상, 준재관음상216위
● 후원 : 4층 50평 주지실,신도접견실, 객실2개,식당1개,주방1개
● 보증금 : 1억5천. 월세 관리비포함 1백8십만원 건물주와 절충가능
● 주지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683-7887

일 주 문



시설장협의회 제2대 회장 연임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3월 30일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 2006년 1/4분기 회의에서 제2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용주사 거사회 창립 2주년 법회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3월 24일 용주사 천보루에서 김영광 회장을 비롯해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사회 창립 2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새벽처럼…' 출판 기념법회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4월 17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저서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수행관 법당 원불 점안식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은 4월 26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학교 육화당 3층 법당에서 수행관 법당 원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불교미술사학회 제7회 학술대회

불교미술사학회장 범하 스님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불교미술사학회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난치병 어린이 살리기 3000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조계사에서 '제6회 난치병 어린이 살리기' 3000배 정진기도를 진행한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원장에

금산 유점사 前 주지 동옥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은 4월 1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 7대 회장에

수필가 맹란자(에세이문학 발행인)씨는 3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 취임했다.



외국인 대상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이원철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4월 16일부터 조계사 '(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정우식 정책기획팀장은 4월 6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외국 대학도서관에 한국불서 많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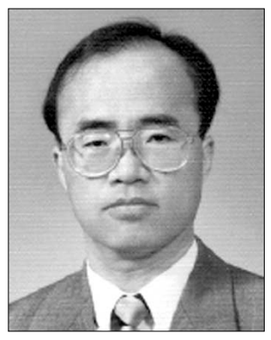
'삼국유사' 영어 완역본 낸 김달용 교수… 불교용어 '다단계 번역' 주목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서와 고대 역사서의 영어번역이 절실합니다."

전남대 김달용(57 · 영어교육과 · 사진) 교수는 최근 <삼국유사>의 영어 완역본인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지문당 刊)>을 출간했다.

아산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번역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진행됐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집필했으며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고대 역사뿐만 아니라 설화 민속신앙 종교 신화 전설 지리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한민족의 생활을 그린 역사서.

1970년대 <삼국유사>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번역본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완역본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 때문에 불교계와 학계에서도 영어문화권에 보급될 이



번 삼국유사 영문책자가 우리 민족의 뿌리와 문화를 외국학자들에게 소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대 영문학의 필독서인 J.G.프레이저의 <황금가지(1922)>에 세계 모든 신화가 소개됐지만 우리나라 신화는 언급되지 않았고 미국 각 대학 도서관에도 중국과 일본 고전 번역본은 많지만 우리 고전은 없다"며 "우리 고전에 대한 번역본이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번역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이 더욱 가치를 발하는 이유는 불교용어와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영역본에 옮기기 위해 어휘선택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것. 번역과정에서 김 교수는 한자로 쓰여진 불교용어의 뜻을 이해해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추적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옮기는 다단계 번역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외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 작업에 할애했다. 완역한 후에도 스님과 동료 외국인 교수들에게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감수 받았다.

김 교수는 "<삼국유사> 영역본 번역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접하게 됐으며 앞으로 <해동고승전> <해동이적> 등 유 · 불 · 선 번역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사진)이 최근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천정배 법무부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송정 스님은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을 맡아 10여 년간 재소자들을 위해 매달 2회씩 교정활동을 펼쳐왔다.

영민 서부경남 지사장

"무분별한 도로건설 중단돼야"

대구 앞산 순환로 반대 나선 선진 스님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사진)이 앞산을 관통하는 4차순환도로 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스님은 4월 5일 대구 달서구 앞산 달비골 입구에서 열린 앞산관통도로 건설 반대 촛불집회에 동참해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앞산관통도로건설을 반대하는 연등을 달고 하룻밤을 묵으며 더불어 사는 삶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14일째 연일 이어진 촛불집회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곽상수 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달서구 지역 전교조 교사와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선진 스님은 "부처님과 예수님은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을 일러주셨다"며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화촉 본사 여수령 기자가 한국대학신문 권형진 기자와 4월 16일 오후 2시 40분 창원 가든예식장 오페라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여수령 011-357-9726)

고구려고분 조사 방북

강만길 남북역사학자협의위원장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강만길(사진) 위원장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될 북한 내 고구려 고분 10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방북한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주관하고 남측 문화재청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이 지원하는 이번 조사의 결과는 고구려 고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만길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단은 평양에서 착수기념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남동우 기자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취임법회



부산 삼광사 제9대 주지 취임법회가 4월 1일 지관전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신임 감사원장 춘광 스님의 증명하에 진행된 이날 법회는 1만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전임 주지 도원 스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 이임사, 직인전달, 영제 스님 취임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양산 통도사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기 2550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범망경의 보살계 중 10중계를 설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입재 법회는 전계대화상 혜남, 갈마 아사리 지종, 교수 아사리 지안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사의 증명아래 봉행됐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대재



양평 용문사(주지 의정)는 3월 31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나무 대재 및 산신재를 봉행했다. 불교전통 범패의식으로 진행된 산신재에서 참석자들은 주지 의정 스님의 법어를 들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했으며 조상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보현의 집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 구미 마하부다 보현의 집(대표 진오)은 4월 2일 외국인 노동자 40여명을 초청해 무료진료 등을 실시했다. 이날 순천향대학 구미병원 이길노 원장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기타를 기증하고 무료진료도 진행했다.

태안 안면암 장학회 장학금 전달



2002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해 온 태안 안면암 장학회는 4월 4일 안면암 큰법당에서 2006년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명순 장학회장은 고등학생 5명(각 30만원씩), 중학생 10명(각 20만원씩), 초등학생 21명(각 10만원씩) 등 총 36명의 학생들에게 560만원을 장학금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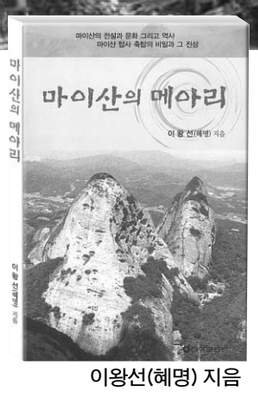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영제 방생 탑사



마이산의 전설과 문화 그리고 역사
마이산 탑사 축탑의 비밀과 그진상

마이산의 메아리

이책은 저자의 수행담과 탑사와 탑군에 얽힌 전설과 역사, 축탑의 비밀을 책으로 역은 것이다. 저자는 마이산의 아름다움, 신비스러움 불가사의 함을 이책에 담았다. 마이산 탑군의 지킴이로서 그간 소송 전말과 분쟁,소유권등 탑사에서 그간 일어났던 무수한 법정에서의 소송을 책속에 진솔하게 담았다. 또한 저자는 마이산탑사에서 태어나 조부인 이갑룡처사와 함께 지내며 조부가 탑을 쌓거나 수도하는 모습은 보아왔고 신비의 영산 마이산에 돌탑조성 과정도 그림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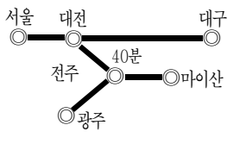


‖신아출판사 ‖ 값9,000원 ‖ 전화 063)275-4000, 252-5633

이왕선(혜명) 지음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혈통주의와 빈자일등

십수 년 전의 일이다.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나왔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 변호사가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라며 추켜세웠다.

그러자 당사자인 변호사는 우려를 표했다. 자신의 경우가 개천에서 '용' 난 모범 사례로 회자되면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개천에 여전히 살고 있는 다른 불우한 이웃은 소외되거나 말거나, 한술 더 떠서 같은 환경에서도 노력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는 비판의 시각이 더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다.

요 며칠 미국 '수퍼볼 영웅'이라는 하인스 워드의 귀국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온갖 행사가 벌어지고 명예 시민장을 주기도 하고 야단법석이 따로 없다. 혼혈인이라는 차별 때문에 타국에 가서 모진 고생하며 살다가 성공해서 돌아온 그에게 베푸는 환영으로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소나기처럼 퍼부어대는 관심과 찬사를 보면서 십수 년 전 젊은 여성 변호사의 텔레비전 대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민망하고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한국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살아온 30년이었어.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에 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놈 거지밖에 안 됐겠지? 여기선 누가 파출부라도 시켜줬을까?"

하인스 워드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 김영희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제 와서 우리 워드가 유명해지니 관심을 참 많이 가져 준다. 부담스럽다."

바로 이것이었다. 하인스 워드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민망하고 송구스런 이유가. 그가 힘들게 자랄 때, 그가 성공을 위해 분투할 때 한국인으로서,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아니 그 같은 혼혈인이란 존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민망함이 덜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성공한 그를 환영하기에는 염치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도 무관심했다.

언론과 방송의 호들갑을 보면서 하인스 워드의 성공이 한국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혼혈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다.

혼혈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부터, 우리사회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혈통주의에 대한 공격은 물론, 급기야 혼혈인의 군입대 허용까지 말이 무성하지만 정작 하인스 워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정말 우리사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인스 워드의 귀국 환영 세례를 보면서 여성 변호사의 우려가 재현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다. 성공한 '용'에게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데만 급급하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불우한 혼혈인은 한쪽으로 제쳐두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우리도 이젠 우리 민족만 감싸 돌고 사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도 버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국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던' 하인스 워드 모자가 아픈 세월을 이겨내 이룩한 성공이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하게 치장한 등불보다 가난한 노파의 작은 등불에 담긴 정성을 보셨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을 소중히 여겼던 부처님의 그 자상한 마음이 그리운 오늘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천태종의 '새모습' 기대

천태종 새 수장으로 정산 스님이 취임했다.

26년간 종무행정의 수장직을 맡아 천태종을 키워 온 운덕 스님의 뒤를 이어 천태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이룩해야 할 큰 짐이 정산스님의 어깨에 지워진 것이다. 오랜 기간 수장직을 맡아 오던 분이 자신의 세력과 공로를 방패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계기를 열어주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장기 집권 뒤에 오는 교체의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큰 맥을 이어오는 거대 종단으로서 가장 큰 교세를 지니고 부동의 불교 제 1종단의 위치를 지키는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큰 교세와 함께 긴 역사를 통해 쌓여온 많은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기에 조계종의 변화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굼뜰 수밖에 없다. 천태종과 같은 새로운 종단은 이에 비해 새로운 조직과 신행방식을 쉽게 도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그 급속한 성장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의 성장에는 그 이념의 깊이와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 피치 못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일이다. 외적인 성장과 위상의 상승에는 그에 비례하여 끊임없는 이념의 심화와 사회적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다. 천태종이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채 정체되고 있다는 내외의 지적은 한편으로는 천태종의 상승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에 걸맞는 이념의 심화와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다.

관음정진을 중점적으로 하는 일상의 수행법과 재가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투명한 사찰운영, 불교대학 설립을 통한 인재양성 등, 천태종은 건강한 종단을 이루기 위한 기본을 착실히 갖추고 있다. 이제 개인적 기복과 사회적 회향까지가 조화로운 이념아래 통일적으로 체계화되고, 그것이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힘있게 추진되어 한국불교에 천태종이 있다는 것을 크게 외쳐야 할 때이다. 새로운 천태종의 수장 정산 스님이, 그 동안 쌓여 온 천태종의 저력을 새로운 비젼으로 이끌어, 이시대의 진정한 대승종단 천태종으로 우뚝 세우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죄'

어떤 사람이 삼백 가마솥의 밥을 중생에게 보시하였다고 하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소젖을 짜는 잠깐 동안이나마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 익혔다면, 그 먼저 사람의 보시 공덕은 뒷사람의 억만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잡아함 부경〉

지난 3월 9일 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눈치를 살피던 한 노인이 옷 속에 뭔가를 숨겼다. 그는 노숙자였다. 결국 이 노숙자는 경찰에 넘겨졌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가 훔친 것은 2500원짜리 땅콩 캔 하나였다.

그는 전과 11범인데다, 출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유도 출소한 지 3년 안에 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로 가중된다는 형법상의 '누범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11차례 범죄에 19년 복역. 이 사람이 그동안 훔치려했던 것은 7만원어치의 신문뭉치와 1년째 주인 없이 메어있던 중고 자전거, 그리고 1만5000원짜리 손수레 등이었다.

이 뉴스를 접한 다음날 출근길 지하도 계단에서 어린 자식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는 한 여성 노숙자를 보았다. 아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무능력한 것은 이 사회에서는 '죄'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 잘 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느냐"는 힐난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필자가 그 노인이었더라면 더 비싼 것을 골랐을 것이다. 필자가 그 여성 노숙자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이를 먹이고 입혔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기꺼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몇 십억씩 횡령하고도 멀쩡한 기업이나 정치인, 그리고 사람보다는 법이 위인 고매(?)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은 사양하겠다. 그런 돌에 맞으면 너무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명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이것 참! 어이없다! 내 아들 입에서 교회 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다니….

교회 장로인 고1때 담임선생님을 2학년이 돼서 또 만난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2학년이 돼서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된 것 같다. 연유를 물으니 반 아이들 34명중에 10명이 담임선생님이 장로로 있다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다.

교회를 왜가려고 하느냐 물으니 "하느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 아침 담임선생님이 직접 집 앞에 오셔서 아들을 픽업해 가셨다. (중략) 가기 전 아들에게 내가 한일은 겨우, "한번 교회가고 한번은 절에 가라! 그리고 어딜 가든 보시는 해야 하니 헌금 봉투 가져가고…." (중략) 소신을 펴지 못 한 내가 초라해짐과 동시에 부끄럽기도 하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중략) 아들에게 "친구들 다 데리고 절에 와서 놀아!"하고 말은 했지만 그 에너지 넘치는 장정들 10명을 우리법당 어디에 앉혀 놓을 것인가? (후략) 속상한 혜향성 합장

최근 금장사 은평법당 신도의 글 '아들이 교회간다고…'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붓다뉴스(buddhanews.com)에 실린 혜향성 보살의 글과 누리꾼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절에도 놀이시설 많이 갖춰야

저도 혜향성님 글에 동감 또 동감 합니다. 저에게도 5살, 7살 두아이들이 있어요. 생활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1주일에 1번 절에 놀러(?) 가곤 해서 그런지, 애들이 절에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가끔 다른 절에 가면 아이들이 경내에서 웃으면서 혹은 떠들면서 뛰어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곤 해요. 어쩔 땐 애들을 때까지 절에 가지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면 애들이 절에 가는 걸 싫어하거나 다른 종교를 택할 지도 모르겠다 싶어 은근히 걱정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찰을 자기 공간처럼 여기고 편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당처럼 법당은 아니더라도 놀이터나 놀이방 시설이 있었으면 하기도 하구요. 아기엄마

타종교 이해시키는 교육 필요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집에서 불교를 생활화하는 생활 속 불교를 하자는 말이지요. 살면서 하나씩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불교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리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체 온갖 곳이 불교 아닌 곳이 없고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불교만이 바다와 같아 온갖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어디에든 진리는 있고 타종교와도 화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가다보면 말만 다르지 이것은 불교 가운데 있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애아빠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지난 토요일 학생들 76명을 데리고 서울 쌍문동 공생선원에서 법회를 했다. 매년 학기초 불교학생반아이들을 모집해 두어 달에 한번씩 사찰에 법회를 보러 가는데 스님과 보살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학생들이 매번 선원에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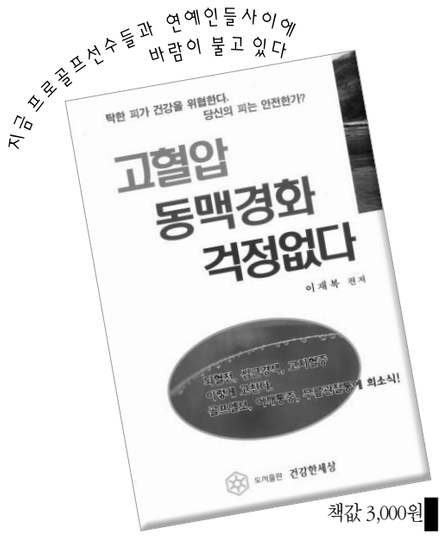
아이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동하게 마련이다. 년 초에 각 학급(남자고등학교) 종교를 조사하면 35명중 20명이상이 기독교이고 천주교가 6명 불교는 2명 정도다.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 청소년들을 포교를 하지 않으면 먼 훗날 불교를 외국사람들에게 배울지 모른다. 관심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호주,북한 임상 보고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 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혈액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반지, 팔찌는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혈액점조도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이 정상화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화면은 2005년 11월 22일 "MBC통일전망대"를 통해 방영됐다.



북한의 김영남박사가 발명한 혈액정화기!
태양빛을 받는 순간 피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
이 기술을 북한에서는 "빛삼" 즉 빛의 산삼이라고 부른다.

심, 혈관질환에 98.8%의 치료효과(조선중앙통신보도 2003.6.13)

언론보도

- MBC TV 2005. 11. 22(통일전망대)
- MBN TV 2006. 2. 18
- 문화일보 2005. 10. 15
- 스포츠칸 2005. 10. 2
- 스포츠서울 2006. 1. 6
- 내일신문 2005. 12. 5
- 메트로 2005. 11. 15
- 전기신문 2005. 11. 3
- 연예인뉴스 2005. 11. 7
- 시사뉴스 2006. 2. 16

북한에서는 이 기술을 60년대 석회석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비날론 생산기술에 비견될 만한 세계정 발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지와 팔찌형태로 제작된 이 "혈액정화기"는 북한의 인민병원 회복치료과장 김영남박사가 18년동안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해 98.8%의 치료효과를 얻고 북한당국의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1544-2181 ■책구입방법: 다음 계좌로 책값 3,000원을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곧바로 책을 우송해드립니다. (농협 072-12-288028 예금주: 주분옥)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행사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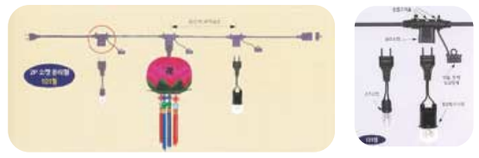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8Cm(大) /24cm(中) /18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1Box20개입/8cm:1Box16개입/10.5cm:1Box12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사찰용 연등전선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비단팔모접등 28cm × 24cm 색상 : 분홍,노랑,초록,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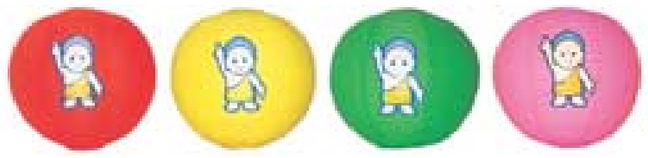
※ 주문제작가능
팔각조립등 26cm × 28cm 색상 : 분홍,파랑



중등 40cm × 27cm
색상 : 노랑,연두,분홍,빨강,파랑



황금연등
재질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6인치(폭 19.5cm × 높이13.5cm)
8인치(폭 23cm × 높이18.5cm)
10.5인치(폭 28cm × 높이21.5cm)
13인치(폭 34cm × 높이30cm)
20인치(폭 48.5cm × 높이40cm)
※ 장식용 수술 별도



캐릭터 비닐 만월등
봉축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등
색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풍경등
색상 : 노랑, 빨강, 녹색, 파랑, 분홍
수량 : 1Box 100개입, 색상별 20개씩 가능
등표(이름표)를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관리가 용이합니다.



연등철사
6cm, 8cm, 10.5cm, 12cm
(50개 1묶음)



연등연잎(일반형)
분홍, 진분홍, 노랑, 주황,
빨강, 녹색, 흰색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폭 90cm / 길이 6m (48,000원),7m(56,000원), 8m (64,000원),10m (80,000원),12m (96,000원)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연 국 수





• 1개 3,500원 : 3인분(300g)
• 1박스150,000원 : 50개 (150인분)
• 연(蓮)국수에는 전남 무안의 깨끗한 백련잎을 여러 번 덖고 찌고 비벼서 말려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꽃 화장품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부처님오신날 기념 500개 한정특판 !!

• 연꽃화장품 구입시 +1개(남성용또는 여성용) 더 드립니다.
• 가격 : ~~78,000원~~ → 48,000원
※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의 특징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 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등 폐기처리 서비스 !!!

오랜된 연등,
처리하기 힘드시죠?
마하몰에서 실비로
연등을 폐기 처리
해 드립니다.
☎02)732-1520

수련씨앗이 들어있는 **띠별핸드폰줄** 앙증맞은 유리병속에 수련씨앗과 14k 금도금된 12지가 들어있습니다. 특판가 5,000원



• 사이즈 : 총길이 90mm, 유리병 30mm • 재질 : 강호유리, 14K 금도금, 수련씨앗
※ 핸드폰줄의 유리병을 분리하여 목걸이 펜던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련(연꽃)씨앗의 의미는 풍요,행운,번영,장수,건강,명예를 의미하며, 몸에 지니고 다니면 헤아릴 수 없는 복과 행운을 준다고 합니다.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농협 053-01-267081 / 국민은행 023501-04-074548 / 하나은행 111-910006-86204 (예금주:마하몰)



20여년간 <금강경>을 사경하며 자신의 수행을 다져온 서예가 김복수 선생.



한 획 한 획에 인생 담아요

20여년 '금강경 사경' 서예가 김복수 선생

"어느 날 제가 써서 모아온 <금강경>들을 정리했습니다. 70여점 정도 되는데 정리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이렇게 많이 썼나 싶더군요."

절에 주기적으로 가서 교리를 공부하거나 신행을 다져온 불자는 아니었다.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공부하며 서예를 배웠던 서예가 김복수 선생(65).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부처님오신날 절을 찾아 등을 달았고, 커서는 등산길에 절에 들러 부처님께 인사드린 것이 전부였다. 불자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웠던 시간들이었다.

어느 날 평탄하게만 지내왔던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서점을 찾았다. 그 곳에서 골라온 책은 다름 아닌 <불교성전>이었다.

그 책 속에서 <금강경>을 발견했다. 오로지 <금강경>만 눈에 들어왔다. 일과 시간 외에는 <금강경> 쓰는 것에 매달렸다. 뜻을 몰라 해설집도 여러 권 읽었다.

<금강경> 5000여 한자를 한 장의 한지에 담아내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렸다.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다. 먹물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쓰다가 다시 시작하고, 획을 하나 실수해 또 다시 시작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시작한 <금강경> 사경은 그대로 수행이었다. 2년 전 97세를 일기로 작고한 노모는 생전 <금강경>을 쓰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들의 눈이 나빠질까 항상 걱정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몰두했다.

한 획 한 획이 김복수 선생에게는 수행의 걸음걸음이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108배도 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며 잡념을 없앴고 붓끝에 더욱 정신을 집중했다.

"지금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108배를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육체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수행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일거양득"이라며 자랑한다.

왜 <금강경>이었을까? 김복수 선생은 딱 떨어지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정신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 뿐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 상황이 자신 속에 움터있던 불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구나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그에게 <금강경>은 인연의 시작이자 필연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금강경>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지내보니 그냥 흘러지나온 것보다 뭔가 의미있는 것을 인생에 하나 남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뿌듯했죠."

한 번 사경에 2~3개월 걸려…어느새 70여점
'降伏其心'-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
작업하다 막힐 땐 108배로 잡념 씻고 집중
작품 모양 크기 제각각 글씨체도 매번 달라
상내지않으려 낙관 대신 '불심' 두 글자

<금강경>의 여러 글귀 가운데서도 김복수 선생을 가장 사로잡은 매력적인 문구는 '항복기심(降伏其心)'이다.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이 말이 가슴 속에 와 박혔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다. '항복기심' 해야만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응무소주이생기심 應無所住而生其心)'이 가능했다.

삶의 화두로 삼았다. 지금도 어디서 휘호 부탁이 오면 곧잘 '항복기심'을 써준다. 항복기심 네 글자에 <금강경>의 선지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한 획 한 획 그으며 가진 필력을 전부 쏟아 붓는다.

<금강경>을 매일 매일 쓰다보니 몇째 줄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머리 속에 다 들어왔다. 그래도 틀릴까봐 한자 쓰고 보고 한자 쓰고 보고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한다. 20년 간 종이가 닳도록 들여다본 <금강경>에는 색색의 연필로 그려진 자국이 남아있다. <금강경>을 쓸 때마다 구성과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자라도 놓칠까 일일이 표시해 놓은 자국이다. 책에도 먹물이 잔뜩 배어들었다.

70여 점의 <금강경> 사경 작품들은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다. 순금을 녹여 10폭 8폭 병풍을 작업해 놓은 것도 있다. 일관되게 이어간 것은 <금강경>에 담긴 글이고 사상이었다. 원 모양의 사경작품은 일원상을 생각하며 작업했고 연꽃을 연상하며 팔각형의 화선지에도 썼다.

한 작업을 마치면 다음 사경은 어떤 모양과 크기로 어떤 글씨체를 선택해 쓸까를 생각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힘든 줄을 몰랐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세필로 써내려간 <금강경>들은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정교하다.

"나이 60이 넘어서야 오른쪽 어깨가 아주 힘들어졌구나 하는 실감이 올 뿐이었지 한참 사경에 몰두했을 때는 아프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다"는 김복수 선생은 자신의 사경에는 낙관을 찍지 않는다. 대신 '불심(佛心)' 두 글자만 남긴다. 거창한 낙관으로 상내는게 싫어서다.

틈틈이 <금강경> 사경에만 매달려 있다보니 가정관리에 소홀해지기도 했다. 그 빈틈은 부인 조옥순 여사가 채웠다. <금강경> 사경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뒤에서 부인은 싫은 기색 한번도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만 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집안일 한번 제대로 못 도와준 부족한 아버지요 남편이었는데 가족들 모두 제게 불만을 가지기보다 몰두하는 불심만을 받아들여줬어요."

앞으로 보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김복수 선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또다른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가슴을 울렸다.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강경>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을 꼭 읽으세요."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펴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기 간 : 3. 17 ~ 4. 24. (매주 금 ~ 일)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참가비 :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 17 ~ 4. 23 매주 금 · 토 · 일)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매주	금	19:00	저녁예불	월 정 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토	04:00	새벽예불 / 염불정진	
		05:00	경행(전나무 숲) / 아침공양 / 운력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동·서·남·북대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석	월 정 사
		19:00	저녁예불	상 원 사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일	05:00-06:00	경행(한암 · 탄허대종사 부도탑)	
			아침공양	
		09:00-10:30	참법 및 포살	중대사자암
		11: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적멸보궁
		12:00	서원 및 회향	적멸보궁
4. 24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대법륜전
		10:40	한암대종사 탄신재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12:30	'한국불교와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0시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向' 학술세미나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 033)332-6664,5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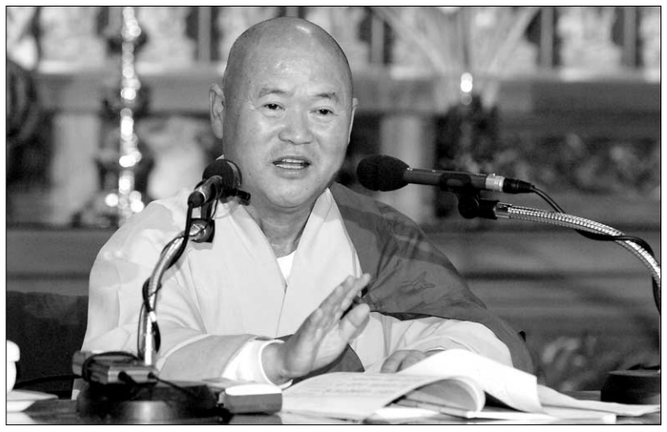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 현대불교신문사

空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수행의 귀감

특강-한암대종사와 금강경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원장)

3월 31일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세 번째 주제인 '한암대종사와 금강경'에 대해 강의한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장)은 "평생 동안 터럭만큼도 틈이 없는 엄격함을 보인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각 스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주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은 3월31일 월정사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에서 "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오대산은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도량입니다.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스님을 시봉했던 제자들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한암 스님의 생애, 정신, 면모 등을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한암 스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대산 스님들이 남쪽 지방의 선방에 내려가 수행정진하기 위해 어른스님에게 인사를 하면, '어디서 왔는가?'란 질문을 받습니다. '오대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른스님들은 오대산 스님들을 인정합니다.

오대산 출신 스님들은 어디에 데려다놓아도 제 몫과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지요. 그것이 바로 한암 스님이 주창한 승가오칙(僧伽五則)에 근거한 것입니다. 스님이 되면 다섯 가지 분야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선으로써 지혜를 얻어 구경성불의 기틀을 세우고, 염불로써 중생구제의 뜻을 세우게 했으며, 간경으로써 바른 정견을 곧추 세우게 했고, 의식으로써 윤리의 사표가 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가람수호로써 불교토장엄의 원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누구든지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 교육풍토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노래든 춤이든 체육이든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교육법은 다른 분야에는 쓸모가 없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교육방법이 옳은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고, 어느 분야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자세라고 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오대산 기운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도 막힘도 없어야 합니다.

한암 스님과 관련된 일화 한 자락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암 스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쉰 살쯤에 서울 봉은사 조실을 끝으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선 수행에 몰두하셨지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에 밀려 흔적도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된 근대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허 선사의 원력이 한암 스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치 틈 없는 엄격한 수행가풍

경허 선사의 수행가풍을 이어받은 한암 스님이 어느 추운 겨울 날, 상원사에 있을 때 노비구니 스님이 적멸보궁 참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날이 저무는지도 몰랐던 노비구니 스님이 간신히 상원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날이 춥고 어두워, 원주스님에게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 고 청했지요. 그래서 그 원주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물었는데, 한암 스님이 일언지하에 "내려가라!"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한암 스님은 "사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밝은 날에 내려갔을 것이다. 만약 노비구니 스님이 기도를 잘 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신심과 기도가 깊으면, 호랑이 만날 걱정도 추위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길을 나서면 길을 밝혀 줄 것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고 했습니다.

경전에서도 신심이 깊으면 물에 빠져도 물에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암 스님은 또 "수행자가 밤이 무섭고, 추위가 무섭다면 쓸데없는 수행자"라며 단호히 내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터럭만큼도 틈이 없는 엄격함을 보여준 한암 스님의 수행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부처님의 말씀인 <금강경>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한암 스님의 일생 면면에 엄격함 속에서 따뜻함이 있고, 부러움 속에서 강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정신과 한암 스님의 수행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금강경>은 뜻을 알든 모르든 신도들은 수없이 독송합니다. 조계종단에서는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의경전이란 것은 이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부모님처럼 <금강경>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국불교에서 <금강경>은 부모와 같은 경전입니다.

"마음의 흐름 알아차려라"

불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입니다. 남방은 소승, 북방은 대승이라고 합니다.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원형대로 전해지기를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탁발행렬이지요. 생활모습도 부처님 당시 그대로를 추구합니다. 북방불교는 부처님의 사상적인 면은 시대별로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금강경>은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면모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대승시교(大乘始敎)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마음의 흐름을 딱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와 문답으로 쉽게 말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질문은 수보리존자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쓰며 항복받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이후에는 27번 걸쳐 의심하고 답변하는 내용들로 돼있습니다.

그럼, 보리심을 발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세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광대심(廣大心)입니다. 한량없는 넓고 큰 마음, 즉 '일체중생을 내가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제일심(第一心)입니다.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는 했다'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부도심(不度心)'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도, 제도된 일체중생도 없는 마음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만든 만다라를 그려 완성한 뒤, 순식간에 집착 없이 빗자루로 쓸어 없애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그릇에 무엇을 담았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순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바라밀 실천하는 불자되자

이렇듯 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 '견(堅:금강처럼 견고함)', '예(銳:칼처럼 예리함)', '명(明:진리의 밝음)' 등과 일맥상통합니다. <금강경> 자체가 '능단금강(能斷金剛)'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도 능히 잘라내는 금강이라는 의미이잖습니까? 한암 스님의 일생과 수행가풍은 이처럼 불의와 시비 등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진리의 칼'이었습니다. 진리탐구에 몸을 사리지 않았고, 온갖 권력에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의 정신이 스님의 수행에 냉철하고 투철하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공의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수행자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선문답21조'에서 가려뽑은 마음공부법

생전에 언설을 특히 경계해 법어집조차 남기지 않았던 한암 스님. 그렇기에 선의 본질과 수행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한 <선문답21조>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선문답21조>는 한암 스님이 금강산 만일암에서 선원을 개설하고 후학을 지도할 때, 결제중이던 비구 이력 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는데, 스님이 열반한 다음 후학들이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한암 스님의 선사상을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논술한 <선문답21조>는 일상을 사는 재가자들의 마음공부에 훌륭한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참선은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달마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다. 도가 곧 선이다. 선은 곧 중생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중생심에는 청정한 마음과 물든 마음이 있다. 청정심은 사람의 바른 길이요, 물든 마음은 사람의 험한 길이자 불구덩이다.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가 바른 길을 버리고 편안한 집을 비워둔 채 험한 길로 나아가며 불구덩이에 빠져 만겁의 괴로움을 받겠는가?

▲참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일단대사(一段大事)의 인연을 밝히고자 한다면,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이며 구경(究竟)에 다름이 없음을 믿어서 철저하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비록 만겁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大道)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초심(初心)을 지녔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진실한 참구가 되는가?

-상근기(上根機)의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하나의 기연과 경계에서 이를 잡아 곧바로 사용하므로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만일 참구를 논한다면 마땅히 조주의 '무자(無字)',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동산의 '마삼근(麻三斤)' 등 맛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쇠 소에 앉아 주둥이를 박지 못할 곳에까지 몰입하듯 해야 한다. 만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끝 만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동하면, 옛 사람이 말한 "잡독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 했으니 학인이 가장 먼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실히 참구했다면, 어떠한 것이 여실하게 힘을 얻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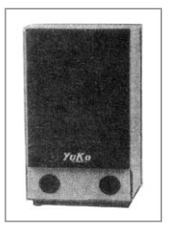
-옛 스님이 말하기를, "힘이 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화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짐에 이르러서야 육근(六根)의 문이 자연히 툭 열리어,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평탄하고 평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투사되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터럭 끝만큼이라도 지각의 마음을 내면 순일한 오묘함이 끊어져서 대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장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5. 1
월 · 화 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롯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주)천성건설
공사개요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품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납골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재갑
(株)天星建設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화엄산림-제3강(15~22품)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깨닫고 싶거든 괴로움부터 자각하라

4월 1일 열린 화엄산림 세 번째 법사인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은 〈화엄경〉 15~22품 강설에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 보리심을 내면 삶이 바뀐다"며 "'나'라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득하고 머물 때, 진정한 초발심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지운 스님의 〈화엄경〉 강설내용을 정리한다.

오늘 법문할 부분은 〈화엄경〉 '15품 십주품(十住品)'부터 '22품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까지 입니다. 우선 '십주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깨달음 속의 삼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할 뿐입니다. '십주품'에서는 열 가지 머무는 곳(住處)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발심주(初發心住)'는 보리심을 처음 일으켜 머무른 단계입니다. 여기서 '머물 주(住)'자는 그냥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공(我空)을 성취해 머무는 자리입니다. 보리심이 일어난다 함은 아공이 됐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리심에는 범부와 성문 · 연각, 그리고 보살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살이 일으킨 보리심을 '진발심(眞發心)'이라고



월정사 화엄산림에 참가한 200여 사부대중이 지운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하죠. 발심 앞에서 초(初)자가 붙어 초발심입니다. 이 경지는 아공(我空), 즉 인공(人空)의 단계입니다.

그럼 발보리심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깨치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마음의 근저에는 고통에서 떠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리심을 내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인식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자리(自利)보리심'입니다. 여기에 이타의 보리심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자리보리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인 '이타(利他)보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허 스님이 풀이한 〈원각경〉에서 깜짝 놀랄만한 구절을 봤습니다.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일어나면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면 정각을 이룬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일으키는 보리심, 둘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리를 깨쳐야겠다는 보리심, 셋째는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워 스스로 일으키는 보리심, 넷째는 나보다 이웃 사람들과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으키는 연민심으로 내는 보리심, 마지막은 불법이 파괴되거나 그런 조짐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일으키는 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은 부처님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발보리심 그 자체가 부처님의 법을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보리심을 요즘 말로 하면, 수행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괴로움인 거죠.

발보리심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초발심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초발심주'는 실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육체가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역시 자아가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체득할 때 일어나

> 진리 깨치고자 보리심 내면
>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 보리심은 수행의 동기입니다
>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 수행하려는 의지를 만듭니다

는 참다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아공을 체득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십주의 경지가 바로 이타의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이 닦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원효 스님은 〈대품반야경〉을 인용하면서 '공의 뜻은 깨달음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공은 무(無)가 아닙니다. 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연기(緣起)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관계성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볼 때, 중생에 대한 연민심도 보리심도 일어나게 됩니다.

'십주품'에서의 '주'는 바로 아공 · 인공의 공성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심도 공에 자각에서 일어납니다. '나'라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득하고 머물 때, 진정한 초발심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등도 십주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초발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월정사 화엄산림 세번째 법사인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은 "'나'라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득할때 진정한 보리심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범행품(梵行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행의 '범'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범행품'에서는 수행방법과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핵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품'은 정념천자(正念天子)가 법혜(法慧)보살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핵심은 '깨끗한 행위이자 번뇌가 없는 범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관찰 내용결과에 대해 '범행품'은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데 집착할 것이 없으며 법에 머물 것이 없다. 또 과거는 이미 멸했고 미래는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는 고요하다.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을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과거는 멸했고, 미래는 이르지 않았으며, 현재는 고요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중요할까요? 만일 화가 났다면 어떻습니까. 또 화냄이 자기 삶의 전부일까, 아님 부분일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화내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뿐이지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40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40년을 자기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화내는 것도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40년은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40년은 자기 삶이 아니지요. 거짓입니다. 현재 이 순간, 살고 있는 자신이 전부입니다. 40년은 과거이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40년일 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미래를 추상하는 그 마음도, 과거를 기억하는 그 마음도 현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상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기억이고 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면, 과거를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한 까닭이 이 때문이죠.

'범행품'에서도 '범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에 대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이 순간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면, 화는 현재 이 순간에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없어 과거가 아니고, 미래는 오지 않아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에, 화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지금의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한 생각이 자기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범행품>에서 핵심이 되는 이치입니다.

열 가지 법을 관찰해 범행을 성취하는 데 있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을 탁 내는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과연 가능한 말일까요?

이유에 대해 법혜 보살이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써 서로 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며,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처음 발심할 때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얻어 일체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아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의 성품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언하대오(言下大悟), 즉 '말끝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범행품'을 읽고 정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품의 핵심은 처음 마음을 냈을 때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치고자 마음을 냈을 때 도대체 얼마나의 공덕이 있을까요? 여기의 공덕에는 내적 성찰이 있습니다. 수행의 결과를 공덕이라 합니다. 깨달음의 다른 모습이 공덕인 셈입니다. 보리심을 내고 수행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면 우리 삶 자체가 바뀝니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 보리심을 내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을 송두리째 전환시키게 합니다. 보리심을 낸 결과입니다. 보리심은 수행의 동기가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수행을 하려는 의지를 만듭니다. 둘째는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는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행은 바로 그 욕망을 조절해 좋은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괴로움의 자각 즉, 동기부여이자 깨침의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산란심이 일어나지

>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니
>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않습니다. 넷째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절망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무진장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품의 이름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창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藏)은 기억과 앎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진장에서 신장(信藏)은 믿음, 계장(戒藏)은 계율, 참장(慙藏)과 괴장(愧藏)은 부끄러움, 문장(聞藏)은 법문 듣는 것, 시장(施藏)은 보시, 혜장(慧藏)은 지혜, 염장(念藏)은 알아차림, 지장(持藏)은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변장(辨藏)은 경전과 논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열 가지 무진장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마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억하고 저장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다는 것을 마음에 확고하게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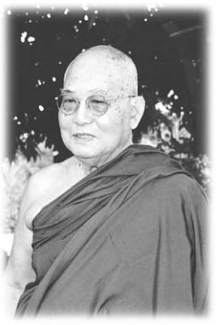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세계적인 위빠싸나 큰 스승 우 빤디따 사야도
초청 명상 수행 안내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타에서는 봉인사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위빠싸나 수행의 큰 스승이신 빤디따라마 쉐다웅꼰 사야도지(우 빤디따 사야도)를 모시고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2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수행 기간 동안 교학과 수행이 높으신 우 따마네죠 사야도와 두 분의 세얄레이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야도지와 함께하는집중 수행은 마하시 방법의 위빠싸나 명상 수행이며 위빠싸나 수행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임으로써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시며 또한 자애로우신 사야도지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귀한 기회이오니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 센타 · 봉인사 합장

1. 수행 기간 : 2006년 4월 15일 - 5월 26일(42일간)
2. 수 행 처 : 봉인사 (www.bonginsa.net, 031-574-5585)
3. 접수일과 접수처(문의) : 3월 14일 - 3월 31일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타
전화 : 02)2235(2232)-2841 / 이메일 : byunsh1@hanmail.net
http://www.panditarama.com

※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써 선업 공덕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6> 참선의 세 가지 요건

믿음 분심 의심 세 요건 갖춰야

하나라도 빠지면 쓸모없는 깨달음

화두 참선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한 점 의심도 없이 믿고서 화두와 하나가 되는 선정 속에 들어가야 한다. 조그마한 틈도 없이 끊임없이 화두를 참구해야 하는 이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선하는 문중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화두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알고 보면 온갖 의심이 오직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하나의 의심이 해결되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선가귀감> 14장에서는 <선요>의 내용을 빌려와 화두를 공부할 때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인 큰 믿음, 큰 분심, 큰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參禪須具三要 一有大信根 二有大憤志 三有大疑情 苟闕其一 如折足之鼎 終成廢器.

참선 공부에는 모름지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큰 믿음이고 둘째는 큰 분심이며 셋째는 큰 의심이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다리 부러진 삼발이 솥과 같아서 암만 열심히 공부해 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나오신 뜻은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으니, 이를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중생은 먼저 생사의 뿌리와 부처님의 세상을 알아야만 한다. 선종에서 '수행자는 선지식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이다.

선지식을 만나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깊어야 한다. 스승을 믿는 마음과 그 분의 가르침은 연결되어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한다. <기신론>에서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온갖 법의 근본을 믿는 것이니, 진여(眞如)인 깨달음을 즐겨 생각하라는 것이다. 둘째 부처님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늘 부처님을 가까이 받들어 모시면서 착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다. 셋째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늘 모든 보살행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스님들은 바른 수행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 줄 것을 믿는 것이니, 늘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을 기꺼이 가까이 하고 실다운 행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탁한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수정주(水精珠)처럼 중생의 온갖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보살본업경>에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품안에서 믿음을 근본으로 삼아라." 하였고, <지도론>에서 "큰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법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였으며,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道)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였다. 중생에게 생사를 해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믿음을 바탕으로 장부의 뜻을 세워 열심히 화두를 챙겨야 한다.

참선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스승과 화두에 대한 가르침에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 믿음은 수미산과 같아서 공부하는 길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둘째 요건은 화두를 타파하고자 하는 큰 원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 원력은 부모를 죽인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바로 두 동강내려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공부를 마쳐야 하겠다는 큰 분심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는 사악한 일을 마구 폭로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의심, 곧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

화두를 공부할 때 이 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반드시 정해진 날짜안에 공부를 이룰 수 있다. 화두가 독 안에 든 자라와 같아서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 화두와 하나가 된다. 반대로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삼발이솥과 같아서 끝내 어떤 깨달음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부처님께서 '성불하는 일에는 믿음이 근본이다'라고 하셨고, <증도가>에서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으며, <몽산법어>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병'이라 하고 또 '크게 의심하는 데서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선어록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요>의 저자 고봉(1238~1295) 스님도 게송으로 말한다.

急水灘頭 泊小舟 切須牢把 者繩頭
驀然繩斷 難廻避 直得通身 血送流
萬法歸一 一何歸 只貴惺惺 着意疑
疑到情忘 心絶處 金烏夜半 徹天飛.

거센 물살 여울목서 멈추려 하면
배의 닻줄 단단하게 묶어놓아라
별안간 줄 끊어져 뒤집혀지면
온 몸에서 피가 터져 솟아 나오리.
온갖 법이 한 법으로 모아지는데
이 한 법은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깨어 있는 의심만이 오직 귀할 뿐
마음 길이 끊어진 곳 도달해보면
밝은 태양 한밤중에 빛을 발하리.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연꽃

'이 세상 살아가길 허공처럼 하라.
저 연꽃이 진흙물에 때 묻지 않듯
그렇게 집착 없이 살아가거라.' <석문의범>

연꽃이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비록 중생들이 온갖 더러운 환경 속에 살더라도 마침내는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사실 연꽃은 불교 훨씬 이전에 인도신화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만큼 불교 등의 종교에 인연이 깊은 게지요.

연꽃이 갖는 불교적 의미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성화(聖花)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성(佛性)'이라고 합니다. 더럽든 깨끗하든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도 그렇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자 부처님의 모습이며 나 자신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7강 불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선거판에 나가야만 정치인가

어쩌다, 명동의 한 진보적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유교였지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열어가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맛보기 사설부터 늘어놓자면, 주제는 신학이었습니다.

신에게 얼굴이 있을까

유교도,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신학의 일종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태극(太極)이나 리(理)는 신에 해당합니다. 주자는 "리가 있어 천지가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붕어빵처럼 뒤집어 낸 것이 리라는 것인데, 리는 이를테면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지배 절대자입니다. 여기서 리나 태극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맞먹는 위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신의 얼굴입니다. 기독교는 이 얼굴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해, 유교는 천만에, 그 신은 얼굴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의 주인은 사람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교는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이지요.

저도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착각, 혹은 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참, 불교처럼 모든 사람이 신성을 갖춘 여래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다음 시간, <금강경> 5장에서 다시 떠들기로 하겠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으니, 세상은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참, 불교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은 미리 짚어두어야겠습니다. 불교는 이 세계의 고통과 윤회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느라, 이런 희론(戱論)에 대해서는 붓다 초기부터 무관심했고, 나아가 꺼리던 바였습니다. 어떤 궁금 많은 학생 하나가 "세상은 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시간은 무한하냐,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를 물었을 때, 붓다는 예의 그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대답은 말하자면, "끼놈, 그렇게 한가한 세상이더냐. 너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사유도 여기 지금의 삶을 기획하고 방향 잡는 실존적 선택에 크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작 따로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질문 끝에 앞에 앉은, 강단 있는 풍모의 노인 분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조는 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변혁을 주도해온 것은 기독교였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이룩해 온 근본 공은 기독교에 돌려야 한다. 유교와 불교는 여기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는 형편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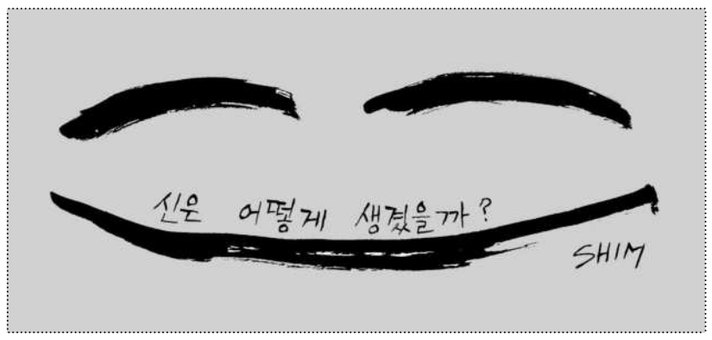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말렸습니다. 계속하게 하시라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크게 기여한 바 없습니다. 유교는 본래의 문화와 관습의 흔적들을 지키는데 급급해 보수적이었고, 불교는 개인적 관심에 치중하고, 또 다분히 기복적이라서 사회의 집단적 변화에 수동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공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을 떼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세기적 상황입니다. 문제는 21세기, 앞으로입니다. 권위와 저항의 대립 시대는 지났으니, 앞으로의 화두는 개인의 삶과 일상의 관계일 것입니다. 거대담론과 정치의 시대는 퇴조하고, 문화와 놀이가 봇물로 소통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여, 21세기는 유교와 불교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또한 이념과 당위의 도그마를 권위적으로 설파하는 역사신학보다, 개인의 영성과 각성에 주력하는 영성신학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혁명으로 여는 사회변화

시절 인연이란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적이고 유교는 일상적입니다. 둘 다 거시적 사회 변화를 집단적으로 주도하는 데는 서투릅니다. 여기 이유도 있습니다. 둘 다 공히, '개인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어떤 행동도 오염과 타락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불교는 개인의 자각을 이루어야 할 전부로 보고, 유교는 언필칭 말하듯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즉 개인의 인격과 덕성의 성취 없이는 가정의 평화에서, 사회 개혁까지가 도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순진한 비사회과학적 발상이라고 매도당해왔으나, 21세기에는 그것이 진정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불교를 배우고, 접하는 것이 결코 낡았거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21세기 첨단에 있는, 가장 새롭고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 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우리는 선우>에서 '제가 만난 불교'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불교의 힘으로 홀로 핏덩이 4남매를 키웠고, 집을 팔아 나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회적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내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 인고의 세월을 불교가 있어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만일 불교가 아니었다면 20년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구도 그렇지만 삶에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삶의 기술(ars vitae),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삶을 대하는 근본태도야말로 우리가 배워야할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그 성숙의 향기는 1차적 삶의 공간인 가족과 일상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직업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로 번져나가 '세계를 꽃 한 송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일의 작고 큼에 따라 원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수 장국 잘 담그는 손이 수제비도 잘 뜬다"고 했던가요. 만법귀일(萬法歸一), 변하는 것은 관계의 양상이고, 규모이지, 근본은 그 관계의 태도 하나로 귀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치판에 참가하지 않는 거요?" "집안이 화목하고, 이웃과 잘 사귀면 그게 정치지, 꼭 선거판에 나가야만 정치겠소?"

불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성도 중요하고,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듯, 불교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을 알고는 있어야하되, 너무 매도 분위기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사찰의 운용이나 종단의 기획력, 불교의 사회적 발언권 등에 대해 아쉬운 점이 어디 한 둘 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마음과 태도 속에 살아 있는 불교를 도타이 북돋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한 법입니다. 그것이 돈교의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구체적 관계 속의 불교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주제넘었습니다. 합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여행중인 수도승 두명이 어느 읍내에 다다를 때였어.
가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지.
젊은 수도승은 그 여인을 물그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말 없이 걸어서 지나갔어.
그런데 나이 든 수도승이 재빨리 여인을 데리러 가서 등에 업더니
물웅덩이 반대편에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두 수도승은 계속 길을 갔지.
몇시간후 젊은 수도승이 말을 꺼낸거야. "아까 그 여자는 무례하고 이기적이었어요"
나이 든 수도승이 대답했지.
"나는 그 여인을 벌써 몇 시간 전에 내려주었다네. 그런데 자네는 왜 아직도 등에 업고 있나?"



달을 줄걸 그랬어
존 무스 글 · 그림 | 이현정 옮김
달리 | 9500원

2006년 칼데콧 아너賞 수상한 존 무스의 禪 이야기

2006년 칼데콧 아너상(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책 상) 수상에 빛나는 존 무스의 걸작 그림책 <달을 줄걸 그랬어> '무거운 짐' 편의 내용이다. '무거운 짐'은 애디와 마이클, 칼 등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판다곰인 '평심'이 찾아와 칼에게 들려준 과거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어느 수도승의 이야기이다.

판다곰 평심이는 이어 마이클에게도 행운이란 성급히 판단하거나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농부의 교훈인 '농부의 행운'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애디에게는 내집을 털러온 도둑에게 한 벌 뿐인 옷을 선물로 준 가난한 남자에 대한 '라이 아저씨와 달' 이야기를 해준다.

평심이의 세가지 이야기는 모두 수백년간 전해 내려온 동양의 고전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준다.

존 무스는 살아 있는 듯 생생한 수채화와 우아한 잉크 스케치를 통해 교훈과 사랑으로 가득한 풍부한 상상력을 그려내고 있다.

존 무스의 선 그림책은 드러내 놓고 교훈을 일러주거나 삶의 지침을 설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오면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림책을 통해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일본의 무주선사의 시에서 뽑아낸 '라이 아저씨와 달'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보면 선이란 짧은 명상이자 천천히 풀어나가야할 생각, 직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날카롭게 다듬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아저씨는 도둑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악수를 하셨어.

"어서와요! 반갑소! 이렇게 찾아주니 어찌나 고마운지!"

도둑은 무슨 말이든 해보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말도 떠올리지 못했대.

그런데 라이 아저씨는 어떤 손님이든 빈손으로 돌려 보내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도둑에게 줄 선물을 찾아보려고 그 작은 오두막을 둘러보셨어.

그런데 줄만한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아저씨는 하나밖에 없는 자리옷을 벗으셨대.

낡고 해진 옷이었지.

"여기 있소."

아저씨가 말했어.

"부디 이걸 가져가시오."

도둑은 우리 아저씨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도둑은 그 옷을 받아들고 쏜살같이 문밖으로 달려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아저씨는 가만히 앉아 달을 보셨대.

은색 달빛이 고요히 산 위로 쏟아지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지.

"이런...."

아저씨는 안타까워 하셨어.

"고작 해진 옷 한 벌을 돌려 보내다니. 이 아름다운 달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습관, 바라는 소원, 늘 하는 생각, 두려움을 재점검하도록 하여 짜릿한 자극을 주는 것이 이책의 속맛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존 무스. 그는 "부처님의 명상법은 정신을 가다듬고 고요히 앉아 한 가지 생각을 먼저 떠올린 뒤 또 다른 생각이 뒤따라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어떤 생각에도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마음이 출렁이고 요동친다면 진짜 세상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값비싼 커피가 잘 팔리는 이유, 맛 때문?



경제학 콘서트 웅진씽크빅 팀하포드 지음

최근 뉴스에 커피 전문점 커피 한 잔의 원가에서 직접비는 10%에 불과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90%의 나머지 비용은 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의 비싼 커피가 잘 팔리는 이유는 바로 그 비싼 커피를 잘 팔 수 있는 공간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그래서 임대 주인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학 책을 피해 왔다면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 있는 것인지를 체험했으면 한다. 각 장마다 일상의 일과 연결하여 경제이론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으며 각 이론들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학 관점을 독자에게 선물 해 준다.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가격 책정 고수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결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유기농 식품이다. 이들은 유기농 식품이라는 고결한 접근을 통해 자연스레 가격을 올려 일반 식품보다 더욱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희소성의 가치가 이런 고이익의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 식품이 제대로 된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희소성이 소멸되어 갈 때이다. (shbaek77, www.kyobobook.co.kr)

젊은 그들, 2000만원으로 부자가 되기까지



한국의 젊은 부자들 토네이도, 박용석 지음

한국의 젊은 부자 176명의 성공 투자 전략을 심층 분석해 놨다. 하지만 부자들의 노하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따라한다고 누구나 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선배 부자들의 노하우와 경험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고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책에서 부자들은 2000만~3000만원의 적은 종자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종자돈이 많다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다. 종자돈을 위해 저축하고, 저축된 것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선배 부자들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한국의 젊은 부자들'을 심층분석해서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책이 이래서 좋다. 많은 지식들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 주니깐. 선배 부자들이 했던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투자해야겠다.(ysjeong03,book.naver.com/bookdb)

책속의 밑줄긋기



○…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딱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라. 모든 미래 준비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출발한다.

'10년 법칙'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신이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 경쟁자들과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느냐이다.

앞으로 차별화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뚜렷하게 자신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면 자본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 절대로, 절대로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입사 이후 10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구호다.

–<10년 법칙(명품 인생을 만드는)> 152~153쪽에서, 21세기북스, 공병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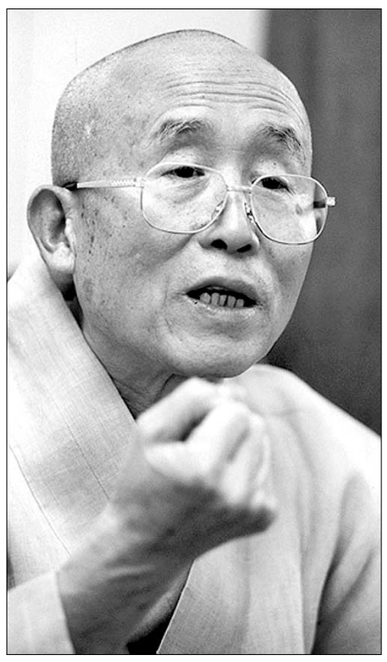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주원료 :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메실 추출즙 액상, 곡즙 추출혼합물
폴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증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자 죽염 판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솔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체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월운 스님.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 10년 작업”

‘화엄청량소초삼현 유망기 · 잡화기’ 발간한 월운 스님

메모 형태 교과지침서인 사기
능엄학림 2 · 3기 학승들과
매일매일 수업 진행하며 정리

최근 <화엄청량소초삼현 유망기>와 <화엄청량소초삼현 잡화기>를 발간한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스님은 조선 후기 교학의 중심이었던 <화엄경>의 소초를 발굴해 정리하는 작업을 10년째 해왔다.

스님이 10년불사로 강사가 평생을 강원에서 강(講)한 뒤 후배 강사들에게 물려준 메모형태의 교과지침서인 사기(私記)를 정리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좋은 문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

스님은 “한국불교가 선중심이다보니 경을 몰라도 되는 분위기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달밤에 체조하듯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사기는 어려운 <화엄경>의 경우 현담(玄談), 삼현(三賢), 십지(十地), 후분의 한 부분만 기록돼 있으며, 글자도 초서로 되어 있어 해독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운 스님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스님은 취득한 사기저본을 젊은 스님이 컴퓨터로 정서해 주면 학인들과 그것을 놓고 그날 그날의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오탈자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발간된 책들은 3년 연한인 능엄학림 2 · 3기 학승들이 6년동안 공부한 성과물이기도 하다. 스님은 ‘전문 경사(經師)를 양성해 보자’는 취지로 1996년 봉선사 능엄학림을 개원했었다.

유망기와 잡화기를 발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완본을 구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60년대 초 당시 주지로 있던 해남 대흥사 박응송 스님이 소장했다는 인학 스님이 쓴 잡화기 저본을 찾아 서울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담양으로 경로를 찾아갔다.

끝내 전남 담양 용흥사 주지인 진우 스님에게서 일자권부터 관자권까지 거의 전질이 갖추어진 잡화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유망기의 저본은 동국대 도서관에서 찾아냈다. 이 유망기는 내용이 친절할 뿐 아니라 필사가 정확하고, 천자권부터 상자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특징.

스님은 저자가 연담노사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동사열전 연담조 저서중에 화엄유망기 5권을 지었다 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 발간된 유망기와 잡화기는 삼현 즉 초회 육품(세주묘엄품,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엄세계품, 비로자나품), 제2~3회 육품(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게찬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제4회 사품(승야마천궁품, 야마궁중게찬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제5회 삼품(승도솔천궁품, 도솔궁중게찬품, 십회향품)등 42권 34책이 수록되었다.

한편 능엄학림은 그간 <화엄경과도집> <현담유망기> <현담발병> <현담현담기> <십지유망가> <십지잡화기>를 간행한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화엄청량소초삼현 유망기
화엄청량소초삼현 잡화기
동국역경원 | 봉선사능엄학림 | 각권 2만원

“無我가 아니라 空我다”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민족사 | 성법스님 지음 | 9500원

“한국불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즉 무아(無我)란 말을 앞으로는 공아(空我)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아와 윤회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무아에 대해 ‘그것은 없다’는 무가 아니라 있고 없고를 넘어선 공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無)‘자를 ’공(空)‘으로 바꿔쓰면 되는 것입니다.”

성법 스님(고양 용화사 주지)의 책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은 불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역설하며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스님은 이 책에서 ‘깨달음에 대해 물질을 떠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공(空)으로 받아들이는데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물질을 멀리하는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물질은 공이라는 것.

스님은 결과적으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연기법은 곧 공이고, 공의 체득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룸이고, 다시 궁극적인 깨달음은 자성이 없는 공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출간된 해설서만 100종이나 되는 <반야심경>. 이는 <반야심경>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법 스님은 “박학다식한 해설도 중요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머 넘치는 일화와 현대적 감각의 촌철살인의 인용문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책을 쓴 동기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책을보면 오히려 물리학 천문학 뇌과학 생명과학 심리학 철학 우주론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 불교의 핵심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원우 기자

탄허 스님의 ‘사집’ 개정판 나와



서장 · 선요 / 도서 · 절요 탄허 스님 역해 | 교림출판 | 각권 5만원

내전(內典)의 교과서인 서장(書狀), 절요(節要), 도서(都序), 선요(禪要)의 대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탄허 스님의 <사집(四集)>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은 <서장 · 선요> <도서 · 절요> 2권으로 정리됐다.

원래 전 4권으로 1976년 완간된 <사집>은 탄허 스님이 1939년부터 역해를 시작해 75년 탈고한 것.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 다소나마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바꾸고 책의 구성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전환했다.

<서장>은 남송(南宋)의 대혜선사가 당시 사대부의 물음에 답한 것으로 선문(禪門)의 간화선(看話禪)을 주장하여 조주무자화를 타파하면 성불한다 가르치고 있다. 또 묵조선을 공박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젖어 있는 속계의 인사들에게 선의 요체를 잘 말하고 있다.

<선요>는 원의 고봉선사가 참선의 요지를 잘 설명하였는데, 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구삼요, 투조관이 주안을 이루고 있다.

<절요>는 본래 규봉선사가 찬술하신 법집별행록을 고려 보조국사가 중요한 것을 뽑아내고 사기까지 넣었다. 그 내용인즉 사종(신수 · 홍주 · 우두 · 하택) 법을 밝히고서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고 사람에는 돈오와 점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도서>는 화엄7조 규봉종밀선사가 선원제전집 100권을 찬집하여 선장을 만들고 선교일치를 주장하는 동시에 선과 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비방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선교를 총망라하여 회통하도록 하고 있다.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정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요하는 일에 직면하면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었다’는 결론에 가닿을 때가 많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허물어지고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단절되고 만다. 아집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풀어주는 열쇠가 제시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이 풀이한 <보현행원품 강설>이다.

혜남 스님은 <보현행원품 강설>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의 건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나툼임을 믿고 중생들이 서로 믿고 예배하며 존경하고 찬탄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토임을 일깨우고 있다.

혜남 스님은 오래전부터 보현행원품을 수지 독송해 왔다. 화엄경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보현행원품 강설>은 옛날부터 가장 많이 독송되던 경전 중의 하나인 보현행원품에 제일 먼저 초를 달았던 청량징관 이후의 여러 가르침들을 참고로 혜남 스님이 새로운 번역과 해설을 시도하고 있어 새롭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뉜 강설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강주를 역임한 스님의 이력을 통해 터득된 지혜의 안목으로 보현보살십종대원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수행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라’ ‘부처님의 칭찬하라’ ‘널리 공양을 닦으라’ ‘설법하여 주기를 요청하라’ 등 보현보살의 열가지 커다란 바람(十種大願)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또한 책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보현보살님의 향훈에 흠뻑 젖게 만든다.

<보현행원품 강설>을 펴낸 혜남 스님은 동경 대정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중앙승가대학 불전국역원 원장, 불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통도사 전계사로 또, 통도사 율원을 책임지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혜남 스님은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지혜로운 선각자을 따라서 배우고 남 잘되기를 빌어주고 나누어 갖기를 가르치는 것이 보현보살의 실천행”이라며 “이렇듯 어찌 보면 너무나 쉬워서 무시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공양하고 원을 세워 바른 깨침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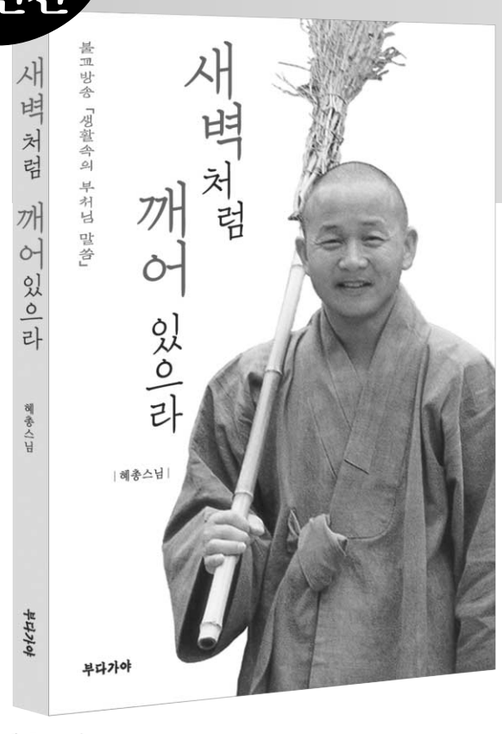
보현행원품 강설
혜남 스님 지음
부다가야 | 1만2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조화로운삶, 법정스님, 9800원
- **간화선(조계종수행의길)**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1만5000원
- **붓다의 나라, 미얀마** 운주사, 김형규, 1만원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총카파, 4만3000원
- **그래 떠나 보거라** 열린박물관, 혜안스님,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신간



혜총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12,000원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

부처님 닮아가는 참다운 행복의 길

원고를 펼쳐보니 혜총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느껴진다. 길지 않은 글 편편에는
중생계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가산 지관 伽山智冠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혜총스님 저서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출판법회

• 일시 : 불기 2550(2006)년 4월 17일 오후 6시 ~ 9시 • 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꽃도 너를 사랑 하느냐’ 10쇄 발행 3만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괘불탱 보며 불심 키워보자

통도사, 안성 청룡사 괘불탱展



석가모니 영산회상을 표현한 '청룡사 괘불'.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4월 3일~10월 28일 제5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감로탱 만을 모은 '감로'전으로 주목받았던 통도사가 괘불을 주제로 특별전을 하는 것이 벌써 5번째를 맞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보물 제1257호 안성 청룡사 괘불탱을 선보인다.

청룡사 괘불은 조선시대 1658년에 제작된 영산회괘불이다. 청룡사 괘불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인에 있다. 1653년 제작된 영수사 괘불의 도상을 모본으로 조성된 청룡사 괘불은 다른 영산회상도와 달리 유일하게 설법인의 수인을 한 것이 특징이다. 좌상형식의 영산회상도는 대체적으로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청룡사 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대칭으로 문수 · 보현 · 미륵 · 제화갈라 · 관음 · 대세지 등 6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 · 대범천왕 · 제석천왕 · 약사불 · 보승불 · 아미타불 · 부동존불 · 연등불 · 미륵불 · 4금강 · 용왕 · 용녀 등이 둘러서고, 하단에는 법을 청하는 사리불의 뒷모습이 표현된 군도형식이다. (055)382-1001

시 · 서 · 화 일체의 세계 화폭에



소설가 이외수의 수묵화.

영인문학관 '문인시각전2006'

서울 평창동 영인문학관(관장 강인숙)에서 4월 8~30일 열리는 '문인 시각전2006'에는 시인 수필평론가 등 여러 분야의 문인들이 총출동한다.

영인문학관이 문인들의 시서화를 모아서 전시회를 연 것은 200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6년 소설가 송영이 소설가 김동리에게 받은 글씨를 비롯해 월탄 박종화의 마지막 붓글씨, 김지하의 묵란, 이외수 · 황지우의 수묵화 등 180여점이 전시된다.

강인숙 관장은 "시 · 서 · 화 일체의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문학 · 서예 · 미술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문학이 가장 개성적이고 아름다우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독자와 마주서는 자리가 시 · 서 · 화 전"이라고 설명했다. (02)379-3182

전시장으로 봄나들이

상큼한 봄바람이 부는 요즘 화랑가에 전시바람이 살랑 살랑 불어오고 있다. 남쪽에서부터 통도사가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인도 세밀화 특별전이 열린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도 도일 스님의 서화전을 비롯해 문인 시각전 2006, 불교사진전, 사진작가 김홍희 개인전, 이상국 목판화전 등이 줄지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나섰다.
싱그러운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화랑으로 이 봄 온 가족이 다함께 나들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

몽골 등 미공개작 전시

김홍희 사진展 '푸른 방랑'



'2000 변산 새만금'.

양평 사진 전문 갤러리 '와(瓦)'는 4월 1~26일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개인전 '푸른 방랑'을 펼친다. <나는 사진이다> <법정 스님의 인도 기행> 등 몇몇 출판물과 정기간행물에서 발표됐던 김홍희의 근작들과 미공개 사진들을 정리하는 전시이다.

<암자로 가는 길>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방외지사> 등 불교적인 책들의 사진작업을 한 김홍희씨는 이번 전시에서 2년여에 걸쳐 인도와 몽골을 방랑하며 찍은 사진들 약 40여 점을 보여준다.

몽골의 청량한 공기, 아스라한 물안개가 피어나는 인도, 미칠 듯이 아름다운 서해 변산의 푸른 밤이 김홍희씨의 뷰파인더에 담겨 '푸른 방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의 카메라는 때로는 흔들리며 사람들을 관조하고, 때로는 자세를 낮추어 거침없이 그 안으로 파고들어간다.

김홍희씨는 1999년 사진집 <세기말 초상>으로 문예진흥원이 선정한 '한국의 예술선 2000'에 선정됐고, 2000년 한국의 이미지 메이커 500인 가운데 25명의 사진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02)379-3182



'2003 네팔 카투만두 몽키사원'.



인형들이 걸려있는 '2003 네팔 카투만두 몽키사원'.

역사 · 문화 생생히 표현

인도 세밀화 특별展(5월 7일까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김성범)이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소장 작품들을 대여해 '인도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4월 5일~5월 7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인도 세밀화 50점과 인도 민속품 35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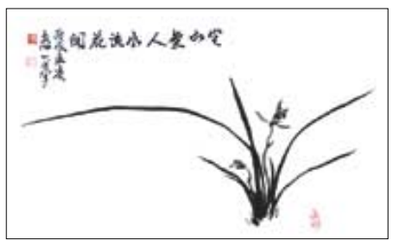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세계 불교문화의 원류인 인도의 역사와 문화, 생활 등을 그림으로 소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도 세밀화 특별전' 개최의의를 밝혔다.

'세밀화(細密畵)'는 인도와 페르시아 문화권의 회화로서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세밀'이라는 말에 걸맞게 작은 화면에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세밀화는 인도의 신화, 초상화, 궁정생활, 사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들이다. 인도 민속품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부대행사로 14일 오후 4시 '인도의 세밀화' 특별강연과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린이날인 5월 5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도세밀화 그리기' 등을 펼칠 예정이다. (061)270-2039



도일 스님 서화전(4월 15~24일)



양주 석굴암 중창 복원불사 및 초안 스님 사리탑 건립을 위한 서화전이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4월 15~24일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도일 스님은 불교경전을 비롯해 사군자, 달마도 등 서화 작품 160여점을 선보인다.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평생 석굴암 중창과 군포교에 몸 바쳤던 은사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1998년 입적한 은사스님의 사리탑도 이제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02)724-6322

이상국 목판화 '침묵의 소리' 展



이상국作 '기다림'.

현대판화계에서 가장 독자성이 짙은 목판화로 평가받는 이상국 선생의 목판화 30년을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관훈동 인사아트센터는 기획초대전 '이상국 목판화 1975-2006:침묵의 소리'를 4월 5~18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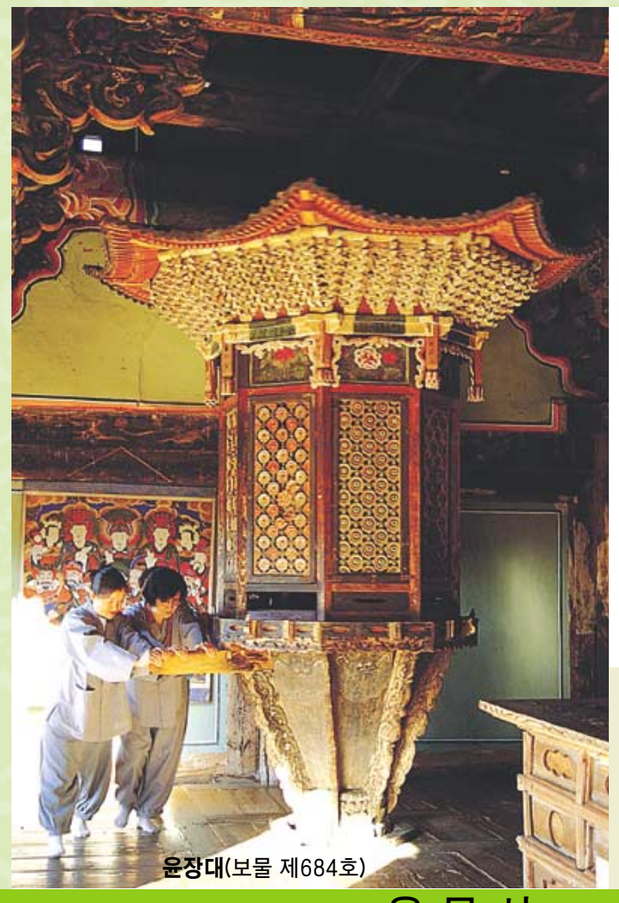
197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까지의 목판화 14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작을 담은 작품집 <이상국 목판화 1975-2006>도 발간한다. (02)736-1020

불교사진연합회 제11회 회원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전제우)가 제11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네 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구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4월 16~18일 서울 능인선원 대법당을 시작으로 19~25일 서울 갤러리 랜드, 5월 1~4일 서울 도선사 경내, 9~1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제5전시실에서 순회전시를 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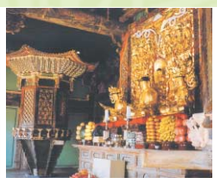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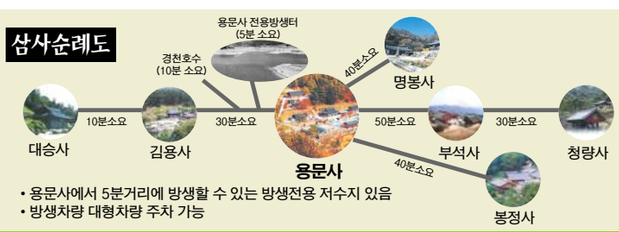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소나무 닮은 米壽의 소년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석산 스님 (서울 정법사 조실)



출간한 이후 염불수행을 놓지 않은 석산 스님은 8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대웅전 앞 소나무의 푸르름을 느끼게 한다.

석산 스님(石山 · 88)을 뵈러 간 것은 청명을 앞둔 이른 봄날 오후였다. 남쪽에는 때 이른 여름 날씨로 호들갑이었지만 삼각산 산중은 아직도 진달래가 겨우 꽃봉오리를 튀운 정도. 성북동 길을 따라 아스팔트 산길을 한참 오르니 아치형의 정법사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속진은 닿지 않는 듯 새들과 산짐승들이 기자를 먼저 반긴다. 청설모 한 마리가 재를 지내고 마당에 고수레로 내놓은 밀감 하나를 물고 날쌔게 소나무 꼭대기로 치달아 올랐다.

몇 해 전 상좌 법진 스님이 불사를 마친 대웅전 바로 옆에서 대략 40년쯤 되었다는 조실채가 어색한 조화를 이루며 비껴 앉았다. 그 앞에는 스님의 나이만큼 이 산을 지켰음직한 소나무 한그루가 버티고 있다. 대웅전 앞에 서면 범종각 너머로 서울 시내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어 산속에 자리 잡은 도심사찰의 묘한 매력을 느낀다. 그 사이로 역시 40년 전쯤 신도들의 시주로 세웠다는 '나무용화미륵존여래불' 입상이 5m 높이로 솟아 있다. 그 뒤로 아담한 산신각도 구색을 갖췄다.

석산 스님이 주석하는 조실채는 시멘트로 만든 낡은 슬래브 지붕에 녹슨 함석 처마가 세월을 말해주는 누옥이다. 요사 안으로 들어서면 좁은 나무마루를 사이로 침실과 작은 서재가 딸려있다.

서재에는 방금 전까지 붓글씨를 쓰시다 만 듯 벼루에 먹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다. 가지런히 놓인 지묵과 먹물을 닦기 위해 알맞은 크기로 잘라 차곡차곡 쌓아둔 휴지는 정갈한 스님의 평소 성격을 말해 주는 듯하다.

한가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괘종시계만 '똑딱똑딱' 거렸다.

얼마 전 미수를 갓 넘긴 노장은 나름대로 정정한 모습이었다. 마침 손수 머리를 다듬으셨는지 한손에는 면도기가 들려 있었다. 삭발을 했지만 속 피부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 스님 스타일을 고집하는 탓인 듯했다. 기자가 까닭을 묻자 부끄럽다는 듯 "멋이지 뭐"라며 허허 웃으신다. 아직도 장난기 많은 소년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건봉사서 魚山 배워 일가 이뤄

석산 스님은 17살 나이에 건봉사로 입산 출가했다. 전생의 인연이 두터웠던 탓일까. 스님은 당시를 "집이 싫었고 오직 중이 되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할 때"였다고. 건봉사에서는 강원에서 경을 보면서, 어장스님에게 염불을 배웠다.

"그때는 어찌나 신심이 나던지, 경전이든 염불이든 뭐든 한번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속속 들어왔거든요." 일단 머리를 깎고 나니 절집의 모든 것이 익숙했다. '만일염불회'로 유명했던 건봉사에서 '석산이 염불을 제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어산(魚山)을 공부했다. 염불은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데, 스님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목소리를 타고 난 덕분인지 조계종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산의 일가를 개척했다. 그러나 기력이 쇠잔해진 지금은 그저 옛일이다.

해방되기 전인 1944년 혜화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은사 보광 스님의 부름을 받고 서울 가회동포교당에서 노전소임을 맡게 됐다. 망월사 해인사 범어사 등에서 수행하던 중, 60년에 은사스님이 입적했다. 은사스님의 가회동포교당을 정리하고 삼형제 약수가 솟았다는 삼각산 복천암(福泉庵)자리에 절을 세우고 생전 처음 주지를 맡은 것이 지금의 정법사다.

염불 · 사경 그리고 소박한 공양

정법사는 조선의 옛 군사들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진지를 쌓았었다는 삼각산 구진봉(舊陣峯)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고급주택들이 즐비해 절 입구까지 도로가 났지만 40여 년 전 성북동은 아카시아 숲이 우거져 산 아래는 보이지도 않았다.

요즘은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군인들이 절 주위를 지켜주고(?) 있다.

스님의 건강비결은 규칙적인 일과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염불과 기도 수행의 힘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낭랑한 목소리로 염불을 시작한다.

"요즘도 빼놓지 않고 아침 예불은 <천수경> 한편을 외고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합니다. 저녁에도 천수경과 장엄염불을 하는데 대략 1시간쯤 걸려요. 그러나 빨리 하면 금방입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은 목소리는 안 나와요."

낮에는 잉크펜으로 대학노트에 빼곡히 <금강경>을 사경하고, 경내에 붙일 붓글씨도 손수 쓴다.

젊은 시절부터 소식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 반드시 하루 3번 공양을 거르지 않는다. 공양주 보살이 가져온 저녁 공양상을 얼핏 훔쳐봤다. 밥은 그릇의 1/3을 담았고 된장국과 도토리묵 두 조각, 배추김치 조금에 나물 두어 가지다.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진 저녁 5시 30분, 부목 처사가 종루에 올라 종을 울린다.

떠~엉~. 긴 공명(共鳴)이 도회의 중생들에게 퍼져나간다.

공양을 마친 스님은 어떤 주변의 소리에도 무관심한 듯 불편한 걸음을 이끌고 천천히 대웅전 주변을 포행하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정근에 몰입한다. 모진 풍상에도 변함없는 대웅전앞 소나무와 출가사문으로 미수(米壽)의 세월을 꼿꼿이 살아온 스님의 굽은 허리를 보면서 문득, 스님이 삼각산의 소나무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종의 '공명'처럼 스님의 염불소리가 무겁고 낮게 주변을 흔들었다.

스님은 대웅전 30바퀴를 돌고 천천히 부처님께 합장 반배하고 말없이 처소로 걸음을 옮기셨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소량의 정갈한 식사가 건강의 비결이다.



대학노트에 빼곡히 써내려 가는 <금강경>.

"시주물 허투로 쓰지 말라" 경책

석산 스님은 1919년 강원도 명주군(지금의 강릉)에서 태어난 석산 스님은 37년 건봉사서 보광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56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 수지했다. 평생 명예를 좇지 않고 염불과 기도로 출가자의 본분사에 충실했다.

상좌 법진 스님은 "80년대 중반 상좌와 인도 부처님 4대 성지를 다녀온 것 외에는 외국을 나가 본적이 없다"며 "평생 신도들의 시주가 허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하며 후납들을 경책했다"고 말했다. 77~9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성북동 정법사에 주석하고 있다. (02)762-0774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 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분별 놓을때 불성 드러나

석산 스님의 가르침

조주 스님이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한 스님에게 '무(無)' 라고 했답니다. 그 까닭을 아세요? 요즘 불자들은 이미 알음알이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근간인 선수행 전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서재 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걸려있는 편액 '신해행증(信解行證)' 은 선학원에서 이사장을 오래 했던 석주 스님이 40여 년 전에 써 주신 겁니다.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바를 바르게 행해야만 깨달음을 증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지는 머릿속에서나 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실천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바로 믿고 이해하고 행하라

조주 스님이 '무' 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닦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 불성이라는 건 닦을 것이 없는데 중생은 욕심의 티끌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은 목숨을 걸고 정진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을 볼 때도 머리에 불은 불을 끄듯이 황급하고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건봉사에 있을 때 조실로 있던 만해 스님도 이 '무' 자 화두를 주셨습니다. '무' 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출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예불 빠지고 중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도반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면 미운 것도 고운 것도 없어 시비가 없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노전을 보며 후학들에게 염불을 가르치던 시절 만 4년을 동산 스님을 모시고 산적이 있어요. 제 평생을 제대로 중노릇 하면서 살수 있게 해준 힘은 당시 동산 스님과 같이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산 스님의 원력과 신심은 그 어떤 스님네도 못 따라 갑니다.

큰 절 조실이라 하면 대개 '해태심(解怠心)' 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예불에 빠지거나 대중들과는 잘 생활하지 않는 것이 예사인대 동산 스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불은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고, 항상 대중보다 30분 먼저 각단에 예배하고 대웅전 상단에 턱 하니 앉아 계셨어요.

아침공양이 끝나면 언제나 조실스님이 먼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사중의 제일 어른이 비질을 하는데 대중들 가운데 누가 빠지고 열외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동산 스님은 걸음걸이 하나, 손동작 하나 까지도 따르고 배워야 할 큰 스승이었습니다.

쌀 한톨에 시주 공덕이 일곱근

하지만 날마다 마당을 쓸고 닦는데 뭐 쓸게 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스님은 늘 마당을 쓸어내는 것으로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공부는 닦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출가한 이라면 항상심으로 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말없이 행동법문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조주 스님의 '무' 자 화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분별을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닦을 것이 없는 불성의 참 이치를 깨달으라는 큰 가르침을 모르고 조주 스님이 '무' 자 화두만을 가르쳤다고 우기는 우매한 중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중노릇이란 것이 짐이 아주 무거워요. 출가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면 되지만 일단 출가를 하면 부처님과 뭇 중생들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직업을 갖지 않고 신도가 가져다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시은을 갚기 어렵거든요.

고승들은 후학들을 경책하기 위해 늘 '백미 한 톨에 시주공덕이 7근' 이라고 했습니다. 신도가 가져오는 쌀알 한 톨에 깃든 공덕의 무게가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함부로 시주를 쓸 수 있겠습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정해 매일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석산 스님.

지계와 수행으로 선근 닦아야

수행자가 한 생각 잘못하면 복짓는 것은 신도고 죄짓는 것은 중이에요. 그저 젊은 스님들을 경책하기 위해 하는 소리라고 흘려듣지 마세요. 출가해서 시은을 못 갚으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우리 중생은 욕심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불성이 흐려지고 닦아 내야할 먼지가 두터워져요. 이것이 한생에 끝나지 않고 업장으로 남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럴수록 출가자나 재가자나 가릴 것 없이 계율 잘 지키고 매일 자신의 근기에 맞게 일정한 수행법을 정해 선근을 닦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지키기 어려우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가자가 시주자의 은혜를 갚는 길은 물론 도를 이루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먼저 계(戒)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심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끈기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계는 스님은 물론 재가자에게도 가장 근본 덕목입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가 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중이 아닙니다. 시은을 무섭게 여길 줄 안다면 절대 계행을 청정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님들에게 늘 수행 할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리 들기 전 <천수경> 과 '나무아미타불' 을 지성으로 하면 그 공덕은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염불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호가 오고, 신심이 바로 서 내 삶이 밝아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0>



아난존자와 결혼하는 법(2)

그토록 사랑하는 아난과 맺어주겠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등의 딸은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정말 아난 스님과 저를 결혼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아난은 보다시피 머리를 깎고 출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그 어떤 조건도 마다할 수 없었던 마등의 딸은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등은 제 손으로 딸의 그 삼단 같은 검고 윤나는 머리칼을 잘라주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승원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대체 아난의 어디가 그리도 좋으냐?"

"저는 아난의 눈도 사랑하고, 코도 사랑하고, 입도 사랑하고, 그 음성도 사랑하고, 그 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합니다."

사랑에 들뜬 그녀는 이렇게 조목조목 제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똑같이 눈물, 콧물, 침, 땀, 똥, 오줌 같은 것들이 들어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사랑스럽다고 느꼈던 것일까? 아난 스님의 그 준수한 이목구비는 다 어디로 갔을까?'

마등의 딸은 자기가 집착한 것에 대한 실체를 아주 천천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대상이 알고 보니 덧없고 괴로운 속성을 띤 것이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자기 자신도 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상에 정신을 집중시키며 관찰하고 깊이 생각을 이어가자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던 아난의 이미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덧없기 그지없는 아난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자 마등의 딸에게는 모든 생명체의 바탕에 흐르는 법칙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너를 놓아줄 테니 아난의 방으로 가보아라."

하지만 마등의 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 깊이 생각한 마등의 딸
자기가 집착했던 것의 실체 깨닫고 출가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네가 그리도 사랑한다는 아난의 코 속에는 뭐가 들었지? 또 아난의 귀 속에는 뭐가 들었고? 네가 그리 안고 싶어 하는 아난의 몸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어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느냐?"

마등의 딸은 머리를 쇠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기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눈에 비친 아난의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여 부부를 이루기는 하지.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섞여 아이를 만들고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다가 누구든 먼저 결을 떠나면 그 아쉬움과 외로움에 평생 허탈한 눈물을 흘리고 말지 않더냐?"

마등의 딸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토록 잘생긴 '남자' 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은 그 남자의 몸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녀는 찬찬히 사람의 몸이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준수한 청년이건 절세미인이건 천하박색이건 한 꺼풀 벗겨내니 그 속에는

"제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아난 스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캄캄한 길을 헤매다 등불을 만난 것 같고, 난파당하여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리다가 강기슭에 이른 것 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은 것 같아 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를 다 떠난 성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젊은이에게 독신출가의 길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는 대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난과 마등의 딸은 지난 5백 세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그 인연을 진리 속에서 형제의 인연으로, 도반의 인연으로 맺어주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등의 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아난을 환속시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 한 사람의 지아비 대신 수많은 도반을 얻은 그녀의 선택이 그리 손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내손으로 딴 차 맛도 일품

4월 20일 곡우, 차밭마다 제다체험행사 풍성



올 봄에는 보드라운 찻잎을 따서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보는것은 어떨까?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가기 좋은 때다. 4월 20일 곡우를 앞두고 한창 새싹을 내미는 차밭을 거닐어 보거나 가족, 연인과 함께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직접 만든 차는 그 어떤 '명품 차'도 흉내낼 수 없는 맛과 향을 선사할 것이다. 차밭기행과 제다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찻잎 따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들.



제다 체험.

▷차밭 기행

드라마와 CF 등으로 유명한 차밭들은 지금 초록의 향연이 한창이다. 가장 유명한 차밭은 역시 보성. 보성읍에서 율포 가는 18번 국도변에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차밭이 연이어 펼쳐진다. 차밭과 함께 삼나무 숲이 우거진 대한다원 외에도 몽중산다원, 봇재다원, 보성제다, 은곡다원, 반야다원 등이 잇대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보성 차밭 기행 후 대원사와 율포해수녹차탕, 제암산 자연 휴양림,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를 둘러보는 일정을 '4월의 추천 여행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보성에서 벌교로 달리다 보면 22만여 평에 이르는 징광다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통수제차 제다공방뿐 아니라 천연염색과 징광옹기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061)857-5064

강진 월출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장원다원은 10만여 평 규모로 단일 다원으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리 신청하면 차 생산 공장도 견학할 수 있다. (061)432-5500

보성처럼 대단위 차밭은 아니지만 산등성이 곳곳에 야생차나무가 자라고 있는 하동은 또 다른 멋을 선사한다. 쌍계사와 칠불사 주변 차밭과 쌍계제다, 고려다원 등이 손꼽힌다. 화개장터를 지나면서부터 보이는 야생 차밭은 녹차시배지와 차문화센터, 쌍계사, 칠불사 입구를 지나 화개골 30여 리에 걸쳐 펴져 있다. 최근 경남도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 · 최고(最古) 차나무인 하동 정금리 차나무도 둘러볼만 하다. 하동군 차문화센터 (055)880-2371

흔히 차밭 기행이라고 하면 보성과 하동만 떠올리지만 제주도도 차밭 기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제주에는 서귀포 도순다원, 남제주군 서광 · 한남다원 등 40여 만 평의 다원이 조성되어 있다. 15만평 규모의 서광다원에 위치한 설록차박물관 '오설록'에서는 다양한 차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다. (064)794-5312

▷제다체험

직접 차를 만들어 보는 것만큼 차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차 농사를 짓는 농가나 제다업체 등에서는 이른 아침 찻잎을 따서 선별하고 가마솥에 덖고 멍석에 비비는 차 만들기의 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찻잎을 따 오면 덖고 비비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단, 차를 덖을 때는 솥이 뜨거우므로 손을 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 증심사 삼애다원의 예술 건축 공간인 의재미술관에서는 당일 차밭 체험을 할 수 있다. 의재미술관은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의 예술혼과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된 것으로 무등산 등산로를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의 현대식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062)222-3040

전북 전주시 교동의 전통한옥마을의 양사재는 '야생 차밭 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목대와 강경마을 야생차밭 답사, 다례 체험, 다담(茶談) 등이 마련된다. (063)282-4959 광양시 다압면에서는 관내 제다업체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의 '차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가 만든 차를 농가에서 마무리해 가정으로 배달해준다. (061)797-3324

이 밖에도 보성과 하동의 제다업체들에서도 사전 연락 시 제다체험을 해볼 수 있다.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850-5224, 하동군 문화관광과 (055)880-211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창경궁 '전통 차예절 체험'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정종수)와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전통 차예절 체험-전통차의 그윽함과 함께 하는 궁궐나들이'를 10월 21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창경궁 영춘헌 · 집복헌에서 실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행사는 차문화의 이해 및 생활예절, 다도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ea.or.kr)나 전화(20-701-0475)로 접수하면 된다.

경주박물관 차나무 심기



국립경주박물관은 4월 3일 야외정원에 차나무 700주를 심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구)은 식목일을 앞둔 4월 3일 박물관 야외정원에서 차나무 묘목을 심는 '푸른 차(茶)나무와 함께하는 국립경주박물관' 행사를 개최했다.

경주박물관은 지난해 식목 행사에 차나무 묘목 100주를 심은데 이어 이날 700주의 차나무를 심었다. 또한 이날 경주박물관이 운영하는 '차 문화대학' 입학식도 함께 열리기도 했다.

경주박물관 관리과 관계자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상징하는 차나무의 향취를 느끼며 문화재를 관람하도록 묘목 심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3. 칠자병차 속 숫자보이차 ②

'숫자보이차'의 어려움은 상품포장지 그 어느 곳에도 숫자에 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 사실 숫자보이차의 탄생은 해외 시장인 홍콩을 겨냥한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이차의 포장은 357g×7편을 한 통에 담아, 12통을 대광주리에 담는 것이 전통포장법이다. 이때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전지를 만들어 대광주리에 한 장 넣은 것이 당시 유통 형태였다. 보이차 시장에서 이 전지를 가리켜 지비(支飛)라고 한다.

지비에는 차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데, 상품명칭, 출고공장, 중량 특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소위 칠자병차의 레시피 즉 7572, 7542 등과 같은 문구가 바로 이 '매두(中麥頭)'란에 적혀있다.

'매두'라는 단어는 중국의 표준어가 아닌 홍콩, 광동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k'의 홍콩식 표현이다. 지비에서 매두(Mark) 문자의 삽입은 칠자병차의 출생이 홍콩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칠자병차에 관한 정보는 결국 광주리를 통째로 구매하지 않는 한 개별포장으로 된 보이차의 포장지만으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차에 관한 정보는 도매상들에게만 알려줄 뿐 소비자들은 상인들의 입에만 의지하는 이상한 유통구조로 변질되어 결국 '짝퉁 보이차'가 창궐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보이차의 정보 부재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보이차 애호가들, 특히 타이완의 마니아들이 칠자병차의 포장지들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수십 종에 달하는 포장지의 재질, 인쇄명도, 글자의 차이점 등을 정리해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칠자병차의 진위에 관한 판별법을 내놓았다.

칠자병차의 포장지에는 둥근 원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운남칠자병차(雲南七子餠茶, 영어병기)' 중앙에는 '팔중차(八中茶)' 로고 그리고 하단에는 '중국토산축산진출구공사운남성차엽분공사(中國土産畜産進出口公司雲南省茶葉分公司, 영어병기)' 등의 글자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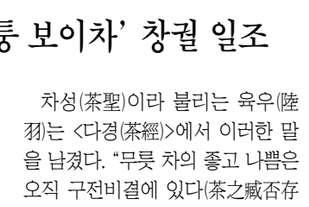
인쇄에서 판별할 수 있는 자료로는 상단 '운남칠자병차'에서의 '운(雲)'자와 '차(茶)'자의 상이점, 하단 '중국토산' 부분에서 인쇄된 '중(中)'자의 크기 그리고 '팔중차' 로고의 '차(茶)'자의 색상, 내비(內飛)에 인쇄된 '서쌍판납태족자치주맹해차창출품(西雙版納傣族自治州勐海茶廠出品)'라는 문구에서 '주(州)'자와 '출(出)'자의 차이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표(內票)의 대소(大小) 크기와 '인진배방(認眞配方)'라는 문구를 특별히 추가하여 편집한 내표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지비(支飛)에 상품 명칭 등 인쇄해 유통
차 정보 부재는 '짝퉁 보이차' 창궐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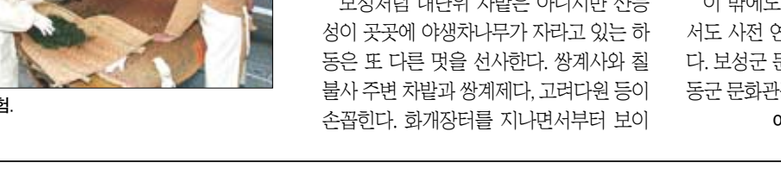
차성(茶聖)이라 불리는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 "무릇 차의 좋고 나쁨은 오직 구전비결에 있다(茶之藏否存於口訣)." 그는 750년대에 "표피적이 아닌 차의 장 · 단점을 함께 논하고 감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차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구전비결에 따라 부단히 지식을 연마해야만 진정한 차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 바가 있다.

보이차의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는데 있어 첩경 즉 지름길은 없다.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보이차의 과학, 역사를 연마 그리고 연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은 보이차의 진위 판별법에 있어 포장지에서 나타난 여러 사안들은 결국 곁가지에 불과한 참고사항이라는 뜻이다. 육우의 일침은 오늘날의 보이차에도 유효하며 보이차 애호가들에게 많은 것을 사색케 하는 대목이다. ■ 한서대학교



보이차의 지비 내용.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지가 언제일까? 최근 웃음의 건강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 세계에 '웃음열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한국웃음연구소의 6기 웃음치료전문가 과정에 모인 회원들이 밝게 웃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웃음연구소

푸하하하하하~ 웃고 살아요

수명연장 · 질병치유 효과 입증, 지구촌 웃음 열풍

10초 이상 온몸으로 웃을 때 엔돌핀 분비 극대화

건강 지켜주는 '잘 웃는 법'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음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은 외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15초씩 웃으면 수명이 이틀 더 연장된다는 연구결과 발표했고, 미국 UCLA대학병원의 프리드 박사는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적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웃음은 내적 조깅(internal jogging)'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뿐만 아니다. 인도에는 요가의 일환으로 '폭소이벤트'를 벌이는 '웃음클럽'이 300여 개나 활동하고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선 홈리스들에게 웃음의 기술을 가르쳐 재활의지를 북돋워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웃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웃을 일도 많지 않을뿐더러 실없이 웃다간 '체신 머리 없는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근엄한 대한민국'에 웃음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박장대소 코리아국민운동'의 본부 한국웃음연구소의 도움말로 '잘 웃는 법'을 알아본다.

▷ **억지웃음도 웃음?**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웃을 것까지야 있을까?'

웃음치료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웃음이라는 것은 억지웃음을 지을 때도 신나게 웃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을 흉보거나 비웃을 때의 웃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눈, 코, 입, 피부 등 감각기관이 몰려 있는 얼굴 표정 정보가 거꾸로 뇌에 전달되어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웃기가 힘든 사람이라면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웃음연구소는 말한다.


크고 길게 자주 웃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 **크게 웃자**

미소와 웃음은 다르다. 미소는 웃음에 비해 얼굴 근육을 훨씬 덜 사용할 뿐 아니라 소리도 내지 않는다. 반면 웃음은 보다 솔직하고 즉각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많은 신경과 근육, 배, 성대까지 동원되는 에너지 소모가 큰 행동이다.

또한 크게 웃으면 얼굴 광대뼈 주위의 근육을 자극하게 되어 얼굴 근육들이 함께 운동하게 된다. 이때 광대뼈 주위의 혈과 신경은 뇌하수체를 자극해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크게 웃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다.

▷ **길게 웃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어 보라'고 하면 짧게 한 번 웃는 것으로 그치기 십상이다. 그러나 웃는 얼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쉬는 호흡, 즉 날숨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10초 이상 웃어야 효과가 있다. 10초 이상 웃을 때 엔돌핀의 분비가 최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배와 온몸으로 웃자**

크게 웃으며 숨이 끊어질 정도로 웃으면 배가 움직이는데, 이때 오장육부가 움직여 내장이 튼튼해지게 된다. 웃음이 '내장 마사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웃을 때는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웃으면 웃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다. 아이들은 정말로 신나게 웃을 때, 방바닥을 때리거나 방방 뛰면서 웃는다. 이렇게 웃을 때 웃음은 얼굴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신운동이 되는 것이다. 박수를 치거나 배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는 '요절복통'으로 최고의 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도레미송 웃음법**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송'을 이용한 웃음법이다. 낮은 도에서부터 시작해 높은 도까지 각각 10초 동안 큰소리로 분명하게 소리를 낸다. 3번씩 반복한다. 이때 입술근육과 광대뼈, 그리고 턱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다.

▷ **하마웃음법**

나이가 들면 얼굴의 근육, 특히 입주위의 근육인 소근이 굳어진다. 그래서 어쩌다 웃으면 어색한 웃음이 된다. 하마웃음법은 굳어진 '웃음근육'을 크게 움직이는 웃음법이다. 하마가 힘껏 하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린 후 가능하면 크게 벌린 상태에서 멈춘다. 10~15초 정도 멈춘 후에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입술을 벌린다. 이때 가능하면 날숨으로 숨을 쉬면 좋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마웃음법으로 얼굴근육을 자극해주면 하루 종일 웃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 **자연스런 웃음을 위한 '하히후헤호'**

'하, 히, 후, 헤, 호' 소리를 내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런 웃음소리를 만들 수 있다. 큰소리로 '하하' '히히' '후후' 하고 두 번 소리낸 후 '하하하하하' '히히히히히' 하고 다섯 번 연이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음하며 웃는다. '하'는 가능한 입을 크게 하고, '히'는 입꼬리를 한일자로 좌우로 당기고 입술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낸다. '후'는 입술을 가볍게 내밀고 소리를 내고 '헤'는 입꼬리를 의식하고 힘을 넣어 위로 올리는 것처럼, '호'는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 입에 사탕을 넣었다는 기분으로 소리를 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4>

다시마콩나물무침과 겨자소스



저는 항상 큰이모님을 뵈면 '살아 있는 보살'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큰이모님은 칠순이 다 되어 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목욕하시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불경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108염주를 돌리면서 경전을 읽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항상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 큰이모님과 함께 대전에 있는 한 사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하루날이였던듯 싶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법당에서 절을 하고 스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점심 공양을 들었는데, 비빔밥이 제공되었습니다.

비빔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나물에다 고추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절의 비빔밥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빔밥이었습니다. 흰색 콩나물, 붉은색 당근, 초록색 상추 그리고 연회색의 느타리버섯 등 다양한 색으로 꾸며 만들었고 다시마와 무, 표고버섯을 넣어서 뜨거운 국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똑 같은 비빔밥이잖아?"라고 하시겠지만 그 절에서는 채수를 우려내고 남은 다시마를 아주 곱게 채를 친 후 비빔밥에 올려 오색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국물 내고난 다시마를 당연히 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을 다시 비빔밥에 올려 색을 맞추다니. 그것이 바로 '음식의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채 썬 다시마를 데쳐 논 콩나물과 겨자 소스를 이용해 냉채로 만들어 놓은 그 지혜로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채수를 끓이고 난 아무 영양가 없는 다시마 한 조각이라도 버리지 않고 음식에 다시 이용하시는 그 지혜로움. 아마 이것이 산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맛이 그리워 가끔 그 때 먹어본 비빔밥을 재현해 보지만 아직 당시의 깊은 맛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의 수양이 부족하고 공부가 덜 된 탓이겠지요?

■ **만드는 법**



<다시마콩나물무침> 재료: 채수 끓이고 난 다시마(10x10cm) 1장, 콩나물 1줌, 감자 1/2개, 오이 1개, 겨자소스(겨자가루 1큰술, 뜨거운 물 1큰술, 감식초 1큰술, 설탕 1/2큰술, 사이다 1큰술, 참깨 1작은 술, 사과 1/5쪽)

① 다시마는 길이로 채 썬다.(불린 다시마는 미끄러우므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채 썬다) ② 콩나물은 머리와 줄기부분을 따고 뜨거운 물에 데쳐서 냉수에 담가 둔 후 물기를 완전히 빼준다. ③ 감자는 아주 곱게 채 썰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전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④ 오이는 어슷 썰어 준비한다. ⑤ 오이는 접시에 돌려 담는다. ⑥ 준비된 재료를 겨자소스에 버무려 완성한다.



<겨자소스>

① 겨자가루는 뜨거운 물로 개어 매콤하게 만든다. ② 뜨거운 물로 갠 겨자를 5분 정도 후에 감식초, 설탕, 사이다를 넣어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 준다. ③ 참깨는 칼등으로 곱게 다진다. ④ 사과는 씹히는 감이 있을 정도로 다진다. ⑤ 만들어진 겨자소스에 참깨와 사과를 넣어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미역주먹밥과 미역자반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불자여러분께 알립니다

'프로폴리스'를 직접 채취하여 판다는 **건강기능양봉원의 성구스님**(속가명 유복렬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감리 190번지 일림사 주지)이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서 00양봉원에서 프로폴리스(허가도 없는 제품)를 헐값에 구입하여 몇십 배를 부풀려 판매하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판매한 기간은 5년정도로 매우 많은 양을 팔아 자신의 치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제보자 :
시원심 보살 010-9195-3173

탈종공고

● 사찰명 : **묘현사**
● 주 지 : **지연(전부중)**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914-14 302호**

위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위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海印講院 10期 모임

◆ 日時 : **2006년 4월 21일 (금) 오후4시**
◆ 場所 : **경북 선산 도리사**

우리 조계종단의 立法機構인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께서 道伴의 情을 나누고자 해인강원 10기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기생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 하셔서 의장스님의 勞苦에 激勵하고 報答합시다.

東峯, 慧門, 性日, 性浩, 慧雲, 一讚, 正覺, 中天, 道日, 聖雲, 法燈, 宗權, 仁亳, 法賢, 再願, 性春, 三笑, 卍嫩, 半月, 再眞, 性愚, 海印, 法照, 道允, 眞滿. <무순>

*** 동문회 수첩제작용 사진지참 바랍니다 ***

제10기 會長 : 慧雲
總務 : 再願 合掌

연락처 전화 : 011-734-3456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상당한 가족'은 전무송씨 가족들이 만든 연극이다. 왼쪽부터 전무송 · 전현아 · 전진우씨. 연극배우 김남희씨만 전씨의 가족이 아니다.

자, 웃을 준비 되셨나요!

불자배우 전무송씨 연기인생 45년 맞아 시트콤 시도

'웃는 연극-상당한 가족'

'만다라' '동승' '아제아제바라아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굵직굵직한 불교영화에는 어김없이 출연해 삶의 구도자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진지하면서도 고뇌하는 연기를 보여준 불자 배우 전무송씨가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연기인생 45주년을 맞아 무



시영에게 장모의 부음을 전하는 조섭.

佛 '마님의 모친상' 번안
온 가족 한 무대에서 공연
과장된 액션 웃음꽃 선사

거움과 고뇌를 털고 가벼운 웃음으로 무장한 채 코미디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4월 16일까지 대학로 사다리아트센터 세모극장에서 공연하는 '웃는 연극-상당한 가족'은 웃는 연극이라는 의미인 프랑스 소극 '마님의 모친상'을 번안한 작품이다. 시트콤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프랑스 소극의 특징을 그대로 한국 무대로 옮겨왔다.

국내 초연되는 이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배우 전무송과 가족이 모두 출연, 연출하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데 있다.

전무송씨는 운전수 한조섭 역으로 능청스러운 웃음을 선보이며, 아들 진우씨는 엉뚱하고 허영에 찬 남편 류시영 역을, 딸 현아씨는 철없는 아내 이분녀 역을 맡았다. 연출은 사위 김진만씨가 맡아 연출에서 연기까지 온 가족이 하나의 연극 무대에 함께 서는 초유의 공연을 만들어냈다.

1962년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 1기 출신인 전무송씨는 연극 '소'로 연기를 시작했다. 영화 TV 드라마 등으로도 꾸준히 활동했지만 친정인 연극무대에는 1년에 1편 이상 출연하는등 연극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딸 전현아씨는 SBS '여인천하'에서 금이 역으로 얼굴을 널리 알린 탤런트. 동서 희곡문학 신인작가로 당선되기도 한 현아씨는 '웃는 연극 상당한 가족'의 번안작업도 맡았다.

아들 전진우씨는 서울예술대 연극과를 나와 국립극단에서 활동했다. 연극 '베니스의 상인' '황진이', 뮤지컬 '마녀사냥', 창극 '흥보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연기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사위 김진만씨는 80년대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아역 탤런트 출신 연출가다.

연출부터 배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만찮은 면면을 보이는 '웃는 연극 상당한 가족'은 어떤 얘기일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파티에 갔던 남편 시영이 새벽 4시에 귀가한다. 선잠을 깬 아내 분녀의 신경질로 시작된 부부싸움은 운전수 조섭이 분녀 어머니의 부음을 알리러 등장하면서 한바탕 소동으로 바뀐다. 한밤중이라는 특별한 한정적 상황에서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대사와 돌발적이고 과장된 액션은 관객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든다. (02)741-6779 강지연 기자



산사에 울리는 봄 선율

산사에 음악과 꽃, 사진과 한지공예작품들이 가득 넘친다. 의성 고운사, 북한산 심곡암, 양주 육지장사가 제각각 개성을 드러내며 축제의 장을 가람 안에서 펼친다.
꽃구경도 하고 장엄한 불교의식도 접해보면서 심금을 울리는 음악 속으로 잠겨보면 어떨까.

의성 고운사 산사음악회

4월 22일 오후 6시 30분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에서 '상생과 화합'을 노래하는 멋진 선율이 울려 퍼진다.

2006 고운사 산사음악회는 개산 1325년을 맞은 고운사가 서예전과 사진전, 개산대제 기념법회 및 위령제, 산사음악회의 세 가지 마당으로 축제가 벌어진다.

22일 하루 열리는 사진전 '구름 따라 바람 따라'는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다>의 지은이 성공 스님(비로사 주지),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 영주 부석사 총무 범종 스님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의상과 고운의 만남' 서예전은 의성출신 서예작가들이 일승법계도 등 다양한 서예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오후 2시 오양가 다도문화원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되는 개산대제 기념법회 및 위령제는 불교어산작법학교(교장 인묵)가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진행한다. 대원사 보현합창단, 청량사 마하합창단, 축서사 바라밀합창단 등이 모인 연합합창단의 감미로운 음성공양도 준비된다.

고운사의 첫 산사음악회는 야단법석의 신나는 타악 연주를 시작으로 정율 스님의 성악, 장사익 한영애 정경화 안치환 등 초청 가수의 노래 무대로 펼쳐진다.

육지장사 창건 준공 축하공연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가 21세기 종합전법도량 준공을 기념하며 '靜정 · 中중 · 動동' 공연을 연다. 4월 16일 오후1시30분부터 육지장사 상설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하공연은 댄스뮤직 힙합 락 무용 등이 결합된 젊은 공연이다.

록그룹 홀리건, 코스트윈드밴드, 고구려밴드,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등이 펼치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1997년 4월 개산제를 올린 지 8년 만에 종합전법도량의 사격을 갖춘 것을 기념하는 준공법회가 열린다. 육지장사는 1만여 평의 대지에 120평 규모의 대웅전, 선재당, 수선당(이상 400평) 등이 들어서 있다.

육지장사 지원 스님은 "앞으로 100일 철야용맹정진, 2



2004년 심곡암에서 열렸던 산꽃축제.

박3일 산사체험, 쑥뜸체험, 숯가마체험, 록 콘서트, 사진전시회 등 주5일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1)871-0101

심곡암 산꽃축제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이 4월 23일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제7회 심곡암 산꽃축제를 개최한다.

23일 오전 10시 30분 1부 육법공양 및 다도 시연으로 시작되는 산사음악회는 진명 스님의 사회로 2부 무대를 화려하게 선사한다. 심곡암의 천연 바위 무대에서 벌어지는 선율의 향연에는 마음을 노래하는 도신 스님, 국악인 김성녀씨, 불자 가수 이진호 · 문명하씨, 비올라 연주 김남중씨, 가야금 연주 민소연씨 등이 출연한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자광 스님 한지 공예전도 펼쳐진다. 이어 28일에는 문수전 문수보살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문수보살 후불탱화는 문수보살의 설법모습을



2004년 육지장사에서 열린 '명상과 함께하는 록 뮤직페스티벌'에서 헤비메탈그룹 블랙홀의 공연 모습.

금화로 표현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에는 관욕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 다도시연 및 봉축 예술제 등이 벌어진다. 산꽃축제의 마지막은 이날 심곡암 일대에서 벌어지는 제등행렬이 맡는다. (02)914-8860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제573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4월 12일(음력 3월 15일) 수요일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자유롭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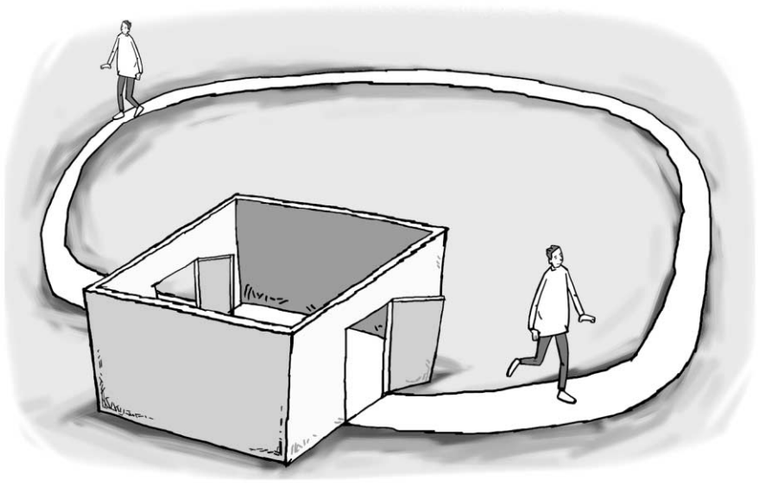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여러 대덕 스님들께서 같이 한자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주셨지만 한마디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것인가?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깊은 마음속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부처님 봉축일은 찰나찰나 봉축일이며, 오신 것이 없기에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계시어 무시무종 일승공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계의 50%를 모르면서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살아나가시려니까 힘들고 얽매이고, 또 애고나 업보나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타파를 못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한마음으로 일체 만물만생 어느 것이든 아니 되시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원할 때에는 한 잘나에 응신으로서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다 하고 구원을 청할 때는 항상 칠성 부처가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고 소원을 하면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에서는 지신이 돼 주시고, 독성이 돼 주시고, 산신이 돼 주시고, 아프면 바로 약사가 돼 주시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느 자리에든 어느 골골에든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삼천 년 전이 바로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에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를 해야 바로 내가 제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생중생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속에 생명, 의식, 모습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 즉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치고 자기 영혼과 더불어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영혼에 딸려서, 바로 종합이 돼서 이 세상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의 여러분 앞에 입력된 것만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현재 스님네들도 그러시고요.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아라.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얽매이느니라. 길을 가다 엎드러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허공을 허우적거린다면 일어나지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자리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물질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에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자기가 한 것만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치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일 초 전만 하더라도 과거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몰락 녹아지느니라, 없어지느니라. 본래 공해서 붙어 있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관습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거르는 수행을 해야만 되겠기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나오는 그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몰락 없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좋은 일 좋은 생각이 나오고 밖에서 좋은 일 좋은 행동이 들어오고 이럴 땐 감사하게 거기 놓고, 악한 마음이 생길 때는 '악한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선한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네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고초가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네 몸뚱이를 건강하게 끌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시키려면 네가 낫게 해야잖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놔야 됩니다. 놓는 데도 또 못 믿어서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한테 서류를 말기고 심부름을 시켰다면 그대로 놔둬야 일이 되지 서류를 맡겼다가 못 믿어서 도로 뺐었다가 도로 줬다가 도로 뺐었다 이런다면 무슨 일이 됩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 "부처님 봉축일은
> 찰나찰나 봉축일이며
> 오신 것이 없기에 가신 것도 없이
>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계시어
> 무시무종 일승공법인 것입니다!"

본래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주춧돌을 세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어서 각자에게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용도에 따라서 자꾸 거기다가 되놓으면서,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자체가 참선 아닙니까? 마음은 들끓는데 육체를 꿇어앉혀 놓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행선이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모두가 참선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참선이니까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 풀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인연 따라서 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했으면 행하게 되니까 모두가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씨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화두를 들어서 많이 깨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밝게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고, 또 세상이 너무 많이 변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두를 붙잡고 '이거 뭣고?' 하기 이전에 바로 '과거의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내가 새 싹이 됐구나. 그러니 그 싹 속에 열매도 있고, 바로 그 싹 속에 씨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서 찾아야지, 내가 낳기 이전을 과거에서 찾는다면 찾을 수가 있는가?' 하고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모두가 시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시자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합니다. 마음을 구해야 부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알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으로 나를 뛰어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이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 하고 유마힐 거사가 말했듯이 부처님께서도 "너의 자생중생을 먼저 제도해야 네가 해탈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래 어떻게 해야 내 자생중생을 제도하나? 우리가 지금 지구에 매달려서 살면서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몸뚱이 속의 중생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를 뿐더러 좋고 나쁜 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대로, 강도질을 하려고 한다면 강도질하는 대로 그냥 좇아 주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착한 일로 좇아 줍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면 손이 쫓아다니듯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찌 마음으로써 다스리란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자뿐만 아니죠. 속가에서 사는 여러분이 다 부처이자 법신이니까요. 항상 부처님의 법에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죠. 모든 거는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부딪침도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절대로 의리와 도의를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을 이름해서 계향(戒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면에 자기 자성 선을 세우고, 즉 말하자면 선이 중심이 되고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에서도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나쁘게 생각이 나오고 나쁘게 닥치고 이러는 것은 '나쁘게 나오는 것도 너니까 좋게 돌려서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자기 주인공에 놓고, 안에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럴 땐 거기에 감사하게 놓으면서 그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름 해서 정향(定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계향 정향만 잘해도 공덕이 됩니다.

우리가 향을 피워 놓고 초를 켜 놓고 아무리 빌어 봤던들 공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를 이끌어 가고 진짜로 나를 이익하게 하며, 업보를 타파하고 번뇌, 망상, 생사, 윤회 같은 과거의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으니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은 들이 아니어서 모두가 마음으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말로 전달하는데, 이게 교(敎)입니다. 풀 한 포기도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가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불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든지 막론해 놓고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마구니 소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짓는 대로 바로 악업도 정해지고 선업도 정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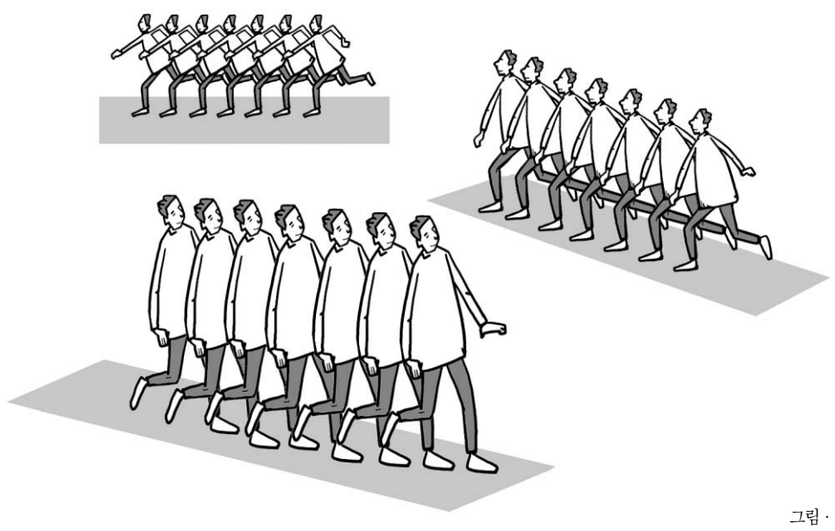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본래 없다면 찾아야겠지만 본래 있기에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으로써 내면세계와 물질세계 양면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이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름 해서 혜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번째에도 그 자리에다 놓고, 두 번째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하고, 세 번째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되겠죠? 그건 왜냐.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없다면 찾는 것이지만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하게 되면'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을 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견성을 했지.' 한다면 미해져서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양면을 둘로 보지 않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혜향입니다.

계향 정향 혜향을 올바르게 한다면 이름 해서 해탈향(解脫香)입니다. 여러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이며 또 여여하게 다스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그 이름은 쑥 빼놓고 진실로써 그대로 작업을 하신다면 바로 해탈향입니다. 해탈향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향이지 물질적인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향을 그렇게 했으면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름입니다.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서 걸림이 없이 구족한 것이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이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발 떼어 놓을 때에 한 발을 지고 갑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금을 쥐었다면 좋은 데다가 깊숙하게 감춰 놓지만 걸레를 짰다면 걸레를 어떻게 놓으십니까? 빨아 가지곤 그냥 아무 데나, 세숫대야에 담아서 그냥 아무 데나 밀어 놓죠? 이렇게 좀 걸레 짜서 밀어 놓듯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가고 오는 것도 보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걸어서 여기 올 때도 짊어지고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관습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니라. 자유롭게 될 수 있느니라.' 하고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끔 자유스럽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줄을 몰라요. 얽매여서 말입니다. 이사를 가도 날짜를 봐야 하고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떠니 구랑신이 들어서 집을 못 짓느니 또는 혼인을 해도 날짜를 봐야 하느니,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거니와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문도 벽도 은산철벽도 지구도 다 문이 없는 겁니다. 땅속도 물속도 어디든지 말입니다. 그건 통과입니다. 그냥그냥 통과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왜 얽매입니까? 왜 자기의 노예가 됩니까? 왜 항상 노예로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종교마저도 얽매이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자유롭게 사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 구랑신이 들어서 당신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 아니, 쓰다듬고 만지고 그러던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다들 버리고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애틋해서, 죽을까봐 겁나서 집을 못 지어?" 했던 거죠. 그런데 여직껏 아무 일 없어요. 하하하…. (대중 박수)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귀신한테 말려서 항상 얽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나한테 묻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물귀신이 해친다고 물 있는 데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에는 가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물귀신이 정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물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물귀신이요.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뚱이는 물귀신한테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요?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누가 초청을 해서 갔거든요. 그 집에서는 귀한 분이 오신다고 층층 계단을 그냥 물로 닦아서 딱 해 놓았는데 그 층계를 올라가다가 그 물에 미끄러져서 그냥 곤두박질을 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허리를 다쳐서 그 해 일 년을 일어서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후에 또 와서 말하기를 정말 물귀신은 있다 이겁니다. 하하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 됐기 때문에 물귀신한테 당신 몸이 그렇게 된 거지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 아니었더라면 그 몸뚱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물귀신이 되느냐 물귀신이 안 되느냐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 천차만별에 대한 것을 마음 하나로 다 타파할 수 있는 도리가 바로 부처님의 도리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너를 깨닫고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를 볼 수 있다면 바로 나도 볼 수 있느니라. 너를 볼 수 있다면 자생중생을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다스릴 수가 있느니라.' 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알아듣고 행하죠. 작용을 해 주고 행하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다 작용을 하죠. 그렇게 돼야 맨 나중에 자기가 견성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주 첨단의 공부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견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차만별로 병풍 둘러치듯 한 삼천대천 세계의 진리가 어떻게 책으로 다 엮어지겠습니까.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경전에 다 실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길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스럽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자유스럽게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의 집에 뭐 뭐가 놓인 걸 지금 좔나에 다 가 보고 오실 수 있겠죠? 그런 거와 같이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혹성이든지 한 좔나에 빛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는가 하면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일체 천차만별에 대한 것을 마음 하나로 다 타파할 수 있는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

☞29면에서 계속

아무리 절레절레 머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자기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 놓은 것은 자기에게 입력이 돼서 슬슬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금 조금씩 떼어서 말씀을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중 박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왜 마음으로 다스리라느냐?

옛날에 어느 수좌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이 얘기 다 아실 겁니다. 팥죽 방울이 끓어오르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답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오는 것도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망상도, 또 글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 말고 그냥 놔라. 미리 '어, 이것도 팥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너로구나!' 하고 탁 눌러 놓고, 이것도 눌러 놓고 저것도 눌러 놓고 그러시란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몸뚱이 속의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림이요, 바로 번뇌와 망상, 생사, 윤회 그 모든 거를 거기다가 녹이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헌 쇠든지 새 쇠든지 오락지든지 넣으면 다 녹는 것처럼 말이죠. 그 작업만 한다면 다 녹아서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잘될까 말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생각을 마시고 진실히 믿고,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모든 것은 네놈이 하는 것이니까, 안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네놈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아서 구정물이 나올 땐 맑은 물로 바꿔서 써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 가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혜향(慧香)입니다. 이름 해서 혜향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시는 가운데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위 법문은 1993년 4월 24일 광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사의 꿈을 키우며 (하)

김한중 (교도소 재소자)



그림 · 문병성

경전 읽고 쓰고 외우며 '마음의 자유' 추구
가장 큰 '농사'가 불법 수행이란 믿음 생겨
금강석같은 참 불자로 거듭나리라 다짐

아내의 따뜻한 위로 한 마디는 힘든 수감생활에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연비 자국을 보면서 이제 진정한 불제자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라'는 아내의 말처럼, 부처님 법에 간절하게 의지했습니다.

아침 · 저녁으로 <금강경>과 <관음경>을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했습니다.

그렇게 9년간의 수감생활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를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아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내가 제일이다'라는 오만한 생각, 지독하게 나를 옭아매던 그 아상을 벗어버리고나니, 세상이 달라보였습니다.

<금강경> 2상 '적멸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경의 말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우주와 인생의 참다운 모습, 즉 실상의 깨달음에 이른다"고요. 그리고 여래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고 마디마디 사지를 찢겼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인연 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통'이구나. 전생부터 업이 쌓이고 뭉쳐서 오늘의 내가 되었기에…. 그 원인을 알게 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만약 이를 업보라고 괴로워만 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간 향락주의에 빠져있던 나를 버리는 수행과정으로 마음을 돌리니 현실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밝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나의 눈가를 순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도 사무치게 알게 됐습니다.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서 매사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인과법칙. 새삼 느끼게 되면서 어두웠던 나의 삶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법회를 열어주는 스님들의 인연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신 스님은 내게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되기 더더욱 어렵다"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꿈을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나 자신은 어리석음의 꿈에서 허둥지둥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흐릿하게 남은 내 팔뚝의 연비자국을 더듬었습니다.

28년 전에 오계를 받을 때 남은 연비자국. 계를 받으면서 남모르게 또 뜨겁게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다시 부처님 법에 의지하자. 지난 세월 세웠던 법사가 되겠다는 원을 실현하자.' 나는 이후, 옥중에서 불교통신대에 입학했고 불교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쓰며 외고….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자유롭게 누볐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한줄 압니까? 시방삼세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스스로 화두처럼 놓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공부 과정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매달 와 감로법문을 주시는 일봉 스님과 법사님들은 내 불교공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엇일까?' 불서를 읽으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불법은 일만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요, 일만 가지 향이 나는 꽃이다. 우리는 그런 과일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요, 모든 농사 중에 가장 보람 있는 농사가 바로 불법 수행'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이야말로 불법을 닦을 수 있는 연마제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말이 말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입을 열어 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공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하셨으니 말입니다.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의 참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죽네 사네 야단들이지만,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언어가 붙을 수가 없는 그대로가 자비심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또 풀 한포기라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을 키우면서 내가 예전에 세웠던 법사의 원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습니다.

흙탕물에 빠져 본 사람은 자기가 겪어 보았으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남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 분발 정진 수행하여 부끄러움 없는 불자로 태어나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의복을 입고 있지만, 이곳도 부처님 수행도량으로 생각하니 주옥보다 더 아름다운 불법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의 실수는 병가에 상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무엇을 잘못해서 결과를 따진다고 했을 때, 실패하면 굉장히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실패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며 작은 묘목이 자라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려면 긴 시간에 허허벌판에서 비바람에 많은 매를 맞으며 성장한 나무는 더욱 튼튼하듯이, 아무리 힘겨운 수감생활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단단한 금강석의 참 불자로 거듭 태어나리라 다짐합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기획PR

佛法天地有廣一切樂

불법이 천지에 널리 있어 일체가 모두 낙이로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종정 · 총무원장 · 종회의장 이취임 대법회 성료
2006년 4월 4일 서울 세검정 하림각 대연회장 ... 1000여 사부대중 참여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일송 종정 큰스님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종정 총무원장 종회의장 이취임대법회가 2006년 4월 4일 세검정 하림각 대연회장에서 각 종단 스님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거행 되었다.

제6세는 종정 일송큰스님 총무원장 우담스님, 종회의장 현공스님으로 앞으로 종단의 수행 및 대내외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인왕스님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지산스님들 각 종단의 총무원장스님 등 약 100여명의 스님이 참석하였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은 정법구현(正法具現) 정도수행(正道修行) 중생제도(衆生諸渡)의 종훈(宗訓)아래 종도들의 수행이 이루어지며, 특히 이취임법회등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단 한차례의 종단 분규가 없는 등 화합 종단의 면모를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은 1992년 10월 12일 창종 동기가 된 원찰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에 소재한 동해사에서 이절에 모셔져 있던 석불(약 2미터 좌상 석가모니부처님)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0번지로 모시는 도중 그곳에 맑은 날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현상이 신비하여 군청주재 언론기관원에 알리게 되었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었다.

이일이 KBS, MBC 텔레비젼방송과 일간지 및 주간지등에 보도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알려지면서 이절의 창건주인 의륜스님은 불교방송 , KBS부산방송국등 대구 만산등에서 무려 1백오십회의 동해사 법비(부처님의말씀:법) 사진전 및 사리친견 법회를 개최하면서 태국 왓벤샤사원의 협력으로 남방불교를 유학하면서 한국에는 북방불교 일색인 불교를 남방불교 도입을 결정하면서 창을 발원하고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 한국근본불교실천 협의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행에 동참하는 스님 및 사부대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날 제6세 일송종정큰스님은 "불법이 천지에 널리 있어 일체가 모두 낙이로다(佛法天地有廣一切樂)" 라고 법어를 내려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불법의 소중함을 설법하셨다. 사찰안의 불교만이 되어서도 안되고, 신도회내의 불교만이 아닌, 세계로 나가는 넓은 열린 불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종정 · 총무원장 · 종회의장 이취임 대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세계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였고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사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전 불교도들이 부처님께 절하듯이 심지어 예수님 앞에도 절을 할수 있는 큰 불교가 되어야 겠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세계통일, 세계화합이라는 목적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큰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받드는 수행을 해야하며 이러한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무주상 보시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생이 있는 모든곳, 어디에 있으나 어디를 가나 중생이 사는 생활속에 항상 불법이 있으니 너무 즐겁고 하루 하루가 수행일 수 밖에 없다며 생활속의 불교를 말하였다.

일송종정 큰스님은 1948년 백양사 종암스님을 은사로 운암스님 계사로 일운스님을 법사로 출가한 이래 유치 보림사에서 6안거 이래 지리산 법계사에서 8안거를 성만했다.

총무원장 우담스님은 취임사에서 세상은 오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며 가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순리이고, 초고속 변화속에 물질이 세상을 지배한다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있으니, 이것이 진리요, 도리인 것이라며 근본불교조계종의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 하였다. 12년 창종이래 단 한번의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움속에서 수차례의 종권이양을 실천한 종단인 만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종단이라고 말했다.



◇ 총무원장 우담스님(중앙),중앙종회의장 현공스님(좌측),장로원장 의륜스님(우측)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신도는 "불자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일송 종정 큰스님 및 각 대덕스님을 모시고 불법수행에 더욱 힘을 쏟아야 겠다며 뿌듯한 얼굴을 내비쳤다. 2부 축하공연시간에는 자비운동실천본부 예술단 서울예화국악단 등이 여흥을 돋우어 많은 불자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였다.

차별없이 들어주고 구제하시네!

불화 속의 명장면 (7)

日 교토 지은원 소장 '관세음보살32응탱'



관세음보살32응탱. 조선전기 1550년作.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무진의보살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觀世音)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한량없는 백 천만억 중생이 갖은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을 모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보문품〉

'관세음보살'이란 세상의 온갖 소리(세음, 世音)를 모두 듣고(관, 觀) 계시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관(觀)이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을 넘어 '마음으로 본다' 또는 '통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란 지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든 일들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보살님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지상의 삼라만상을 살필 뿐만 아니라,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라도 주는 전지전능한 신(All-mighty God)으로 중생을 재난과 번뇌로부터 구하는데, 바로 자유자재로 화신해 위기에 처한 중생의 눈앞에 강림한 그 영험한 순간들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32응탱'(조선전기 1550년作)입니다.

인종 추모하기 위해 부인 공의왕대비가 발원한 작품
독립적인 47장면속 장엄한 산수와 파격적 구도 일품

여느 불화와는 다른 장엄한 산수 배경의 파격적이고도 대담한 구도가 범상한 솜씨가 아닙니다. 산과 계곡 사이사이에서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 숨겨진 천차만별의 인간상이 하나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립적인 총 47장면(관음응신, 7난3독 및 게송 장면)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관음의 발치 아래에서 파노라마 칩니다.

작품 가운데에는 관음보살이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유희좌의 자세로 위풍당당하게 앉아, 이 모든 속세의 장면들을 관(觀)하고 있습니다. 관음 뒤로는 기괴한 암석과 신비스런 청색 금색의 준봉이 병풍처럼 둘렀습니다. 작품의 가장 위 하늘 공간에는 작은 여래상을 묘사해 관음을 중심으로 위로는 여래 아래로는 응화신, 즉 법(法)신 · 보(報)신 · 응(應)신의 삼신(三身)의 구조를 암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관음의 역동적인 행동하는 '자비력'을 이렇게 유려하고도 창조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또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문질빈빈(文質彬彬,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추어 광채가 나는 모양)'하여 빛이 납니다. 사상적 깊이뿐만 아니라 회화적 우수성마저 절묘하게 갖춘 이 작품은 조선전기 뿐만 아니라 한국불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관음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렇게 독보적인 창조성을 보이는 작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 작품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백미(白眉)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작품은 조선왕조 제12대 왕 인종의 추모를 위해 부인 공의왕대비가 발원한 작품입니다. 주지하듯이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병사한 비운의 주인공.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을 사랑한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그는, 생전에 외척의 대립 속에 크고 작은 정쟁에 휘말려 끊임없는 음해사건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사후 직후에는 '을사사화'가 발발, 그 여파로 인종 주변 외가 및 처가 관련 약 일백 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숙청 유배 및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하는 모습.

이러한 인종의 생전에서 사후까지의 모든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물 인성왕비(공의왕대비)가 바로 본 작품의 발원자입니다. 인종의 사후 5년째에 감행된 이 추모불사에는 인종을 비롯해 조선전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정쟁에 희생된 많은 영혼을, 아울러 위로하려는 공의왕대비의 염원이 담겨있지 않나 추정됩니다.

화면에는 폭풍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는 장면, 아득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 사형장에서 칼로 목을 내리치기 직전의 장면,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 독약을 삼킨 장면, 호랑이를 만난 장면, 독사와 전갈과 맞닥뜨린 장면, 도적을 만난 장면, 벼락 천둥 등 자연재해를 만난 장면 등, 죽음과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의 중생들이 관음의 가피력으로 이를 무사히 다 피해가는 장면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또 중생의 근기(根氣)에 따라 32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관음보살이 몸을 나투어 제도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32는, 불상(佛相)의 완전한 위덕을 상징하는 32상80종호와 같이 불존의 가시적 형상화(응신)를 말할 때 언급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 32상에 근거한 32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즐겨 쓰이는데, 물론 여기서의 관세음보살이 '32응신'으로 화현한다 라는 것은, '완전한 위덕으로' 또는 '무량무변의 모습으로'라고 의역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폭풍이 불어 악귀의 땅에 이른다 해도 (관음 명호의 힘으로)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면.

사상적 깊이 회화적 우수성 두루 갖춘 한국불화 대표작
32응신이 중생 제도하는 무량무변의 모습 생생히 묘사

<관세음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상에 머무시며 중생을 제도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국토의 중생이 마땅히 부처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위해 설법하시고,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성문의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제도가 된다면 부자의 모습으로…관리의 모습으로, 부인의 모습으로, 어린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사람 또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온갖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머물며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한다'라는 응신묘법의 원리가 설파되어 있습니다.

부(富)를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도하고,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지적인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리로 나타나 제도합니다. 그 어떤 가치도 차별함 없이 원하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부와 명예를 좇는 이에게 공(空)의 미학은 소귀에 경 읽기일 것이며, 또 정신적 해탈을 추구하는 철학적 성향이 강한 이에게 출세의 노하우가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겠지요. 제각기 다른 중생의 수준(근기)에 맞추어 제도한다는 이 방편은 <법화경>의 화택(火宅)의 비유와도 같은 방편입니다. 불이 무엇인지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진기한 장난감이 밖에 있다는 말에 유인되어 불타는 집에서 구출됩니다. 집밖에는 원하던 이상의 보물이 가득한 큰 수레가 있었다지요. 그리고 이 수레를 탄 아이들은 본래 바라던 바가 아닌 미증유(뜻밖의 희유함)를 얻었다고 합니다.



대자재천의 모습으로 제도하는 모습

관음보살은 변화무쌍하게 우리 주변에 온갖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하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줄기도, 마음을 밝혀주는 뒷산의 꽃 한 송이도 왠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일깨우고 자각케 해주는 "blessing in disguise(가면을 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든 시간들도 조금은 의연히 견딜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끈기있게 계속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아마도 보너스로 '뜻밖의 희유함'을 얻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강소연(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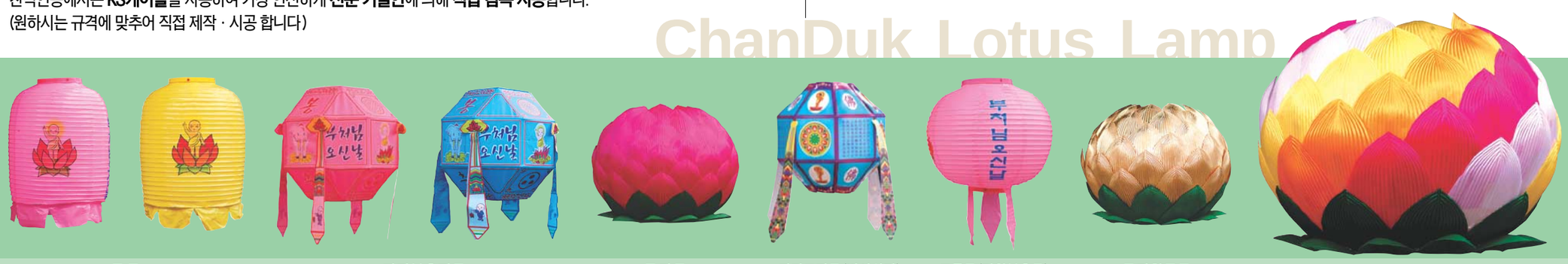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